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추문하세요!!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월 8일 수요일(주간) 제403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스님의 릴레이 시위

월드컵 열기가 한반도를 뒤덮던 지난해 6월 13일.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무참히 짓밟혀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 대다수의 언론은 침묵했지만 사건은 가해자 2명이 자국인들만으로 구성된 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고 본국으로 가면서부터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국민은 분노했고 불교계에서도 각종 법회와 1인 시위, 3000천배, 단식기도 등을 봉행했다. 이런 움직임은 해를 넘어서도 이어져, 5일부터 불교인권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까지 반미시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최루탄과 화염병이 머릿속에서 오버랩 됐었다. 그러나 1인 시위와 촛불시위를 비롯한 현재의 반미시위는 우리들의 분노를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출해내는 일종의 '평화운동'이다.

시위가 평화운동이기에 남녀노소가 찬바람을 맞으면서 거리로 나섰고, 스님을 비롯한 여러 종교인들도 동참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분노했으나 파괴하지 않았다. 다만 의견을 표출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여기에 대해 진관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 중 진(분노) 그 자체에 매몰될 때는 문제지만 현재 온 국민이 느끼는 분노는 '대승적'"이라고 정의하고 "공분을 어떻게 대승적으로 승화시켜 표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수경스님은 "현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노할 때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동남아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와 같은 내재된 폭력에 대해서도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6개종단 연내 총본산 건립

수행·포교·교육·문화 아우르는 구심체 역할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관음종 등 6개 종단이 올해 들어 총본산을 건립한다. 총본산이란 행정기능 위주의 총무원과는 달리 수행, 교육, 포교, 문화 기능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종단의 구심체다. 따라서 총본산 건립은 행정과 수행 공간의 분리와 함께 수행 풍토 쇄신을 통한 신행 활성화 및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은 올해 말 총본산 역할을 하게 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완공을 계기로 청정수행가풍 진작에 나선다. 이는 총무원을 '종단분규의 진원지'에서 승재가의 화합과 수행공간으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한다는 의미다. 또 총본산 내에 마련될 박물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시설도 신도들의 신행 폭을 크게 넓힐 전망이다.

조계종 불교역사기념관 계기 수행가풍 쇄신

태고종 총무원 이전, 전통종단 위상 제고

진각종 연수·교육원 설치 밀교수행 중심지로

태고종은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종도의 힘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안으로 총무원 이전과 함께 총본산을 건립한다. 현재 봉원사와 법륜사가 총본산 후보지로 유력한 가운데 태고종은 이를 통해 전통종단으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진각종도 경주 산내에 소재한 오케이 그린목장 부지 35만평 매입이 완료되는 3월부터 수행총본산 건립에 착수한다. 진각종은 통리원 포교원 등 현 종무행정 센터는 그대로 두되, 총본산은 '밀교수행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연수원과 교육원 등 스승과 교도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총본산에 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행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관음종은 현 총무원사인 묘각사를 총본산으로 확대하고 4~5월경 낙성식을 갖는다. 총본산은 선방과 수행자를 위한 방사를 대폭 확보해 신도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한국불교 법륜종도 수행과 교육의 중심도량이 될 총본산을 건립한다. 총본산에는 강원과 율원, 영산범패 교육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들어선다. 총지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다 중단된 총본산 건립문제를 연내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본산 건립이 대형불사를 고집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행모델을 개발해 이를 검증하고 적용하는 것은 대형불사 보다 발상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총본산 건립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건물 하나 더 짓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수행과 문화의 전문 영역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불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선재동자의 겨울여행' 지난 4일 조계사에서 120여명을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잊혀져 가는 전래놀이를 체험하는 '선재동자의 겨울여행' 수련법회가 열렸다. 사진은 발우공양을 하며 공양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 사회복지 마당 넓힌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계 주요종단들이 새해 자원봉사자 해외 연수, 호스피스 봉사, 미아찾기 등 새로운 복지사업에 나선다.

특히 이들 복지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주력해온 데서 벗어나 복지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불교복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관 14개, 장애인 복지시설 6개 등 83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해외 연수 기회를 적극 늘릴 계획이다. 사회복지재단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자원봉사자들이 일본과 유럽의 선진 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3면으로 이어짐〉

동국대 15대 총장 9일 선임

권노갑 이사 후임도, '추천교수' 수용 관심

동국대 차기총장을 선임하는 동국학원 제189회 이사회가 9일 오전 11시 신라호텔 에뜨와르 연회실에서 열린다. 안건은 동국대 제15대 총장선임의 건과 권노갑씨 후임이사 선임의 건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제15대 총장은 일산병원의 원만한 개원과 개교 100주년(2006년)을 3년 남긴 시점에서 학풍의 쇄신과 각종 교류사업 등을 통한 종립학교로서의 면모 일신이라는 산적한 과제를 가장 원만하게 성공시켜 낼 인사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동국대의 차기 총장선출과 관련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지난해 10월 20일 투표로 선출하여 법인에 추천한 후보는 홍기삼(국문과), 조희영(경영학과), 정병조(국민윤리학과)교수다. 그러나 동국학원이 교수회와 교직원회가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서 차기 총장을 선임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단 정관상 반드시 교수회나 교직원회의 추천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의외의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동국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정대스님은 2일 정각원 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질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줄대기 풍토를 없애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교수를 뽑아 학교의 부흥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즐거운 불교공부…만화·퍼즐 21면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불교계, 공약실천 촉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일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센터를 방문, 백지화 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연석회의는 의견서에서 "백지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전면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4면 증면 32면 발행합니다

뉴스정보 강화·종단 페이지 신설
16+16 섹션체제 강화, 읽을거리 가득

지난해 10월 불교계 신문으로는 처음 섹션 신문을 시도한데 이어 올해에는 28면에서 32면(A 16면, B 16면)으로 증면합니다.

'섹션 A'는 뉴스와 정보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종단면을 신설하고 지역면을 2개 면으로 늘려 전국 불교 현장의 생생한 소리들을 생생히 전합니다.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인 기획면은 불교계의 대사회적 참여에 가교가 될 것입니다.

'섹션 B'에는 만화, 교리 퍼즐, 회화극본 '부처님 일대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면에 모셔온 큰스님들의 가르침은 '지상백고좌'라는 이름으로 이어갑니다.

"부처님 생애 이해 큰 도움 될 것"

김산호 화백, 회화 극본 '부처님'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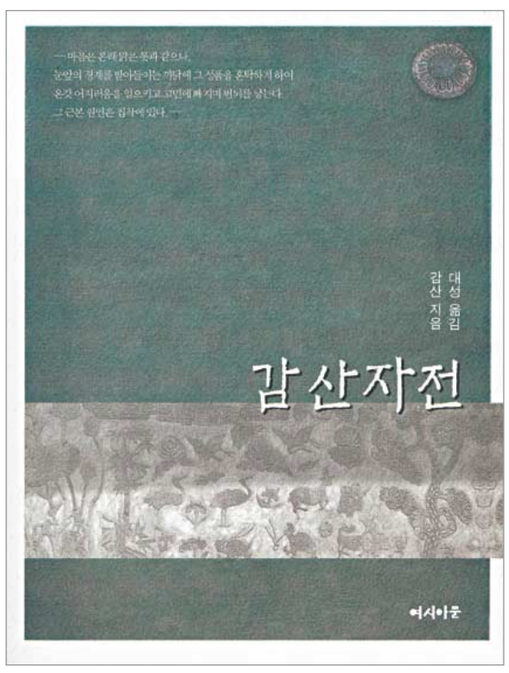


싯다르타의 고행상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피골이 상접한 얼굴은 영락없이 해골이고 갈비뼈는 폐가의 서까래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토록 자신의 목숨을 걸게 한 것일까요. 30여년 동안 미국에서 만화가로 활동해 온 김산호 화백이 새해부터 연재하게 될 회화극본 '부처님'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해탈, 그리고 전법과 열반에 이르는 전 과정이 김산호 화백 특유의 화려하고 장중한 스케일의 그림과 함께 소개돼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김산호 화백은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라벌 예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뉴욕 <Iron Horse Publishing Company>의 발행인을 역임했습니다. 작품으로는 '라이파이'를 비롯해 500여 편이 있습니다.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사 설

‘성도절’ 더 크게 기려야

성도절은 석가모니께서 대각을 이루어 부처님이 되신 날이다.

‘부처님 되신 날’은 불교의 근본취지에 입각해 본다면 ‘부처님 오신 날’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은 날이다.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 일과 부처가 되는 일의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만일 석가모니께서 대각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찌 그 위없는 지혜와 대자대비를 한 조각이나마 느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의 그늘에 가려 이날이 불교 교단 내에서조차 본래의 의미와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자못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이 날을 기리는 알찬 행사들이 보다 많이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바라는 바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 날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석가모니를 닮아 마침내 부처가 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걸어오신 과정을 역행하며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작태가 비일비재 속출하는 요즘, 자기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사회를 정화하는 노력이야말로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떳떳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또한 사회일반에서는 물질주의의 범람 속에 독선과 적대감이 판을 치는 오늘날을 직시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불교의 메시지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기와 인과로 대변되는 불교의 상생과 양심의 원리야말로 이 시대를 바로잡아 나갈 목탁이며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이번 부처님 성도절은 불자는 물론 지구촌 인류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수행총본산 본분사 매진 계기로

불교계를 대표하는 6개 종단들이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행정과 수행공간을 분리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수행총본산 건립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수행과 문화의 전문 영역을 확보하여 각 종단의 정체성에 알맞은 종교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변화가 극심하여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시대조류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음을 각 종단의 책임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신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각 종단의 계획이 훌륭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대형불사가 자칫 종단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외형적 불사로 치우칠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 한국불교계의 현실 내지 한국종교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이러한 계획만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이 없어서 한국불교계의 수행문화가 진작되지 못했다고 말할 것인가? 현대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인간이란 점은 고려했는가? 사회구조의 심층단면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이 땅에 불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가? 내실 다지기, 인재양성, 현대적인 포교방법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빈약한 한국불교계의 인적 자원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불교계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본·말사 중심 지역포교 강화

조계종 포교원 4일 2003년 포교전진대회…기조 발표

템플 스테이·주말 수련회 시행사찰 확대

인터넷기반 확충…신행종합 정보망 구축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를 ‘지역포교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교구본·말사를 중심으로 한 포교활동을 활성화하고 신도 수련 및 조직 강화에 나선다. (관련기사 8면)

조계종 포교원은 4~5일 열린 2003년 포교전진대회에서 포교기조와 분야별 목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94년 포교원 독립 이후 집중된 포교역량이 이제는 지역의 교구본사를 거점으로 단위 사찰에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포교 활성화를 큰 목표로 잡게 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분야별 목표로 △본·말사 포교행정체계 구축 및 신도회 활동 강화 △신도교육체계 확립 △수련·신행 프로그램 개발 및 신행종합정보망 구축 △군·경포교 활성화 △청소년포교 활성화 △국제포교 안정적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분야별 목표에 대한 실천 과제도 선정,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원-교구본사-말사를 연결하는 포교행정 체계를 통일화하는 한편, 수도권 포교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수도권지역의 포교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신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신도교육체계 정착에도 나선다.

또 지난해 실시된 템플 스테이와 주말 수련회 등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사찰로 확대, 정착시키고 사찰별 특성화 수련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포교기반 확충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련·신행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경 포교분야에서도 군법당 및 군신도 등록 확대와 군불교위원회 관리체계 확립, 경승단 지원관리 활성화, 전·의경포교 기반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아울러 계층포교의 중간고리 역할인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청소년 포교인재 양성과 조직화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교구본사와 지역사찰이 포교활동의 주체가 되고 포교원은 이를 지원하는 포교정책과 방향을 잡는 포교체계를 세워, 장기적으로 포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관련 단체와 사찰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그린벨트내 납골시설 쉬워진다

정부 철거·이장 분묘 등 입지제한 없이 허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납골시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는 해당 지역 내 사찰들의 납골시설 설치가 간편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분묘 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이장되는 분묘의 정비를 위한 경우, 입지제한 없이 납골시설 설치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 경내지, 공동묘지, 화장장 이외의 지역에서도 납골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납골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는 화장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납골탑과 납골당 등의 시설들이 사찰 경내지 내에만 설치 가능했던 것에 비해, 개발제한 구역 내 사찰 토지에도 이들 시설 설립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02년 현재 총 32곳에 달하는 불교계 납골시설들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정석 자문위원은 “납골시설 설립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푸는 것도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단독주택 지역 안의 종교집회장에 사설 납골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2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는 화장문화를 장려해온 정부시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유신 기자

승려자격을 박탈하는 멸빈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사설사암의 주지 추천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안양시 소재 용화사의 전 주지 상덕스님이 현 주지 덕문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그 사설사암을 설립한 자의 자격은 종단등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설립자의 추천을 받지 않은 채 주지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요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덕스님은 1975년 용화사를 인수해 1999년까지 대웅전 등을 신축하고 조계종 소속 사찰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나, 99년 종단분규 과정에서 정화개혁회의 측에 가담한 뒤 현 총무원 측으로부터 멸빈을 당하고 덕문스님이 용화사 주지로 임명되는 등 사찰에 대한 권리도 상실했었다. 한명우 기자

“멸빈 징계 받은 스님이라도 사설사암 주지추천권 보장돼야”

서울고법, 용화사 前주지 상덕스님 승소판결

연등축제 ‘동대문운동장시대’ 막내려

청계천 복원사업 따라 주차공간으로 활용

서울시, 조계종에 통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동대문운동장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2003~2005년)에 따른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을 복원기간 중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복원 이후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운동장 관리사무소측은 지난 해 12월 16일 조계종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연등축제는 지난 96년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무대행사를 가진 뒤 종로를 따라 조계사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간사는 “몇 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해 온 것처럼 조계사 앞 도로를 이용한 거리축제 형태로 형식을 바꾸거나 대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신도교양지 격월간 발행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신도임원들에게 통일된 활동 지침과 소식 전달을 위해 계획중인 신도교양지 준비호를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발행했다. 2천여명의 신도회 임원들에게 발송되는 신도교양지는 이달부터 격월간으로 발행된다. 박봉영 기자

본사사령

박재완
㊒ 편집국 사진기자

2003년 1월 2일

‘현대’ 만평 김영민



총본산 중심으로 불교발전을…

불교계 올 대북사업

핵 냉기류 속 지원활동 계속

금강국수공장 밀가루 15만톤 공급 추진
신계사지 지표조사·통일교육자료 발간
"한반도 정세 따라 시기 조절 될 가능성"

불교계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큰 단체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등 3곳이다. 이들 단체에서는 지난 해까지 신계사지 지표 조사, 단청지원 추진, 생필품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냉각기류를 타고 있어 상반기에는 관망 내지는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평불협은 올해 최대의 대북지원사업으로 단청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해 조선불교도연맹과 단청 지원을 협의했던 평불협은 3월 중 평양 법운암 단청불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단청 기술자 5명과 입재식에 참석할 평불협 관계자 10여명이 방북한다. 불사가 끝나면 조불련 측이 지원 요청을 한 60여개 사찰 중 30여개 사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평불협은 이 외에도 사리원 금강국수공장에 15만톤의 밀가루를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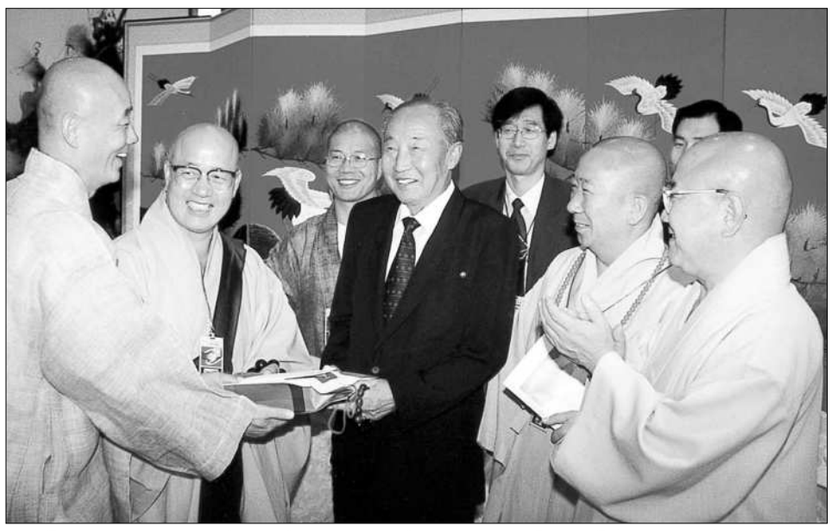
법타스님은 "단청불사 등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부가 문을 닫아버리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지난 해까지 계획 단계에 있던 사업들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5월 불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발굴단 방북 예정인 신계사 복원불사, 조계종 종단 지도자 방북, 통일교육 자료집 발간, 후원회 조직 구성, 소식지 '통일정토' 제작 및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평불협과 별도로 북한 단청불사를 계획해왔던 민추본은 이와 관련 작년 12월 북경에서 조불련과 회담을 가졌다.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평불협과 절충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시기는 조절될 수 있으나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서도 핵 문제에 대한 불신을 씻어 낼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협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에 2003년 사업계획을 올리지 못해 남북협력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 한 관계자는 "작년 종단협 상임이사회 때 불교계 대북창구를 종단협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주요 종단들의 상호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 2월에 예정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작년 8·15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방한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정련스님(앞줄 왼쪽 두번째)으로 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불교 사회복지 마당 넓힌다" – 1면에서 계속

봉사자 선진 유럽복지현장 파견 연수
호스피스 봉사·미아찾기사업 등 추진
탁아소 북한 설치·탈북주민 정착 지원
노인들 복지 위해 경로법회 정기 봉행

이와 함께 조계종은 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사업, 불교 사회복지 조사·연구 사업, 불교 사회복지 정보지원 센터 운영 등을 강화하고 복지시설 유치 및 결연 후원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천태종은 올 한해 니르바나 자원봉사회 운영, 미아 찾기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 불교 복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12월 발족한 천태종 니르바나 자원봉사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말기환자들이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스피스 현장 활동을 비롯, 다양한 자원봉사자 교육, 중앙 자원봉사회 결성 운동 등을 펼친다. 특히 연 8회에 걸쳐 호스피스 기본교육과 연 4회의 심화교육, 연 2회의 실습 교육을 실시, 전문 호스피스 봉사자 65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미아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미아찾기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개한다. 전국 본말사 조직을 활용한 미아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 182 미아찾기 센터와 긴밀하게 연개해 미아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불자 연애인 및 운동선수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사회적 관심을 모은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자비의 연등 배포 사업, '자비손' 발간 후원 모집 사업, 곰두리 저금통 배부 및 모집 등을 통해 복지재단 재정 안정화도 함께 이뤄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각종은 2003년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해 문화복지, 민족 복지, 인권복지 등 3개 분야에 걸쳐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 경제사정이 나날이 악화돼 가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 내 탁아소 설치 및 탈북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내로 탈북자 쉼터를 개설해 탈북 주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한다.

북한 주민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한 진각종은 1/4분기 내로 인천 덕화노인요양원, 대구 보은노인요양원 등 노인 실비요양시설 2곳을 개원할 예정이다.

총지종은 기존에 위탁 받은 복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가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사원이 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직자와 교도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 시실, 각 사원 내 후원회 조직, 자원봉사자 조직 등도 꾸려 나간다. 이외에도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경로법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자연 법칙에 위배" "교리상 문제 없다"

'인간복제' 불교학자 견해 '신중론'

김성철 교수 복제자체 보다 목적이 더 중요
호진 스님 복제도 인간문제, 명쾌한 답 필요

'깨달은 자의 복제, 깨달음까지 복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구도의 과정은 어떤 의미이며, 불가능하다면 복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지난해 말 유사 종교집단인 '라엘리언 무브먼트(Raelian Movement)'가 설립한 인간복제 회사인 미국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탄생 주장에 대해 종교계와 과학계, 각국 정부가 비윤리성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불교계는 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인간복제에 대한 명쾌한 불교적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종교계의 반응 = 로마 교황청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윤리원칙이 결여된 잔인한 정신상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슬람교의 고위 성직자는 "복제인간이 자연법칙을 혼란스럽게 하고 인간 미래의 혼돈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정교회도 "인간복제는 전 세계적인 도덕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가톨릭 정진석 대주교는 "생명공학의 성과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이 되는 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요청된다"고 경고했다.

▲불교학자들의 견해 = 조계종 종정예경실장 원철스님은 이 문제에 대한 종정 법전스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교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견해를 유보했다. 인간복제에 대한 불교계의 불명확한 입장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예다.

이런 가운데 학자들도 저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어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만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기독교적 관점과 불교적 관점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인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과학사상 편집장)는 "경전 어디에도 생명의 인위적 조작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체세포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나 복제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누구인지 등의 권리문제 등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또 자연법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인간복제는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은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라는 화엄사상이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제된 인간도 하나의 개체임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 단계에서의 인간복제는 명확한 목적과 과학적 입증없이 중생의 무명망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철 교수(동국대)는 "복제된 인간의 몸은 색(色·물질)에 불과하며, 진정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식(識·자아)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복제인간을 '식'을 갖춘 개체로 본다면 업이나 윤회사상으로 볼 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따라서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복제도 자연의 섭리로 봐야한다"며 "복제 자체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호진스님(전 동국대 교수)은 "예를 들어 성철스님의 복제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수행의 의미는 없어진다. 힘들여 수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역사·사회·문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면서도 "완벽한 복제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특히 교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진스님은 "복제 문제도 인간의 문제인 만큼 불교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부산 신년하례법회 봉행

성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은 6일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부산불교신도회와 공동주최로 2003년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일주문



공불련 임원·지도자 초청 법회

노옥섭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18일 오후5시 서울 봉은사에서 재경지역 공불련 단위기관 임원 및 지도자 초청 신년법회를 연다.



아름다운 시민대상 수상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는 12월 27일 아름다운시민의모임에서 수여하는 아름다운 시민대상 인권부문상을 받았다.



감포서 신년 해오름 법회

지형 서울 소림정사 주지는 1일 경주 감포 앞바다에서 300여 대중과 함께 '신년 해오름 법회'를 봉행했다.



정기총회 · 신년하례법회

정인악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은 9일 오후 6시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한다.



학인예술제 동향제 개최

일초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은 12월 28일 강당에서 학인들의 예술제인 제14회 동향제를 개최했다.



이전법회·점안식 봉행

자운 서울 약천사 주지는 12월 19일 혜정 일승종 총무원장을 증명법사로 이전법회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소보원법우회 송년법회

신동구 소비자보호원법우회 회장은 12월 30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회원들과 함께 송년법회를 열었다.



불상 봉안식·송년국악축제

정엄 산본 정각사 주지는 12월 29일 큰법당에서 보광스님을 법주로 불상 봉안식 및 송년 국악 축제를 열었다.



유수스님 국민포장 수상

유수 좋은벗들 대표는 12월 24일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체류를 지원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선어록 입문 강좌 개강

송인성 박사는 최근 '선어록 연구소'를 개원하고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선어록 입문' 강좌를 시작했다. (02)597-0787



대전불교사암련 회장 선출

현광 대전 보문사 주지는 12월 27일에 열린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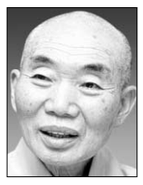
불우이웃 돕기 일일찻집

창법 논산 지장암 주지는 12월 27일 연말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열고 지역 내 50가구를 방문 성금을 전달했다.



청소년 참선교실 개최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은 11일부터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참선교실을 연다. 051-466-4080



불우이웃 성금·물품 전달

학봉 서울 원효사 주지는 12월 30일 효창동 내 독거노인과 소년 · 소녀 가장들에게 성금 및 물품을 전달했다.



불교아카데미 제1차 이사회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10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200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전남도청불자회 수계법회

박재순 전남도청공무원불자회 회장은 12월 26일 광주 향림사에서 대흥사 조실 천운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륜스님 해외순회법회
미국 등 2월 12일~4월 8일



지난해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2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 인도, 태국 등지에서 순회법회를 연다.

순회 법회 일정은 △2월12~3월16일 미국(시애틀, 포틀랜드, LA, 뉴욕, 뉴저지) △3월 17~23일 독일(뮌헨,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3월 25~26일 인도(델리, 상카시아) △3월 29~30일 태국(방콕) △3월 31~4월4일 필리핀(마닐라) 순이다. 자세한 일정은 정토회 홈페이지(www.jungto.org) 참조. (02)587-8992

김재경 기자

제2회 평화와 인권 캠프
나눔의 집, 21~23일 이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원장 능광 스님)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21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평화와 인권캠프(Peace Road)'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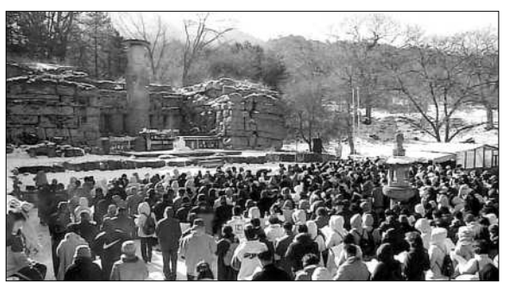
능광 스님은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평화와 인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비는 1만5천원. 031)768-0014

여수령 기자



종열스님 대구청소년수련관장 취임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은 12월 24일 신임 관장 종열스님(대구 청수사 주지)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에는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원명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종열스님은 취임사에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강경독송회 정초 기도 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가 1일 충북 중원군 세계사 미륵부처 앞에서 정초기도 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포항 부산 대구 대전 등 16개 국내외 지역 법당에서 1천여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김재웅 법사는 "이생에 부처님 전에, 그리고 불우이웃을 돕기를 통해서 복을 짓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조선의 승장…' 출판기념회

사명당기념사업회(회장 오재희)는 지난해 12월 14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의 승장(僧將) 송운(사명당)대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출판기념회와 사명당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 등 한일 학자 11명이 공동 집필한 <조선의 승장…> 출판기념회에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8회 포교사고시 공동 수석 2인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것"

조중현 씨 (김포공고 교사)



"수석을 하리라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제8회 포교사고시에서 공동수석의 영광을 안은 조중현 씨(48 · 김포공고 기계과 교사). 조계사 불교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조 씨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으나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한 것은 99년부터다. 3년 전 불교통신대학에서 나온 '불교기초입문'이란 책을 우연히 접한 조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1년에 몇 차례 절에 가서 복이나 빌고 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인 것으로 안 자신의 무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절에 다닌 지는 십수 년 됐지만 삼법인(三法印)이 뭔지 사성제(四聖諦)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자각을 하고 난 뒤 조계사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여러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무작정 부처님 법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조 씨는 특히 불교대학 교수님들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중 · 고교마다 불교학생회 결성 서원

"현재 중 · 고등학교에 기독교 학생회는 많지만 불교 학생회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와 연계해 각 학교 당 불교학생회 1개를 세우는 것이 서원입니다."

조 씨는 청소년 포교가 미진한 것은 적극성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씨는 "교사불자회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 불자들도 참여할 공간을 마련해 청소년 포교에 매진하겠다"라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말보다 실천으로 불법 전할 터"

박병곤 씨 (부산일보 논설위원)



"스스로의 신행에 더욱 철저하고 하심의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포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제8회 포교사 고시 공동수석 합격자인 박병곤(48 · 법명 도일)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말보다는 행으로, 장황한 설명보다는 감동이 있는 실천으로 불법을 전하는 포교사가 되고 싶다"고 발원했다.

"내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응시했는데 뜻밖의 성과가 나왔다"며 겸연쩍어 한 박 씨는 "포교사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아는 불교를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의 생명존중 · 화합정신 사회화 노력

96 년 '착하게 사는 것' 이상의 삶의 철학을 찾아 회사 인근의 부산불교교육원을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한 박 씨는, 2001년 대광불교대학 신행반에서 신행의 기초를 다진 후 불교서적을 탐독하는 준비 끝에 수석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정교하고 과학적인 가르침이 불교"라고 생각한다는 박 씨는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인으로서 불교의 생명존중과 화합의 정신이 보다 폭넓게 사회 전반의 가치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한 "청소년 포교와 자원 봉사활동 분야에 참여해 적극적인 신행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부정투표 의혹

공무원 대거동원 억지투표…공정성 의문

환경평가 실시 안하면 다시 산문폐쇄

통영환경연합 등 공사중지 가처분 추진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가 추진하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하나로 145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오는 2004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경관이 훼손될 뿐 아니라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 운영시 발생되는 소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문제는 12월 27일 통영시가 실시한 설치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통영시는 27일 투표에 3만3천143명(투표율 33.3%)이 참가해 개표 결과 찬성 83.4%(2만7천491명) 반대 16.5%(5천4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용화사측과 통영환경운동연합측은 투표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가 사업 추진시 발생할 자연파괴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용화사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단행한 산문폐쇄를 31일자로 철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산문폐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영환경운동연합측과 연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영시는 문서상으로는 이미 12월 20일 착공한 상태다.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용화사측은 15일 통영시청 앞에서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실시 후 제기된 문제점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투표가 관제투표로 인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에서 투표가 △공평 공정한 선거중립위원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공무원이 대거 동원되어 억지투표 참가를 유도한 점 △각 통장 관계자들이 노인 생보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투표에 참여하게 한 점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집단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점을 등을 거론했다. 여기에 20일 (주)효성과 설치공사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한 점도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대표는 "통영시가 케이블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식생이 튼실하고 경관이 뛰어난 미륵산에 '야열대식물원'을 세우거나 미륵산 해변에 '해양동식물원'을 세운다면 관광벨트화 국책에도 합당하고 케이블카 사업보다 수익성도 앞서고 미륵산의 자연생태계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00만 촛불평화대행진'에서 진관스님이 목탁을 치며 '소파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100만 촛불평화대행진' 회향

진관스님등 종교인 · 시민 3만여명 참가

200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살인미군 참회와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함성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 홍근수 목사 등 종교인들과 3만여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광화문에서 '100만 촛불평화대행진'을 열었다. 미선이 효순이를 위한 묵념, 애국가 제창, 오종렬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대행진 본행사는 장사익씨와 양희은씨의 노래, '2003 자주평화'라고 쓰인 글씨에 불이 타오르면서 절정에 달했다.

본 행사 말미에 '미군장갑차 故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02년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반대하고 한국민의 자주권회복에 불을 지핀 역사적인 한해였다"고 평하고 "2003년은 민족 자주의 꽃이 활짝 피는 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는 해, 오만한 미국으로부터 한국민의 자주권을 쟁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라고 밝혔다.

본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미대사관 방향으로 진출해 '인간띠 잇기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된 후, 오후 11시 경 자진 해산했다.

이에 앞서 진관 · 수경스님 등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부시 공식사과 및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촉구 종교인 단식기도단'은 같은 날 오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한편 여중생 범대위는 2003년에도 매일 오후 6시 광화문 촛불행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범국민촛불평화대행진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25일 (가칭) 재판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공개 사과! SOFA전면 개정 2003년 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아프카니스탄 칸다하르에서 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법륜스님.

아프간 난민 동사자 속출

법륜스님 "텐트 · 식량 · 의복 등 최악"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호 사업에 나서고 있는 법륜스님 등 정토회 관계자들이 12월 9일부터 25일까지 칸다하르 지방 등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본지에 보내왔다.

영하 15도의 강추위를 오르내리는 칸다하르 난민 캠프는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구호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텐트, 식량, 식수, 의복 등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로 어린아이 10명이 동사하고 차만 캠프에도 3명이 동사했다.

정토회는 이번 답사에서 가져간 의복 15만점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직접 지원하는 자리다쉬 캠프를 제외한 1만 5천가구에 지원했다. 또 난민촌 주변 마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부서진 채였지만 교실 바닥에서 수업은 계속되고 있어 학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륜스님은 "유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선 국내 불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문의:02-587-8995

정리=남동우 기자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착수 발주자 · 시공자 과징금 부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마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경우 공사 발주자 뿐 아니라 시공업체도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중 미리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주자만 검찰에 고발해 왔으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시공업체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1월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4년에 발효된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 때 자연, 생활, 사회경제 등 3개 분야 23개 항목 중 앞으로는 문제소지가 있는 중요한 대목만 심도있게 조사하는 스코핑제도(중점평가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공사 완료 후 3~7년까지 확대해 대기질이나 소음, 수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한 · 중 불자들이 천태산 만년사에서 양국의 전통행다법을 시연하고 있다.

중국 천태산 지자탑원서 한 · 중 다도교류대회 열려

중국 천태산(天台山) 만년사(萬年寺)에서 제1차 한 · 중 다도 교류대회가 열렸다. 12월 26일 천태산 지자탑원에서 한국의 천태종 월광사, 부산 삼광사, 가예원 중앙회, 월간 <茶의 세계>와 중국측 만년사 천태현 다도팀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법회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양국의 전통 행다법 시연등으로 진행됐다.

만년사 스님 100여 명과 천태현의 정부 관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국청사 방장 가명(可明) 스님은 "한국과 중국의 천태종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지극한 발원으로 깊은 역사적 인연이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천태산 만년사와 차문화 교류를 가진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만년사는 신라의 도욱존자가 주석하면서, 차를 대중에게 공양했던 역사적 현장으로서 한국 차문화와 인연이 깊다. 또한 일본에 차를 전한 영서 선사(永西禪師)의 <끽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경 기자

주지 이취임식 · 송년법회 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 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활안)은 12월 25일 선원법당에서 주지 이 · 취임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금강선원 이사장 활안스님을 비롯해 400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포교봉사대상 시상, 주지 이 · 취임, 활안스님의 <금강경오가해 특강> 출판기념식, 예술대학 졸업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송광 장애인복지관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광주시 광산구 송광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한다.

송광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직업재활실, 사회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일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하다.

강유신 기자

"수자원공사 사장 즉각퇴진하라"

지리산 댐건설 반대 시민단체들 성명

수자원공사의 댐 설명회 경비 지원과 관련 함양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자원공사 사장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본지 402호 16면 참조)

지리산댐(마천댐) 추진 백지화 주민대책위, 함양시민연대, 지리산권 종교연대 등은 12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2월 23일 마천 지역 단체가 추진해 주민 140여명이 참석한 '용담댐 현장견학'에서 수자원공사가 차량대여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고 대전 본사로 주민을 인도해 '주민설명회'를 연 것은 댐 추진에 수자원공사가 개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개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 사장의 지리산댐 추진 계획이 없다는 거듭된 입장 표명은 지리삼댐을 추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거짓말"이라며 수자원공사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시무식·신년하례 '힘찬 출발'

각종단, 다채로운 새해사업 발표

종단협, 8일 조계사서 하례 신년법회

조계종·태고종·천태종·진각종 등 불교 종단들이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계미년 새해를 시작했다.

조계종은 3일 총무원 청사에서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열고 계미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승가교육체계 확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 현안에 종단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5일에는 총무원장 정대스님, 교육원장 무비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을 비롯해 각 신도·포교단체 임원들이 해인사를 방문, 종정 법전스님에게 신년하례를 올렸다.

태고종은 2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운산 총무원장, 운곡 중앙종회의장, 법장 중앙호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법령집 및 행정지침서 발간, 총무원사 이전 및 신축 등 제도 개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수립해 종단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동방대학원대학 개교, 장묘문화 개선 캠페인 등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별도의 시무식을 하지 않은 천태종은 포교 사업을 비롯 국제 불교문화 교류, 사회복지사업 확대 등 신년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7일에는 구인사에서 제2대 종정을 지낸 대충대종사 탄신기념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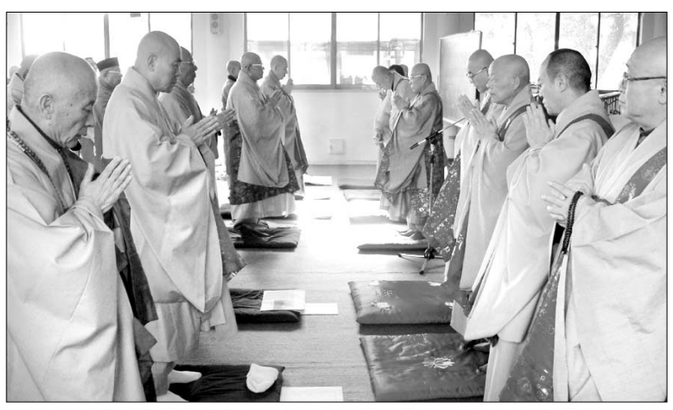
진각종은 4일 통리원에서 시무식을 갖고 총본산 건립, 교학 및 교법체계 확립, 진각종 대중화 실현 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불교조동종과 원융종은 6일 서울 보리원과 총무원사무실에서 각각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총화종도 남양주 수진사에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열었다. 일붕선교종은 7일 총무원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소속 25개 종단대표자와 불교계 지도자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종단간 화합과 북한 불교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계 각 종단들은 각각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열고 계미년 새해를 열었다. 조계종 시무식(위)과 태고종 신년하례법회(아래).

세계평화 불사리탑 건립 발원

영산법화사 법주 행산스님



"늦게 시작된 불사인 만큼 보기도 좋고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간절함이 잘 나타낼 수 있는 탑을 세우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양주 영산법화사 장흥 원당(願堂)에서 '세계평화 불사리탑' 건립을 위한 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를 주관한 영산법화사 법주 행산스님은 부처님 사리를 이운해 온 지 36년이 지나서야 불사를 시작한 죄송한 마음을 부처님 전에 참회의 기도로 대신했다.

'세계평화 불사리탑'에 모셔질 사리와 금동사리함은, 아쇼카왕이 다구사시라에 건립했던 탑에서 발견돼 인도 국보로 지정됐던 부처님 진신사리. 인도 네루수상이 간디와 함께 반영(反英) 비폭력 운동에 가담했던 일본 후지이 니타츠(藤井日達) 스님에게 기증해 뉴델리박물관에서 59년 일본 묘법사로 이운됐다가, 니타쯔 스님이 법을 나눈 법화스님(영산법화사 창건주)에게 다시 기증해 66년 한국으로 옮겨져 서울 영산법화사에 봉안돼 왔다.

법화스님의 제자인 행산스님은 불사리를 모실 탑을 세우기로 발원한 지 30년만에 탑지(塔地)를 닦았다. 68년부터 매입을 시작해 18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마련, 이날 법회를 시작으로 '세계평화 불사리탑'과 법당, 요사 등 본격적인 도량 불사를 시작한 것이다.

"'세계평화 불사리탑'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비핵·평화운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전해 온 스승 법화스님의 서원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행산스님은 스승에게 받은 사랑을 갚고, 평생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스승의 뜻을 기리는 제자의 작은 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비핵·평화운동 편 법화스님 뜻 기려



◇회성 정사



◇무외 대정사



◇지정 대정사



◇덕정 정사



◇경당정사

진각종 부국장급 인사단행

통리원, 기획국·전산국 신설

진각종은 지난해 12월 27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원의회(중앙종무기관 간부회의)를 열고 통리원과 교육원, 진각대 부·국장급 내정자를 발표했다.

원의회는 통리원 문화사회부장에 회성정사(불정심인당 주교), 포교부장에 무외대정사(무애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법부장에 지정대정사(명성심인당 주교), 교육부장에 덕정정사(법륜심인당 주교), 진각대학 교무처장에 경당정사(관행심인당 주교)를 내정했다. 또 총무국장에 현수정사(득도심인당 주교)를 내정하는 한편 통리원에 기획국과 전산국을 신설, 국장에 호당정사(실상심인당 주교)와 경일정사(최정심인당 주교)를 각각 선임했다.

이들 통리원 및 교육원 부·국장급 내정자들은 차기 종의회의 인준을 통해 임명된다. 박봉영 기자

의정부·성남 사암련 회장 종명스님·록봉스님 취임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의정부 삼천리회관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열었다.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종명스님은 "지역불교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 각 사암의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도 지난해 12월 28일 프린스웨딩홀에서 제16대 회장 록봉스님(삼보사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록봉스님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불심을 하나로 모아 인화단결된 불교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종단소식

태고종

동방대학원대 이사 선임

태고종은 2일 운산 총무원장, 원봉·혜공 총무원 부원장 등 3명을 학교법인 동방대학원대 이사로, 자월스님을 감사로 선임,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충북종무원장 월담스님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정기지방종회를 열고 제12대 종무원장에 월담스님(청주 청룡사 주지)을 추대했다. 또 부원장에는 일송스님(청주 반야정사 주지), 호법위원장에는 법안스님(제천 영천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종무원장 취임법회는 9일 11시 청주시 현대뷔페에서 열릴 예정이다. (043)265-7100

천태종

동안거 해제법회 열어

천태종총본산 구인사는 12일 오후 10시 설법보전에서 동안거 해제법회를 열고 1개월간의 안거를 마친다. 재가자로 구성된 1500여 대중이 참가해 진행된 동안거는 지난달 13일부터 매일 관음기도, 염불정진 등 용맹정진을 이어 왔다. 한편 같은 시간 천태종 산하 전국사찰에서도 동안거 해제법회를 연다.

대한 법화종

비구니·사미니 수계법회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혜륜)은 12월 26일 총무원 법당에서 제1회 비구니·사미니 수계법회를 열었다. 병수스님을 전계아사리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비구니 31명, 사미니 1명 등 32명이 계를 수지했다.

총지종

종조탄신일 기념불공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29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40여 사원에서 종조탄신일 기념 불공을 올린다.

원효종

경북종무원장 취임

대한불교원효종은 지난해 12월 28일 경북교구 제4대 종무원장 성묵스님 취임식을 개최했다. 포항 고왕사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원효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효담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성묵스님은 "종조인 원효성사의 뜻을 받들어 원효사상의 화쟁이념이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량종

중앙종회 열어 예산 확정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총무원에서 제8차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종회의원 23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회는 2002년도 결산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도 예산심의 승려교육 종단 합동법회 및 제반 행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게시판

알림

▲장애인 복지법 제 48조가 200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LPG 차량 연료 지원비가 리터당 142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자립금 융자가 보증인 면제 및 대여금리 4%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기준을 4인 가구 월 11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확대했다.

모집

▲일산노인복지관은 노인 이·미용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관련 자격증 소지 3년 이상인 사람. (031)919-8677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마포 경로식당에서 무의탁 노인 중식 제공 일을 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활동시간은 월~금 오전 11시~오후 1시. (02)365-3677

▲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무의탁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와 후원자를 찾고 있다. (02)2203-3677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31일까지 '자비의 선물' 후원자를 모집한다. (02)723-5101

구인

▲용인 선재어린이집은 정교사와 보조교사를 찾고 있다. 급여는 소지 자격증에 따라 결정된다. (031)336-9714

▲의정부 은행나무어린이집은 1, 2급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를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2명. 마감은 충원시까지. (031)843-5454

▲제천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마감은 충원시까지. (043)652-0904

▲보현행원 노인요양원은 생활지도원 한 사람을 10일까지 모집한다. (055)329-1733

▲개원을 앞둔 광주 송광장애인복지관은 사무국장, 팀장, 사회복지사 등 16명의 직원을 모집한다. 접수 마감은 11일. (062)941-82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계약직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보건학 및 약학 석사 학위 취득자 및 예정자. (02)380-8269

강좌

▲가족치료협회는 가족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 등의 강좌를 실시한다. 개강일은 1월 20일, 2월 17일 등. (02)711-6242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는 13~18일 서울 역촌동 연구소 내 강당에서 전통사찰음식 강좌를 연다. 선착순 30명. (02)355-5961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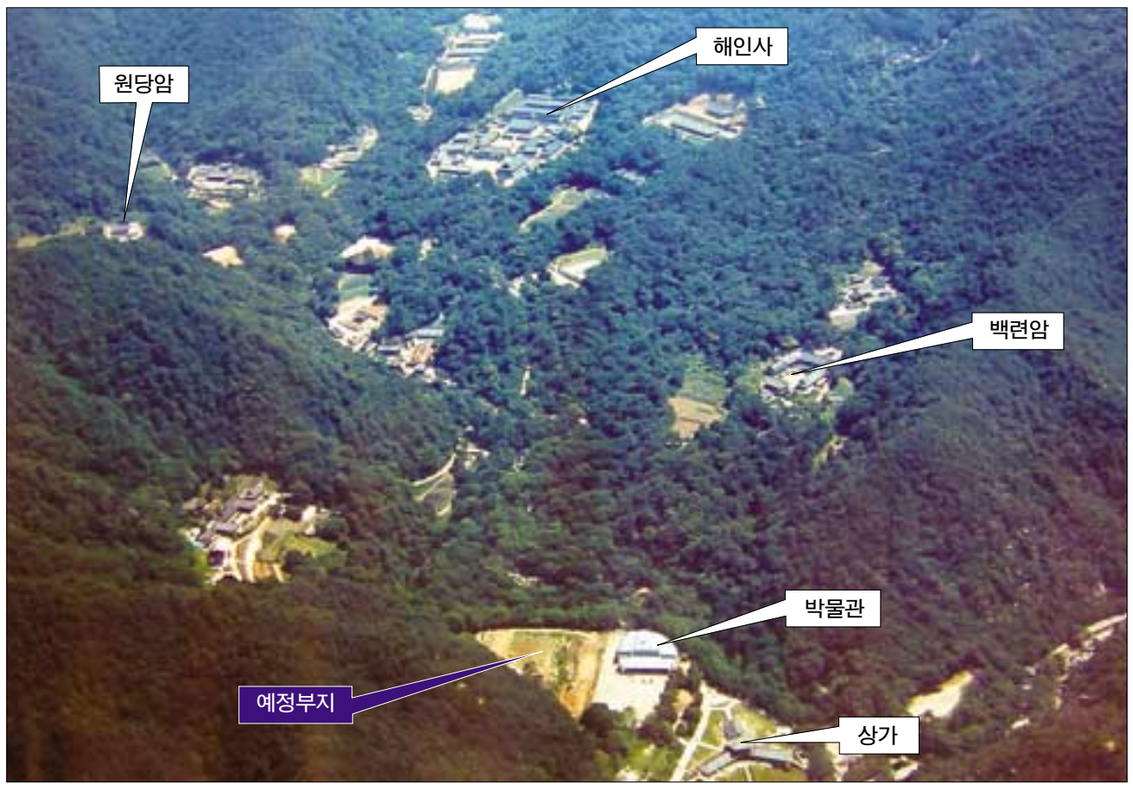
▲한국복지사협회는 15일까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 활동 수기를 공모한다. (02)786-01190



지난해 12월 28일 해인사 성보박물관 앞 도량 건립 부지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건축가들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해인사 개산 1200년 만에 제2의 창건에 비유되는 신행문화도량 설계경기 공모전에 참여키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해인사가 수립한 성보박물관 주변 27000여평의 부지에 약 200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신도량 건립계획은 불사의 의와 규모뿐만 아니라 대규모 설계경기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세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량 건립에 21세기형 공모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올 10월 착공해 2005년 10월 완공예정인 신도량에는 법보공간, 신행공간, 도서관, 회의공간, 다목적공간, 거주공간 편의공간 등이 들어서며 종교적 신성함과 상징성, 창조성, 예술성이 조화롭게 표현된 자연회복과 치유를 강조한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조성된다.



◇항공사진으로 본 가야산 해인사 전경. 신행문화도량 예정부지는 해인사와 주변 암자로 통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신행문화공간 건립 심포지엄에는 500여명의 건축가들이 참석했다.

"짓되 짓지않는, 자연과 하나된 건물"

해인사 신행문화공간 건립 설계경기공모 현장 설명회

신행문화도량 건립에 경기공모방식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이상해(성균관대)교수는 "해인사가 지금까지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주변의 문화재 등으로 인해 사찰 본연의 기능 외에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해 사찰 경내는 종교적 도량의 분위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불자들에게조차도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 교수는 "신행문화도량을 통해 스님들에게는 수행공간을, 불자에게는 법회 및 수련을 위한 장소를, 관광객들에게는 불교를 통하여 정신을 순화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탐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행문화도량이 완공되면 이곳은 사부대중의 신행생활을 위한 도량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기존의 해인사는 스님들의 전문 수행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도들의 출입이 제한돼 그간 제기돼 왔던 관광객에 의한 수행환경 침해와 문화재 훼손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기존도량 출입 제한에 대해 "불자들이 해인사를 찾아오더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지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원활한 보존을 위해 신도량에 경판고를 조성하고 여기에 실물과 유사한 모조 대장경판을 전시토록 해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장경각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문제가 됐던 33m의 청동대불 조성 계획은 10m상당의 실내불이나 또다른 형태의 신도량 일부분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행·법회·탐방 아우른 도량

1차 5~10개 설계 내달말까지 선정
설계경기 거쳐 10월 최종확정·착공

해인사가 설계경기 공모를 계획하게 된 것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신행문화도량의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완공한 해인사 성보박물관 또한 그러한 과정의 하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신행문화도량 건립논의는 지난해 여름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건립 진행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0여 차례 걸친 회의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설계경기방식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26일 오후 5시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모두 86개 팀이 참여한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설계경기는 2월 28일까지 1단계 일반공모를 거쳐 뽑은 5~10개 작품을 대상으로 지명 설계경기를 갖는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따라서 1단계 일반공모에서는 참가자들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방식이 되며, 2단계에서는 실제로 설계 경기를 통해 서로의 실력을 겨루게 된다. 최종 발표는 10월경에 있을 예정이며, 곧바로 건립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심사위원 선임에 대해 해인사 원철스님은 "1차 공모가 마감되는 2월 28일께 건축관계자 4인, 스님 2인, 외국 건축가 2인 등으로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로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해인사 성보박물관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사회자 정기용 교수가 설계경기 기본지침을 전달하자 조용하던 장내가 일순간 술렁거렸다. 기본방침이란 다름 아닌 '건물을 지으면서도 짓지 않는, 자연의 지형지물과 하나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일종의 '화두'였기 때문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사찰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런 형이상학적인 지침이 내려지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계속해서 정교수는 "500여년에 걸쳐 자연과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해인사가 만들어졌듯 이번 공모전의 주요 목적은 자연환경과 건물의 배치가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해답을 얻고자 함"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지만, 이들의 당혹스런 표정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조건이 주어진 건축공모 관행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주문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개인 건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가 조성용(58 · 서울 양재동)씨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물을 설계하고 세우는 것은 건축가로서는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기에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합천= 박원구기자 bak09@buddhapia.com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설명회가 예정부지 현장에서 12월28일 열렸다.

"승가와 재가가 합일된 공간이어야"

신행문화공간 건립 심포지엄 500여 건축가 참여


◇김봉렬 교수


◇유홍준 교수


◇이상해 교수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심포지엄에서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화엄사상과 불교건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화엄의 세계는 부분이 곧 전체요, 전체가 곧 부분인 관계성을 뜻한다"면서 "이는 곧 자연과 건축물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상호유대적인 조화 속에서만 바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홍준(명지대) 교수는 '시대정신과 불상의 이미지'를 제목으로 한 슬라이드 상영에서 "신라, 고려, 조선시대 불상의 모습이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는 것은 그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요즘 사찰들에서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대불들은 대부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불상이 많아,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상해(성균관대) 교수는 '해인사 신행도량 건립의 의의와 목적'에서 "해인사 신행문화도량은 새로운 시대의 사찰 전형을 보여주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현대사찰은 해인사에 건립될 신도량처럼 승가와 재가 모두가 만족하는 합일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 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조계종 포교원은 4일 올해를 '지역포교 활성화의 해'로 선포했다. 교구 본·말사 포교활동을 지원하고 군·경, 청소년포교에 지역 사찰의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지역포교 활성화 어떻게 해야하나

종무기관-포교현장 연계강화 "해법"

포교예산 부족·종단인식 부족 큰 걸림돌
수련모델 다양화로 참여 폭 넓혀야
군 인근 사찰 지원·경승단 조직 정비해야

신도교육체계 확립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본·말사 포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행정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포교 활성화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교구본사와 단위사찰이 포교의 활동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조계종 포교원의 주도로 진행돼 온 지역포교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신도기본교육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찰이 조계종 전체사찰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의 시행지침이 말사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재교육의 경우 시행 6개월만에 시행주체가 포교원에서 교구본사로 바뀌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다.

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교원과 본사, 본사와 말사를 연결하는 긴밀한 포교행정체계 수립은 물론, 포교원은 정책 개발과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포교원의 1년 예산이 조계종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포교에 대한 종단의 인식 부족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련 프로그램 개발

지난해 월드컵 기간 중 실시된 전통사찰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사찰체험 수련법회가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수련법회가 참선 위주의 단순한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름수련회와 주말수련회와는 달리 템플 스테이는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가족수련회, 주말 시민선방, 개인 수행 프로그램, 계절별 수련회 등 주5일 근무제와 개인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련법회 모델 개발은 연구 과제가 아니라 당장 실현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대한 홍보방법의 다양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군·경 포교 활성화

군법당은 현재 40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군법당을 관리하고 장병들의 신행활동을 이끌어야 할 군법사는 120여명에 불과하다. 군법사 1인당 4곳의 군법당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군부대와 군법당이 집중돼 있는 전방지역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게다가 5만여명에 달하는 전·의경 포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해 250여 군법당과 일반 사찰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였다. 조계종 포교사단도 70여 군법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교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담당하고 있는 군법당에 포교사가 지원하는 경우 군법사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포교사들의 군법당 지원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군법사들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연수 조계종 포교사단 군불교특별위원장은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 인근 사찰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비구니 군승 파견, 사미 군승 복무 의무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경승단 조직체계 정비와 경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청과의 협조관계 형성 등이 요구된다.

청소년 포교

조계종은 소속 사찰 가운데 중·고교생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의 수, 운영실태, 참여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설립한 이후에도 청소년불자들의 수는 크게 늘지 않은 점은 효과적인 청소년 포교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청소년 불자들의 신행지도와 상담을 담당할 교사들의 절대적인 부족도 청소년 포교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어린이와 청년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청소년층의 중요성에 비해 포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스님과 신도회가 청소년 포교에 대한 지역사찰의 관심과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 지도자를 육성하고, 중·고교 법회 운영 유무에 따라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종단 차원의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국제포교

현재 한국 내에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전혀 없다. 3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2만여명의 주한미군 등 국내거주 외국인은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다. 조계종은 국제포교사제도를 두고 140여명의 국제포교사를 배출했지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해외에 건립된 한국사찰과 포교인력, 외국인 불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조처가 전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포교를 위한 기반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다. 장기적인 해외포교 계획안을 세우고, 불교서적의 외국어 번역판 발간, 외국어가 능통한 스님 및 국제포교사의 해외 파견과 지원 등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그림·김영민

분야별 목표	실천 과제
본사 포교행정 강화 및 교구본말사 신도회 강화	·본사포교국장회의 강화 ·전법도량 지원관리체계 확립 ·수도권포교연구위 구성 및 운영 ·신도회 현황파악 및 등록 유도, 본말사 연계방안 마련
기본·전문교육 정착 및 신도교육위 운영 내실화	·신도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기본교육 설문조사, 평가세미나, 교재 제작 ·지도자교육 연구개발, 교육과정 개발 세미나 ·직할교구 재교육 심화, 신도단체장 등 각종연수
수련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신행종합정보망 구축	·사찰별 특성화, 다양화된 수련 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포교기반 강화 ·사찰수련회 운영자 연수 ·수련법회 정보센터 확대 상설화, 신행종합정보센터 운영 ·주5일근무제에 따른 포교프로그램 연구개발
군·경 포교 활성화	·군법당 및 군신도 등록 확대 ·군불교위원회 관리체계 구축 ·경승단 지원관리 활성화 ·전·의경 포교기반 구축
청소년포교 활성화	·제2회 청소년국제캠프 성공 개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중앙-지방조직체계 정비 ·청소년 포교주체 구축 및 조직화
국제포교의 안정적 기반 확충	·해외사찰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형성 ·국제포교 지침서 제작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포교 연구팀 구성, 운영
포교·신도단체 사업별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포교신도단체 지도자회의 ·포교신도단체 실무자 교육 ·신년포교전진대회

"더 이상 헛되이 살 수는 없다" 구더기 치우면서 얻은 깨침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주원 소장
경불련 아침을 여는 집

한 노숙자의 일기

"챙겨줘요? 뭘 챙겨준다는 거죠. 말이 좋아 노숙자 '쉼터'지 길거리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1년 동안 같이 살아도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살고 있잖아요. 그런 형편인데 누가 누굴 챙겨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중도씨를 칭찬하고 싶어요. 밥 먹을 때가 되면 보살님을 도와 식사 준비도 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챙겨주고 계세요."

평소 말이 없던 박명수씨(49·가명)가 가족회의 시간에 김씨를 칭찬한다. 김중도(51·가명)씨는 칭찬을 받고 쑥스러운 듯 "칭찬 받을 만한 일은 아닌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침을 여는 집에서 따스한 잠자리를 얻었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함께 생활하는 분들께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쉼터에 머무르는 사람 가운데 몸, 마음 어느 한쪽이든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김씨는 지난 1991년 교통사고로 1년 가까이 치료받고 퇴원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으나 2년간 재활훈련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재활훈련으로 장애를 이겨낸 뒤 매제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

"한참 사업을 벌였을 때 갑자기 매제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만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서 저는 거래처나 외상대금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매제가 세상을 떠나자 여기저기서 돈을 받으러 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김씨는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자 2001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뒤로 한 채 야반도주 하듯 서울로 왔다. 서울로 올라 온 김씨는 아침을여는집에 입소한 뒤 동사무소에 공공근로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방황 끝에 아침을여는집에서 알선해 준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그나마 임시직이어서 몇 달 뒤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오래 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는 하늘에서 별 따기다.

"공단에도 많이 쫓아 다녔어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도 많지 않지만, 고용한다고 하는 곳을 가보면 일반인도 힘들어서 꺼리는 일을 하라고 하니 어디 할 수 있어야죠."

김씨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한다. 그는 공공근로에 참여해 "골목청소를 하다보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더군요. 구더기를 손으로 만지고 치우면서 더 이상 헛되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런 일을 해서 받는 임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돈은 제가 구더기 치우면서 번 돈이니까 세상 어떤 돈 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다"고 한다.

아침을 여는 집은 노숙인쉼터 가운데 유일하게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노숙인과 일반인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두터운 현실에서 이들과 생활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김씨는 "다 같이 오갈 데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칭찬해 주고 보듬어 주면 잘 따라와 줍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같이 생활해 보니 모두들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더군요."

꿈을 묻는 질문에 김씨는 "설렁탕 집을 하고 싶어요. 배고픈 사람이 오면 한 그릇 퍼줄 수도 있고요."라고 말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들에게 정녕 새로운 아침이 올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희망'이야말로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힘이 될 것이다.

‘내실화’

직장직능단체 올 화두

직장聯, 위상정립 · 미창립지회 결성 지원
전문직불자회, 회원 늘리기·법회 활성화

직장 · 직능 불교신행단체가 전국연합단체 또는 전문직 직능단체별로 미창립 불자회 지원, 조직력 강화 등을 중점으로 한 새해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전국경찰 불교회, 전국불자 교정인 연합회, 전국금융단 불교연합회 등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연합회는 미창립 지회의 결성 지원, 연합조직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불자회, 불자약사보리회, 불자법조인 모임 서초반야회 등의 전문직 불자회들은 법회 활성화, 회원 배가운동 등 조직력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밝히고 있다.

제2기 회장단을 출범시킨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미창립 지회 결성 지원과 신행활동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불련은 이를 위해 단위 기관불자회의 창립 지원, 지역별 봉사활동 활성화, 지역별 공무원불교대학 설립 추진 등의 세부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임원간담회, 지부별 합동법회, 지회간 교환방문 법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 직장 · 직능 불교단체들이 불자회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언론사 불자회 창립법회 사진.

전국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이인규, 이하 전불련)는 제2기 연합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조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들어간다. 우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불자회의 결성 유도를 시작으로, 본사 반야회, 전력연구원불자회 등의 단위 사업소 불자회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전불련은 올 상반기에 연합조직을 체계적으로 이끌 사무국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연합조직의 위상 강화는 전국경찰불교회, 전국불자 교정인 연합회, 한국교수 불자연합회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의 특성을 살린 직능직 불자회들은 진료, 법률, 효도관광, 세무 상담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는 법률상담 정례화를, 불자약사보리회와 선재마을 의료회는 무료진료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는 효도관광을, 한국세무사불자회는 홈페이지(www.buddhatax.com)를 통한 세무상담 등을 통해 직업적인 특성을 살려 불자회 조직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직능직 불자회의 전문직종 활용을 통한 대사회 불교활동 강화는 전문직이 아닌 일반 직장 단체불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공불련의 공무상담, 금융단 불자회의 금융상담 등의 활동은 회향의 측면에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의 관계자는 “직장 · 직능 불교단체의 올해 사업계획은 내실화로 그 특징이 집약 된다”며 “불자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교육프로그램 개발, 재정안정책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서울·경인교사불자연합회

‘아이들의 미소에 부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미래의 붓다가 맘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학교마당’, 그곳에는 언제나 서울 · 경인교사불자연합회가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전 · 현직 선생님 120여 명이 지난 97년 9월에 뜻을 모았습니다. ‘새싹불자’들과 어깨동무하려고 불자선생님들이 의기투합을 했던 거죠. 불교문화를 빼고, 한국전통문화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겠다는 원력으로 서울 · 경인교사불자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창립은 지난 96,97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불자교사연수회가 도화선이 됩니다. 이후 우리 서울 · 경인교사불자연합회 창립은 98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발족의 모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사불자회 식구는 450 여 명입니다. 자랑거리요? 단연 왕성한 신행활동입니다. 매달 1차례 정기법회는 기본이고, 올해까지 전국 70여 사찰을 순례하며 단기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회원 상호간의 신행상담과 회원소식을 담은 회보 ‘풍경소리’ 발간도 우리 불자회의 빼놓 수 없는 자랑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불자회 활동은 청소년 포교활동입니다. 학교 내 사찰 불교학생회 지도는 물론, 조계종 산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지도자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훼불 방지와 사찰환경 지킴이 활동인 ‘가람수호활동’을 비롯해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포교활동에 사용할 법보시용 책자구입과 발간 비용 등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서울 · 경인 지역의 선생님 수가 14만5천여 명이 되는 것에 비해 불교교사 수는 극히 미약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서울 · 경인교사불자회는 ‘포교’가 ‘교육’이라는 사명감으로 ‘교실’을 ‘법당’ 삼아 부단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중 있게 전개할 ‘회원배가 운동’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중점사업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불자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보현행원의 원력을 다지겠습니다.

■엄범순 사무국장 (경기 한사랑학교 교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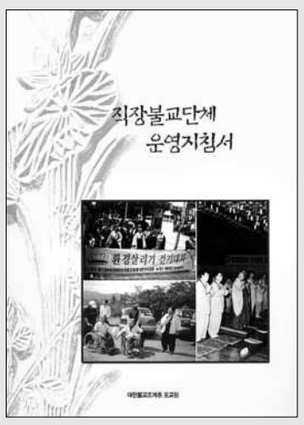
◇사찰 수행환경 법회를 마친 서울 · 경인교사불자연합회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풍경소리’ 발간·파라미타 활동에 참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회원 배가운동 계획

직장불자회 운영 이렇게…

조계종 포교원 지침서 발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직장불교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 교육, 포교, 신행 등을 망라한 운영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에는 바람직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서부터 신입회원 모집요령, 수련회 개최요령, 시기별 신행프로그램 소개, 직장단체 창립을 위해 필요한 준비 등을 담았다. 환경법회, 가족법회 등 다양한 법회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모범단체 사례, 오락프로그램 등도 담겨 있다.

조계종 신도국장 주경스님은 “직장불교단체 임원들이 조직운영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태도와 방법 및 포교와 실천 활동에서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했다”면서 “600부를 1차적으로 간행해 직장단체를 중심으로 1월중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20-7060~3

박봉영 기자

회원모집·수련회 개최 요령 등 담아

인천공항 경찰대 불자회 창립

회원 400여 명, 전인배 준비위원장 선출
이달 말 경승 위촉…정기법회·수련회 돌입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는 인천국제공항 경찰대가 이달 중순경에 불자회를 창립한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불자회 창립준비위(위원장 전인배, 경위)는 2일 인근의 한 식당에서 발기인 모임을 갖고 이달 중순경에 창립종회와 법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10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이날 모임에서는 전인배 창립준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를 갖췄다. 창립준비위원들은 6개월 전부터 회원모집에 들어가 현재 4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창립법회 일정은 경찰대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순경 봉행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불자회는 이달 말까지 경승을 위촉하는 대로 곧바로 정기법회, 수련회 개최, 복지시설 후원 및 자원 봉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경찰대 내에 자체 법당을 마련, 지속적인 신행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회원 확대와 인근 경찰불교회와의 교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전인배 외사과 입국계장은 “3교대 근무로 회원들의 법회 참석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달 정기산행법회와 전 · 의경 법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참석 기회를 제공해 경직된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신심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경산조폐창 13일 중국 성지순례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정철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관음성지인 보타낙가산 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경산 보리불교대학 재학생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이번 성지순례는 금강회 지도법사 증악 스님이 동행한다.

언론사 불자聯 신년법회 봉행

언론사 불자연합회(회장 정종철, KBS불교연구회 회장)는 23일 오전 12시 서울 여의도포교원에서 신년정기법회를 봉행한다. 2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여의도 포교원 원장 현진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직장불자로서 바른 신행을 서원한다. 2월부터는 정기법회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여의도 포교원 제1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漢譯경전 언어 연구 불교학 기초 작업"

쭈칭쯔 북경대 교수, '불교와 언어' 좌담회서



"기원 전·후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이후 당나라 때까지 무려 1천년에 걸쳐 범어로 된 불경을 한자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한역 불경에 쓰인 한자에는 방언이나 구어는 물론 원래 한자에는 없는 어휘와 문법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른바 '불교 혼합 중국어'라 불리는 이 시기 중국어에 대한 연구는 불교학 연구의 기초 작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초구에 최근 문을 연 선어록연구소(소장 송인성 박사)에서는 중국 베이징(北京)대학 중문과 쭈칭쯔(朱慶之, 47·사진) 교수를 초청해 '불교와 언어'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1990년 중국 쓰촨(四川)대학에서 '불전과 중고시대(서한시대~당초) 중국어 어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쭈칭쯔 교수는 한역 불경 언어 연구의 권위자. 쭈칭쯔 교수는 "지난 해 11월 대만에서 열린 '한문불전언어학 국제학술연구회'에 중국, 대만 등지의 학자 40여 명이 주제 발표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국내학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쭈칭쯔 교수는 불교 혼합 중국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불경 번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면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어 불경을 중국어로 옮기는 과정에 이름을 남긴 역자는 100명이 넘지만 대다수가 서역의 고승들이고 순수한 중국인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당연히 역자의 중국어는 대부분 외국어식이며 방언 색채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

쭈칭쯔 교수는 "범어와 중국어는 언어 구조와 유형에서 차이가 있어 중국어 고유 언어 성분만을 사용해서는 원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해 낼 수 없었다. 어휘나 문법 등 원전의 언어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번역자인 외국 고승들의 모국어에서 영향 받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범어를 한자로 옮길때 방언·구어 사용
"불교학자·중국어 전문가 공동연구 필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 학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불교 문헌의 언어가 일반적인 고대 한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90년대 들어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정착돼 북경대학교의 경우 '불교 중국어 연구'라는 대학원 과정이 개설돼 있다.

선어록 연구자인 송인성 박사는 "<조당집> 등 당·송대 선종 어록 역시 당·송 시기의 구어나 방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국내 학계에서 이 분야 연구자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며 "불교학자와 중국어 전문가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국내 첫 고려왕실 영당터 발견

충주 숭선사터서 고려 석축 원형도



◇충주 숭선사지에서 출토된 귀면와와 연봉형 장식.

요즘 TV 사극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고려 4대 임금 광종은 어머니인 신명순성왕후를 위해 모후의 고향인 충주에 숭선사를 창건했다고 <고려사>는 전한다. 숭선사터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거듭될수록 흥미로운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충청대박물관(관장 장준식)은 지난해 12월 30일 3차 발굴조사(2002.11.4~) 결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갖고 "지난 2차 발굴 때 국내 최초로 금동으로 만든 연봉 장식이 발견된 건물터는 신명순성왕후의 영당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고려 왕실의 영당터가 발굴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금당터 뒤편에서 발견된 영당터는 처음 강당터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축대가 39m에 달하는 데 비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측면 1칸(정면 3칸)으로 강당으로 쓰기엔 규모가 작은 점 △지붕에 금동장식을 쓰고 타일처럼 벽에다 벽돌을 붙인 점 △어머니를 위해 절을 세웠다는 <고려사> 기록 등을 볼 때 영당터로 추정된다고 박물관측은 설명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또 고려시대 석축 방식이 최초로 밝혀져 관심을 모았다. 사찰 중심구역 남쪽 끝에 조성한 석축은 장대석만 쌓는 일반적 방식과는 달리 장대석 뒤편에 자연석을 5열로 쌓아 뒷채움을 하고 앞면을 장대석으로 마무리한 것이 특징.

장준식 관장은 "숭선사는 고려 왕실이 관련된 최초의 유적으로 출토 유물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어 역사적, 미술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3차례 발굴조사 결과 숭선사는 고려초 창건돼 18세기까지 법등이 이어졌으며 최소한 3차에 걸쳐 가람배치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갈등 해법 연기적 세계관

'깨달음의 노사관'은 극한 대립 피할 사상적 힘

유승무 교수 주장

서울시의 지하철 막차 1시간 연장 운행을 둘러싸고 서울지하철공사 노사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화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은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포교사회학과·사진)는 최근 발간된 <중앙승가대 교수 논문집> 제9집에 발표한 '불교의 노사관과 불교적 노사 갈등 해법'에서 "서구에서 탄생한 기존의 노사 갈등 이론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구의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노동조합과 경영자 사이의 단체협상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사 갈등은 다양한 당사자가 개입돼 있어 노사간의 정치·경제적 이해에만 국한할 수 없다는 게 유 교수의 생각이다.

유 교수는 "인간의 연기성에 대한 자각을 기초로 한 깨달음의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극의 논리가 아니라 생물권이나 생명권, 공공성과 공익성, 전체 사회적 책임 등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상생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며 "깨달음의 노사관이야말로 노사 갈등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사상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노사 갈등의 해법은 이해 당사자 스스로가 연기적 세계관을 자각하는 길밖에 없는데, 자칫 모든 인간사를 마음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사회 개념이 성숙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 놓는 결과를 낳는다는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공예(3)

지붕끝에 핀 화려한 꽃

불국사 보상화문 수막새 섬세함 극치
결가부좌 튼 보살표현 화려하고 치밀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간직한 신라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적지 않게 창출되었다. 부드러운 곡선 속에 강렬한 직선을 내보인 신라금관, 건축과 조각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아름다운 자태에 웅혼한 소리가 조화로운 성덕대왕신종, 준수한 비례와 다양한 조형세계를 펼쳐 보인 통일신라 석탑.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라면 나는 주저 없이 신라기와를 꼽는다. 2000년 8월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기념하여 기획한 신라와전 전은 신라기와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유산임을 만방에 알리는 자리였다.

작은 한반도가 그나마 세 나라로 쪼개져 자웅을 겨루었던 삼국시대. 그 시대에는 기와까지도 서로 그 개성을 다투었다. 고구려 기와는 단정하면서 엄격한 조형 가운데 역강한 힘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 기와의 단정한 구획과 북조의 강한 미의식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다. 백제 기와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곡선미가 전체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양식에는 남조의 기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의 기와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초기에는 고구려 및 백제 기와의 형식에 많은 신세를 졌지만 이내 이를 신라 고유의 미감으로 각색하였다. 고구려의 역강함과 백제의 부드러움에 신라의 질박함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통일신라시대에는 다시 당나라 기와의 자극을 받으면서 문양의 종류가 증가하고 표현방식은 매우 화려함과 섬세함에 다다르게 되었다. 불국사 보상화문수막새가 그 섬세함의 극치라 하겠다. 이 수막새에 새겨진 무늬를 보면, 가운데 자방에 점점이 튀어나온 연씨를 제외하고는 주위의 보상화문은 언뜻 무엇을 표현하였는지 분간하기 힘들만큼 흐드러지게 나타내었다. 미세한 떨림마저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치밀한 표현력이 화려함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당나라의 기와도 이만큼 화려하고 섬세한 조형세계를 펼치지 못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유창종 기증 와전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 통일신라를 대표할 만한 수막새가 출품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바로 보살문수막새가 그것이다. 보살상이 새겨진 수막새는 지금까지 조각이 몇 점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완형을 유지한 경우는 없었다. 수막새의 중앙에는 도드라지게 새겨진 보살이 양손을 들고 결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이 보살상의 주위에는 한단 내려앉은 가운데 8엽의 보상화문이 빙 둘러 쳐져 있다. 그리고 높지 않게 솟은 외곽의 테두리에는 꽃무늬가 연이어 새겨져 있다. 탄력적이고 관능적인 보살의 몸매에서는 석굴암으로 대표되는 통일신라 조각의 절정을 감지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은 지붕 끝까지 그토록 섬세하게 장엄하였던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구석구석 세부에까지 정성이 미치는 신라인의 문화적 역량에 놀랄 따름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 보살문수막새(유창종 기증, 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사진 왼쪽)와 보상화문수막새(불국사 출토,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사진 오른쪽)

목어

황금 개구리



이강렬
극작가·본지 논설위원

지난 여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위치한 도피안사 3층 석탑(보물 223호) 속에 금빛 개구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느 TV에 방송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때문에 평소 인적이 드물던 작은 사찰에 매일 관광버스가 들어올 정도로 붐볐던 적이 있다.

얼마 전 필자가 방문했을 때도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온 듯한 신도들이 탑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설렘과 기대가 섞인 그들의 표정에서 기층신앙이 안고 있는 불교 문화와 신화의 아름다움을 보는 듯했다. 몸길이 1㎝ 크기의 아주 작은 몸짓으로 그토록 많은 불심을 확인시켜준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

이곳에 거주하는 장원 스님은 "6년 전 석탑에 연꽃이 피어나는 꿈을 꾼 뒤 찾아가 보니 금빛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신비로움이란 현상과 비현상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인식의 시험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그 너머에 있는 위안을 안겨주면 그것으로 심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고대 이래로 우리는 자연현상에 크게 의존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농경사회를 거쳐 지나오게 됨에 따라 자연에 대한 의지와 공포를 몰아내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화와 종교적 믿음이 탄생했던 것이다.

신라 경문왕 5년(865년)에 만들어진 석탑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져있는 대웅전 안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쪽을 바라보고 있는 16마리의 금빛 개구리에서 계미년 새해의 희망을 염원해 본다.

자비의 쌀 나누기로 따뜻한 새해맞이

부산에 있는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은 1월 중순경 사랑의 쌀 600㎏(20㎏ 포대 30포)을 지역 내 저소득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27일에는 다대 지구 임대 아파트에서 형편이 어려운 100가구를 선정, 쌀 전달식도 할 예정이다. 불교계의 자비 실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가 세상살이의 팍팍함을 더하는 요즈음 쌀 몇 포대가 사람들의 가슴을 덥히고 있다.

장군죽비

포교사단 사무국직원 4명 권고사직

지난해 12월 20일, 조계종 포교사단 사무실이 들썩였다. 하영태 전 사무국장과 최정심 간사 등 4명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사건은 정책기획실을 신설하면서 인사상의 문제로 집행부와 사무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비롯됐다. 잘잘못을 떠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직원들을 권고해직함으로써 나름대로 불교계에 기여해 온 인재들을 잃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불자 세상보기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인간복제, 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

복제인간의 탄생 소식이 전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간복제가 인권 파괴, 인간성 파괴, 인륜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간을 신의 창조라고 믿는 종교인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다. 그들은 생명의 창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생명창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과연 인간복제가 인권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일까? 생명의 창조는 신의 영역이고 인간복제는 인위적인 생명창조일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인간복제가 지닌 문제의 핵심일까?

인간복제나 생명복제는 잘못된 말이다. 인간이나 생명은 복제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다. 생명복제의 과정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체세포도 기존의 생명체에서 얻고, 난세포도 기존의 암컷에서 얻으며, 그 세포를 키우는 것도 암컷의 자궁이다. 단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일어나게 할 뿐이다. 따라서 생명복제는 보다 엄밀히 말하면 생명조작이다.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조작은 생명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위험한 장난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생명이란 개체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된, 시공을 초월하여 '연기(緣起)'하는 '하나'이다. 이러한 불교의 연기론적 생명관은 현대의 생태학적 생명관과 일치한다.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생물이 지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 곧 지구의 표면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구는 살아있다. 생물은 자기 완결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물과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공동체이다. 최대한의 생리학적 범위에서 보면 생명은 지구 표면 그 자체이다"고 주장한다. <화엄경>의 "생명은 온 법계에 충만하다(法身充滿於法界)"는 말과 다르지 않다.

생명은 진화한다. 진화의 과정 가운데 인간은 단성(單性)생식이나 무성(無性)생식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인간복제, 즉 인간이 체세포로 생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을 입증한다. 그런데 인간이 단성생식을 버리고 양성생식으로 진화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동물복제의 경우, 50% 이상이 사산(死産)하고, 출산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기형이 되며, 기형이 아닌 경우에도 수명이 절반 이하가 된다고 한다. 인간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모를 통한 양성생식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식법이기 때문에 고등생명은 양성생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체세포에 의한 단성생식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러한 생식법을 실용화하려는 것은 과학의 진보가 아니라 진화적 퇴보일 뿐이다.

우리의 존재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기원은 40억 년 전부터 계승되어 온 생명의 출현에 있으며, 나아가 우주의 기원과 함께 한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생명의 진화과정을 거쳐 오늘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40억 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의 참여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현재의 생명이며 인간이다. 이러한 조화롭고 안정된 생명과 인간을 조작한다는 것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조화가 깨지면 모든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로서의 생명을 무시하고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생명을 조작하는 일은 개체생명을 살생하는 일보다 훨씬 무서운, 전체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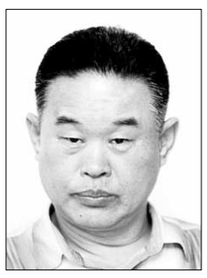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각 종단에서는 종정 신년 법어를 발표한다. 신년 법어뿐 아니라 초파일이나 결제·해제 때도 마찬가지다. 일부 종단에서는 법어를 한글로 풀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한문 법어가 대세를 이룬다. 이에 대해 한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한문 법어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법어의 한글화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신년법어 한글화

찬

우리 시대 언어로 법어 내야

김재영 법사(동방불교대학 교수)



불교계 신문들을 보니, 올해에도 많은 선지식들이 신년 법어를 발표하고 있다. 중생들을 아끼고 염려하는 그분들의 관심에 경의를 느끼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고귀한 말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쾌하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초파일·결제, 해제·신년·성도절, 일년에 몇 차례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체험해 오고 있다. 선지식들의 법어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법어란 무엇인가? 붓다를 대신하여, 붓다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자기류의 감상을 토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법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법어가 붓다-다르마라는 보편성 위에 확고히 입각해야 한다는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붓다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을 담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붓다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불교는 이미 불교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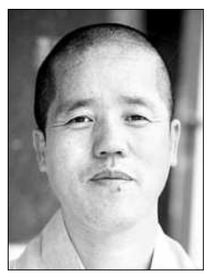
보다 중요한 것은, 법어는 우리 시대 보통사람들의 언어로,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체험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문투의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 민중들의 고통과 문제를 통찰하고 그들의 소박한 염원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체적 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널리 베풀고 계를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명료하고 평이하면 왜 안 될까? 수백년 전 중국 조사들의 선(禪)거래식으로 모호하게 포장된 것이라면, 대체 그런 법어를 누구더러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

한문투 문장 해석한다고 문제 해결 안돼

반

큰스님 메시지 한문이 더 효과적

원철 스님(조계종 종정 예경실장)



큰스님들이 내리는 신년 법어나 초파일 법어, 결제, 해제 법어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글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법어가 한문 형식을 취해온 것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옛 선사들을 보더라도 큰스님들이 당신께서 깨친 경지를 단박에 전해주는 데는 한문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점은 누가 법어를 내리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법어를 내리시는 큰스님들은 어릴 때부터 한문으로 교육받아온, 한글보다 한자에 더 익숙한 한문세대이다. 당연히 당신께서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할 경우 한글보다 한문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요즘은 법어를 내리실 때도 한문으로만 하는 경우는 없다. 국한문 혼용체를 쓰거나 한문으로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한글로도 풀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대 바뀌면 해결…인위적 변화 곤란

물론 일반불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대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한문세대인 지금의 큰스님들에게 한글 법어를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글로 교육받은 지금의 젊은 스님들이 종단의 어른으로 성장해 법어를 내리는 위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부산에 첫 적십자 불교봉사회

이달 중순부터 현장 활동·불자 동참 권유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회원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관 등에 보낼 김장을 담그고 있다.

정회원 14, 후원회원 40여명으로 구성
무료급식·헌혈캠페인·보시장려 사업

1월 중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부산불교봉사회(가칭)가 결성된다. 적십자 내 불교봉사회로는 전국 최초다.

종교, 이념, 계급을 초월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 현장에 불자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불교봉사회는 14명의 정회원과 40여명의 후원 회원으로 구성되며, 무료급식, 소년소녀가장돕기, 수재민 돕기, 헌혈 캠페인, 영아원 유아 목욕봉사, 새생명 후원금 보시 장려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추자 회장과 윤수분 부회장, 정숙자 총무 등 회원들은 98년부터 불교조직이 없어 원불교 소속의 온천교당에서 활동해 왔다. 박 회장은 경전 공부 모임이나 사찰에서 만난 도반들을 하나 둘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적십자사 2002년 연말결산 행사에서 온천 교당이 최우수 봉사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데 앞장을 섰다.

자체적인 힘이 모아짐에 따라 박 회장 등은 8일 부봉회(전체 회장단 회의)에서 독자활동을 선언하고 1월 중순부터는 적십자사 불교봉사회로 활동하기로 했다. 단위 봉사회로 출발하는 적십자사 불교봉사회는 지역별로 불자들의 자원봉사 참여와 후원을 꾸준히 이끌어낸다면 5개의 단위 봉사회가 합쳐 구성되는 지구 협의회 조직도 갖출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이 갖춰지면 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박 회장은 "봉사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불교봉사회가 생기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적십자의 봉사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발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불우한 이웃에 회향하는 일에 많은 불자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명사랑 방생운동 전개
이웃돕기·헌혈 등 형태로
영남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이 인간방생과 장기기증운동 등을 통해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적극 실천하는 생명사랑운동을 실시키로 했다.

영남불교대학은 최근 지금까지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으로 대표되던 불교의 방생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장기기증, 헌혈 등의 형태로 보다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층 승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영남불교대학은 2일 예천 연꽃마을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돕는 인간방생을, 10일에는 법장스님 초청 법문을 듣고 장기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장기기증 방생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박원구기자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12월 28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봉사하는 불국사 만들겠다"
자원봉사단(376명) 3월 창단 본격 활동

"항상 무주상 봉사를 실행하여 사회의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꾸며, 세계 곳곳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세계 일가를 실현하겠나이다."

불국사 자원봉사단(단장 종상) 자원봉사자들은 12월 28일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경주 불국사를 봉사하는 사찰로 만들겠다는 서원을 새롭게 다졌다.

경주 현대호텔 컨밴션홀에서 열린 불국사 자원봉사단 및 신행단체 송년의 밤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 백상승 경주 시장,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원을 비롯 불국사 자원봉사단과 신행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소년소녀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불국사 자원봉사단 단장 종상스님은 "보살정신을 구체화, 체계화하는 봉사단 발족으로 대승불교 사상을 실천함으로써 불국정토 구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3월경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될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불국사, 기림사, 분황사, 불영사, 문수사 등 말사 대중스님과 산하 신행단체 회원 등 총 376명으로 구성됐다.

천미희기자

동화사 대불조성 후속사업 지원 최선
불교문화재 유지관리에 130억 투입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불교계지원 밝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불교계 지원사업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12월 30일 가진 대구불교방송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민족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재 관리와 사찰 증개축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시장은 특히 "파계사 설법전 개축을 위한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동화사 대불조성 이후 여러 후속사업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도 2일 "불교문화재는 경북지역 전체 문화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금년 130억원을 들여 문화재 유지관리에 나서는 한편 문화재의 도난방지와 화재예방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원구기자

경주문화재 발굴조사단 설립 불투명
인건비·전문인력 확보 어려워 제자리 걸음

경주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의 설립문제가 인건비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설립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최근 신속한 문화재 발굴을 위해 발굴조사위원 10인으로 구성된 발굴조사단을 설립키로 3년 전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경주시의 구조조정 후 인력증원이 안되면서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현재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의 경우 지역의 각 대학 박물관과 국립 경주박물관 지역 문화재연구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물량증가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현재 진행 중인 발굴조사 이외에도 매년 긴급 발굴이 쏟아져 문화재 발굴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더욱이 1~5년 이내 고속철도 경주노선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부대시설 공사가 폭주할 것으로 보여 경주지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인력의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구기자

범어사 e메일 서비스
부처님 말씀·금정산 소식

범어사(주지 성오)는 12월 중순 메일링 서비스를 실험가동한 것을 시작으로 1월부터 범어사와 금정산 소식, 부처님 말씀, 법문, 매월 업데이트되는 범어사회보 내용 등을 e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찰 대본산으로 부산의 유일한 교구본사인 범어사 소식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은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sa.org)에 접속, 메일링 서비스에 가입하면 행사 소식, 금정산 고속철 관통 반대 운동 소식, 부처님 말씀 등 최근의 범어사 소식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 관리자인 이금자씨는 "불자들에게 찾아가는 범어사가 되기 위한 조그마한 노력"이라며 "앞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불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천미희기자

후원자 · 자원봉사자의 밤
청소년 7명에 장학금도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은 지난해 12월 26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후원자 ·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해동안 용호복지관에서 이 · 미용 봉사, 무료 법률상담, 밑반찬 서비스 등 복지와 재가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2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참석했다.

관장 혜총스님은 금강봉사회, 예문여고 봉사회, 박정식 후원자 등 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근로장학생과 진학을 앞둔 청소년 7명에 대해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 회향
신년축하 산사음악회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2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현산스님(전계대화상)의 회향법문으로 이어진 이날 회향법회에는 1만5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2002년 12월 4일부터 30일간 펼쳐진 화엄산림을 회향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화엄산림 회향을 기념하고 신년을 축하하는 '작은 산사음악회'를 열어 백성스님의 사찰학춤, 심진스님, 소프라노 배성신, 가수 서주경, 최석준 등을 초청, 노래와 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통도사 '영축산 환경위원회'는 화엄산림 기간동안 조산유원지 개발로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통도사 인근 산을 보호하고 자연 파괴를 막는데 불자들의 뜻을 결집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천미희기자

대구불교회관 3월 정식 개관
1월 중 이전등기 완료·2월말까지 수리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스님)는 2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대구 신천동에 건립하던 대구불교회관 부지 및 골조를 매각하고 대명동의 태왕본사 건물을 매입해 지난해 12월 6일 대구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원주지연합회는 1월중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내부수리를 거친 뒤 3월 정식 개원식을 가지며 건물 1,2,3층은 세를 놓되 2층과 3층은 불교단체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원주지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가진 임시총회에서 대구불교회관의 운영주체인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의 정관을 조계종 종회에 입법 예고된 법인관리법에 준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박원구기자

1300년 역사의 양양 낙산사(주지 설웅)가 대중들이 수행과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찰로 거듭난다.

낙산사는 40실 규모의 낙산유스호스텔을 3월 1일 인수해 5월경 불자들의 신행공간 상락원으로 개원하는 한편 30만평 경내의 모든 빈터를 꽃밭으로 꾸미고, 자전거 일주도로도 개설할 계획이다.

경내 빈터에 꽃밭·자전거 일주로 개설

40실 규모 콘도형 펜숀 건립도 추진



◇낙산사가 3월 인수하여 불자 수행 및 요양기관으로 활용할 낙산유스호스텔 전경.

낙산사 수행·휴양 사찰 겸한다

낙산 유스호스텔 인수… '상락원' 5월 개원

이와는 별도로 불자가족과 일반인을 위한 40실 규모의 콘도형 펜숀(편의시설을 갖추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운영되는 숙박시설)도 건립키로 했다.

상락원은 불자들이 15일~30일 장기간 사찰에 머물며 수행하고 요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낙산사는 불자들을 위해 신흥사 건봉사 등 3사 순례 및 고향관광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설악해수욕장 부근에 건립하는 펜숀은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불자와 일반인 가족을 위한 휴양공간으로 준비하는 리조트형 사찰모델. 펜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4,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1박2일 사찰체험 프로그램인 '산사의 하루'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들이 산사에서 새벽 예불부터 참선 공양(식사) 울력(경내 청소) 기도 등 스님들과 똑같이 하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PC방 등 부대시설도 갖출예정이다.

이외에도 낙산사는 홍련암에 요사채를 신축하여 기도객들이 편안히 쉴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폐교를 인수하여 현재 운영중인 노인요양원에 치매노인요양원과 불교장례식장, 납골당까지 갖출 방침이다.

낙산사 주지 설웅스님은 "가족들과 함께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절에 와서 하루 묵기가 쉽지 않다"며 "사찰에 리조트 개념을 도입한 낙산사의 변모는 불교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양=김원우기자



◇양주 대원정사 신도들이 12월31일 약 1km거리를 1보1배 정진하고 있다.

대원정사, 새해맞이 1보1배 정진으로

"하심하며 새해를 설계하자."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대명산 정상에 위치한 대원정사(주지 해련 스님) 신도들은 계미년 새해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맞았다. 지난 해 12월 31일 밤 11시, 산아래 마을 입구에 모인 30여 명의 신도들은 법당까지 약 1km 거리를 1보1배 정진을 하며 올랐다. 이어 법당에서 새벽 5시까지는 철야기도.

3년 전 처음 1보1배를 신도들에게 제안했던 주지 해련 스님은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한 번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중생을 위하는 보다 큰 원력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10일은 '부처님 되신날'

전국 사찰서 철야용맹정진 기념법회

10일은 음력 12월 8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 되신 날(성도절)'. 이날은 불교의 4대명절 중의 하나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철야 용맹정진과 기념법회 등으로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부산 여여선원은 3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전10시에 기도하며 6일부터 9일까지는 매일 저녁 8시에 3천배 기도법회를 갖는다. 통도사 부산포교원도 4일부터 9일까지 법회를 열어 매일 기도 및 참선 자비도량참법을 봉행하고 9일 오후 10시부터 철야 기도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서울 조계사와 강남 봉은사, 도선사, 정토회도 성도재일 전날부터 철야 용맹정진 법회를 연다.

대구 동화사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10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도절 연합대법회를 봉행한다. 대전광역시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청림회도 10일 오후 6시 대전시민회관에서 '성도절 대법회'를 봉행한다. 청주청원영산회도 10일 오후 2시 청주시민회관에서 '성도절 대법회'를 봉행한다. 김재경 · 김주일 기자

우곡선원 심성개발 교육원 부산교육청 연수기관 선정

우곡선원(원장 장명화) 심성개발교육원이 최근 부산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곡선원((www.wookook.org)은 이번 교육기관 선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곡선원은 우선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교육원에서 공.사립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교원(교사, 교감, 교장) 및 교육전문직 40명을 대상으로 특수분야(심성개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 이번 교원 연수는 발우공양, 선기공 수련, 명상호흡, 의식작용의 허구성과 현대심리학, 심성 개발, 동백섬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051)740-6288~9 김재경 기자

영암 도갑사에 도선국사 연구소

도선국사연구소가 전남 영암 도갑사(주지 범각)에 문을 열었다.

도선국사연구소는 첫 사업으로 도선국사 관련 문헌 자료와 전남북지역의 설화 등을 정리한 <도선국사 문헌자료집 1>을 최근 발간한 데 이어 출생과 수학기 문제, 고려 왕실과의 관계,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려지게 된 이유 등 그의 행적과 사상을 밝히기 위한 학술대회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40년을 광명사와 동고동락

"걸아다니는 寺蹟記" 김보현행 신도회장

"모르는 것 빼곤 다 안다고 할 수 있죠."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무악재 고개에 자리 잡은 광명사(주지 자원 스님) 신도들은 신도회장인 김보현행 보살(75)을 '걸어 다니는 사적기(寺蹟記)'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광명사의 첫걸음부터 현재까지, 온갖 질곡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이다.

보현행 보살이 광명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40여 년 전, 남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들 · 딸 남매를 두고 살던 보현행 보살이 사고로 아들을 잃고 찾아온 곳이 바로 광명사였다. 당시는 현재 주지인 자원 스님이 은사이신 경상 스님을 모시고 남산에 포교당을 만들려고 할 때였다.

시름에 잠겨 지내던 보현행 보살은 "금생에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은 다 지어놓은 업연이 전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경상스님의 법문을 듣고 "일생을 부처님을 위해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산에 절을 세우려는 서원은 도시계획에 밀려 3개월 만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1970년 지금 자리에서 토굴로 시작한 지 3년 만에 조그마한 법당을 짓고 남산 시절부터 봉안했던 부처님을 모실 수 있었다.

하지만 1988년 부처님오신날 법회를 보던 중 법당에 불이 났다. 신도들은 물론 주지 스님까지 화상이 심해 수술을 받을 정도였다.

주지 자원 스님은 "당시만 해도 절을 복구할 생각도 못 할 때였다. 그런데 보현행 보살을 비롯한 신도들은 떠나지 않고 절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자기 일처럼 나섰다. 오늘의 광명사는 보현행 보살 같은 불자들이 일군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10여 년 넘게 신도회장을 맡아오고 있는 김보현행 보살은 여든 가까운 요즘도 양로원이나 고아원, 군 법당 등 안 가는 곳이 없다. 절에 법회라도 있는 날이면 하다못해 청소나 설거지 같은 허드렛일이라도 빠지지 않고 거든다.

요즘 광명사는 불사가 한창이다. 새로 5존불을 모시고 대각3천불 조성불사도 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웅변으로 전하기 위한 설법대학이 개원 막바지이고, 양로원 건립 계획도 품고 있다.

김보현행 보살은 "설법대학이 개원하면 첫 번째 학생이 되겠다"는 서원을 밝혔다.

권형진 기자

화재로 절 소실 이후 "다시짓자" 헌신

"설법대학 개교하면 첫번째 학생 될 것"



◇첫 출발부터 40여 년을 함께 해 온 광명사에 김보현행 보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사진은 공양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추천의 말

자원스님 광명사 주지

절 어려울때 회장맡아 봉사

광명사는 그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도수가 1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절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돌봐온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40여 년 동안 광명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김보현행 보살은 절이 가장 어려울 때 신도회장을 맡아 10년 넘게 신도회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보현행 보살 자신도 결코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공양 준비부터 봉사 활동까지 앞장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명사가 여러 큰 서원을 세우고 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보현행 보살 같은 신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승랑대종사의 대승종풍 법맥 계승

"삼론종의 근본 中道 불교 중심사상"

종정 석파 석봉 대종사



三論宗을 가리켜 世上사람들이 戱論이라 하는데, 이는 올바른 理解가 아니다.

三論의 根本은 中道에 있다.

中道라는 말은, 兩極端을 超越하는 것을 말함인데 兩極端의 끝에는 언제나 '나(我)'가 있기 마련인데 이 '나'를 克復하면, 中道和合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나'를 克復하여 '남(他)'을 보라는 것이다.

世上의 모든것은 問題투성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를 中心으로 보는데서 오는 것이요, 相對를 理解하지 못하는데서 基因한 것이기 때문이다. 中論은 언제나 二諦의 立場에서 問題를 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가 世俗諦인데 이것은 問題點을 야기하고, 問題點을 認識하는 것인데 이는 眞理를 알지 못하여 無明속을 헤매는 데서 基因한 것이다.

사람은 왜 八苦를 안고 살아 가는가 하는 問題이다. 八苦의 基本은 나로부터 基因한 것이다. 나를 認識하는 瞬間에 이 世上 모든 것은 '苦'와 '樂'이라는 兩極端이 생기고 이 兩極端으로 葛藤하고 苦悶하는 데서 모든 '苦'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것을 克復하는 것이 第一義諦인 것이다.

第一義諦는 어떻게 나를 克復하는가의 문제이다. '나'라는 我執이 모든 相待를 만들었고, 이 相待로 하여 條件 지어진 모든 것에는 利害得失의 相關關係가 成立됐던 것이다. 이에 克復이 第一義諦인 것이다. 二諦의 克復이 바로 中道요, 破邪顯正 이었던 것이다.

對立 이라는것, 兩極端이라는 것은 모두 相互相待가 있어서 成立하는 것이요, 相待가 없다면 問題 自體가 成立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破邪 하여야만이 顯正은 成立되는 것으로 相對를 破邪하여 顯正하려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我慢이요 獨善인 것이다. 我慢과 獨善은 和合을 낳지 못한다.

고로, 나를 克復 하는 것이 참眞理, '空'이요, '空'의 證得은 和合을 이루는 根本인 것 입니다.

空의 證得은 般若를 이루고 般若의 實踐이 우리 佛敎人의 司命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如來는 有無를 超越해 있으며 寂滅像이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극복하고 남 위하는 것이 중도 이루는 길"

대한불교 삼론종 종지종풍

●종명:대한불교 삼론종(大韓佛敎 三論宗)
●교조: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종조: 고구려 승랑대종사(僧朗大宗師)
●중흥조: 대산대종사(大汕大宗師)
●창종일: 1989년 6월 15일
●종지: 本宗은 釋迦世尊의 自覺, 覺他, 覺行 等 基本敎理를 奉體하신 僧朗大宗師의 大乘宗風을 宣揚하며 傳法度生함을 宗旨로 한다.

三論宗的宗旨
1.中道和合 佛法宣揚 2.破邪顯正 衆生救濟 3.宗旨宣揚 宗團中興 4.禪敎兩修 六花敎團

三論宗的宗風
1.中道和合 僧信共有 2.集體創作 尊重包容 3.六花敎團 四衆平等 4.傳統現代 相互融和

三論宗的目標
1.人間佛敎를指向한다 2.三論中興을指向한다 3.三論宗의國際化를指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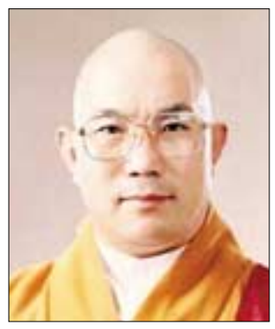
●종통: 本宗은 釋迦世尊 以來 印度의 馬鳴, 龍樹,提婆, 菩薩 로부터 淵源된 大乘敎法의 法統을中國의 鳩摩羅什의 法脈을 이어받은 僧朗 大宗師의 佛法中興, 傳法度生의 大乘宗風을 法統으로 삼아 그法脈을 綿綿히 繼繼承承 한다.
本宗의 所依經典은 三論(中論, 十二門論,百論)을 正典으로 하고 般若經 및 華嚴經을 兼典으로 한다.
其他 經典의 硏究와 念佛知誦은 制限하지 아니한다.

대한불교 삼론종 조직

종정:碩岐 全碩峰大宗師
부종정:大正 李慧空大宗師
초대종정:大汕 李惠鳳大宗師
승정원장:信修 李宗珪
중앙종회의장:德仁 史慧光
사정원장:大安 鄭秋峯
부원장:志道
포교원장:龍潭 尹志雲
부원장:行瑞 孫慧覺
교육원장:慧世 金眞峰
부원장:德賢 志敬
수선원장:正岩 正峯
부원장:性均 台觀
문화원장:淸峯 鎭洙
부원장:德波 五峯
총무원장:覺夢 金慧承
부원장:道鏡
총무부장:眞峰
교무부장:道友
재무부장:志謙
사회부장:道熙
규정부장:虛扶
포교부장:法輪
강원교구원장:性圓 淸浩
충북교구원장:法潭 志海
경남교구원장:性見 仁峯
전북교구원장:梵啓 淸譚

종단 거듭나기 중장기계획 추진

총무원장 각몽 혜승스님



"종단의 출발은 비록 늦었으나 한국불교를 이끌어나가는 명실상부한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 안을 세우고 이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모든 종도들과 불자들의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 근거해 89년 창종한 삼론종의 총무원장 혜승스님(포천 보문정사 주지)은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또 중생에게 가까이 있는 불교, 파사현정의 진리를 세운 불교를 이뤄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1년2개월간 종단 화합과 중생포교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점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체계 확립, 종단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사찰의 봉사·복지사업 확대, 전통의식 간소화와 우리말 번역, 대승불교의 실현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혜승스님은 "종단체계 확립과 전국신도회 활성화, 총무원 청사 건립 등을 통해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포교와 어린이포교에 노력을 기울여 온 혜승스님은 총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부터는 종단의 국제화에 각별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조인 고구려 승랑스님의 활동무대였던 중국 서하사를 방문, 상호 방문과 인적 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우의를 다져나가는 약속을 받아왔다. 대만 복엄정사와의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혜승스님은 종도와 불자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불교에 대한 긍지를 갖고 불법홍포와 종단발전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내 신앙, 내 종단만 최고라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시각과 사고를 지닌 큰 불교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혜승스님은 대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도심포교와 어린이포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삼론종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발전에 힘써오고 있다.

인재양성·복리확대·전통의식 현대화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자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종단순례

대한불교 삼론종



◇2002년 12월 1일 대전 대덕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 대승보살수계대법회에서 석파 종정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천7백여 신도가 보살계를 여법히 수지했다.



◇2000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중국불교 삼론종 서하사와 대한불교삼론종 우호교류행사인 '고구려 승랑 대선사 다례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중국불교 삼론종의 중흥사찰인 「서하사」

삼론종 중론·12문론·백론에 바탕

승랑스님, '존재와 無' 변증법적 이론 정립

삼론종의 근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시기는 372년(소수림왕 2년), 전진왕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려 순도(順道)를 통해 불상과 불경을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구려의 불교는 민간 경로를 통한 격의적 불교와 왕실을 통한 도안적 불교의 두 가지 형태로 발전이 가능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 사회에 토착화되어 민간 사회나 지방 사회의 신앙적인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고 후자는 공식적인 불교가 왕실의 지원 아래 순도에 의해 포교되면서 중앙 왕실이나 지식층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나갔다. 따라서 다른 삼국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진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고구려에서는 승려 학자 승랑을 배출하였는데 그는 섭산의 고구려 승랑 대사'라고 불리었으며 그는 고구려 불교의 주체적인 수용에 앞장서면서 존재와 無의 변증법적인 지향을 밝혔다.

그 후 불교의 주류는 삼론종이라는 학문적인 경향으로 기울었고 그 바탕은 용수보살의 중론에 근거하고있다.

중론을 지은 용수(나가르쥬나)는 A.D 150 -250년경 남인도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브라만의 교학을 배웠으나 불교에 입문한 뒤 소승. 대승 교리에 통달했다고 한다.

삼론종의 근본인 '중론'

삼론종의 근본인 중론은 대승반야공관(大乘반若空觀)이야 말로 근본불교정신인 '연기(緣起)·무아(無我)·중도(中道)'를 가장 옳게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이 공관에 입각한 특수 부정논리 즉 양도론법(兩刀論法)이나 오구문파(五求門破)와 같은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는 논리 이론으로, 불타(佛陀)의 진의를 알지 못한채 교리 개념만을 집착·분별·희론하는 일부 아비달마 논사들의 잘못들을 냉엄 철저히 파척(破斥) 불식하였다.

중론(中論) 27품(品) 450여게는, 반야경들이 역설하는 일체개공관(一切皆空觀)을 바탕으로 당시 불교계에 정형화된 중요한 교리개념 대부분을 27 품목으로 거론하여, 이들을 실체 실유시(實有視)하여 분별(分別) 희론하는 사견(邪見) 오류(誤謬)를 엮애 버리기 위해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는 특수형식의 논리를 구사하며 동시에 중도실상(中도實相)의 정법(正法)세계를 경쾌히 밝혀낸 것이다.

불타관

용수시대에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아미타경> 등, 웅대한 불타를 설하는 대승경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불타관에는 그러한 불타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용수의 불타관은 대승경전에 나타난 불타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관여래품>에서는 "여래는 유무를 초월해 있으며 적멸상이다"라고 하였으며,<대지도론> 권9에는 법성신(法性身)과 부모생신(父母生身)이라는 2종의 불신이 설해져 있다.

또한 <대지도론> 권10에서는 불신을 신통변화신과 부모생신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법성신은 신통변화신으로도 불리는 것이다. <대지도론> 권39에서는 보살에는 2종이 있다고 하면서, 업에 따라 태어나는 보살과 법성신을 얻은 보살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지도론>에 의하면, 불타나 대보살의 본질은 법성신이지만, <중론>의 (관여래품)에 있어서는 여래는 적멸상이며, 그 몸은 유라고 할 수도, 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하고 있다. 제법실상은 미묘적멸하며, 필경청정한 제법실상이 여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여래는 분별이나 희론을 떠난 지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살펴본다면 용수의 불타관은 이신(二身)설(說)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암정사(총본산)



◇부석사(종정스님 주석사찰)

삼론종의 주요 종단계획

1. 종단의 뿌리찾기계획으로 중국의 서하사와의 인적교류를 통한 종풍선양을 이루고자 하며, 대만의 복엄정사와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임

2. 종단은 년 2회의 교육연수를 통한 종도들의 종단에 대한 이해와 애종심을 고취 시키고, 신도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여 삼론종 종도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계획임

3. 종단의 총무원 청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불사를 추진중이다.

이계획은 종도스님뿐만 아니라. 전국 신도회를 활성화 하여 신도들에게 종단행정 및 재정의 문을 개방하여 승속의 구분을 넘어 명실상부한 화합승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임

4. 종단은 2년마다 보살계단을 설치하여 신도에 보살계 참여를 유도하여 신심을 고취하고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심어주고 있다.

대만 복엄정사와 교류·총무원청사건립·2년마다 보살계단 추진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2동 515-44 316호
전화 02)433-9780

부석사(종정스님 주석사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289번지
전화 033)333-7682

우암정사(총본산)
충북 충주시 교현2동 539-21
전화 043)852-8822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이화여대 대학교회 강당에서 〈화엄경〉 입법계품을 강의 하고 있는 김흥호 목사.



◇김 목사는 유 · 불 · 도의 가르침을 좇아가며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처럼 오랜 구도적 삶을 살아왔다.

목사가 40년 불경강의 한 까닭은?

김 흥 호 목사

“부처·예수 가르침은 하나”

‘동양’ 이해 앞서야 ‘서양’ 이해

일요일 아침, 이화여대 대학교회 지하 강당에는 젊은 대학생에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까지 백여 명의 남녀가 모여 강의를 듣는다. 그들의 손에 들린 교재는 〈화엄경〉 강사는 이화여대 전 교목(校牧)인 김흥호(84세) 교수다. 벌써 40여 년 전부터 신약성서와 함께 〈법화경〉 〈원각경〉 〈벽암록〉 등의 불경과 조사어록을 비롯하여 〈주역〉 〈논어〉 〈전등록〉 〈노자〉 등의 동양고전을 강의해오고 있다.

목사가 동양고전을 강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양인들은 예수의 말과 행적을 기록한 신약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이전의 유대민족의 기록인 구약성서를 읽는다. 동양인인 우리가 예수의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동양고전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신학대학에서 ‘불교의 구원관’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다.

“기독교가 동양에 들어왔으면, 동양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거울에 기독교를 비춰보고, 거꾸로 기독교의 거울에 유, 불, 도교를 비춰보면 서로의 모습이 보다 선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라야 진정한 동양의 기독교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기독교는 서양의 화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동양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그 화분을 깨트려, 기독교의 묘목을 비바람 치는 거친 동양의 들판에 심고자 한다.

“〈화엄경〉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니까. 여기 이 보살은 지옥에 가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고, 스스로 인질이 되어 중생들을 구속해내려는 서원을 해요. 그런데 구속(救贖)이란 말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화엄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시킨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평양이 고향인 김흥호 교수는 1919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3 · 1운동에 참여한 부친은 3년간 옥고를 치른 뒤 풀려나왔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그가 10살 때 돌아가셨다. 그는 14살에 평양고보에 입학했는데, 마을 교회에서는 인텔리라 하여 그때부터 담임목사였던 부친 대신 설교를 시켰다. 어린 나이에 대중에게 설교해야 하는 진땀나는 경험을 했던 그는 내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신은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 채, 남들보고는 믿으라고 설교했기 때문이다.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이것은 그대로 그의 화두가 되었다.

그는 평양의 큰 교회에 나가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안창호나 조만식 선생의 연설회에도 참가했다. 당시 식민지하에서 의기소침한 한국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교회에선 부흥회가 크게 유행하였다. 그는 부흥회마다 열성적으로 참여했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와세다 법대로 진학한 그는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가 주창한 무교회주의에 심취한다. 하지만 그래도 화두는 풀리지 않았다.

정인보·이광수·유영모 등 찾아 사숙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는 선생을 가지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그는 광복 후 귀국해서도 계속 선지식을 찾았다. 6 · 25 전쟁 직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그는 서울에서 정인보 선생을 만나 양명학을 배웠다. 이어 이광수를 찾아갔더니, 춘원은 그에게 오산학교 동료교사로 동양학의 대가인 다석(多夕) 유영모를 소개했다. 함석헌의 스승으로 알려진 다석은 김흥호에게 기독교를 동양적으로 이해하는 눈을 뜨게 해준다. 다석은 하루 한끼만 먹고, 한 번 앉으면 긴 삼매에 들고, 평생 걸어만 다니고, 죽을 때까지 농사일을 놓지 않았던 숨은 참사람(眞人)이었다. 김흥호는 훗날 다석의 도를 자신의 것으로 체득한 후 이렇게 요약하였다. (한글 풀이는 필자)

一坐天地通
새벽이면 일어나 앉아 삼매에 들어 공간을 초월하고
一仁有無通
낮에는 농사짓고 제자 가르치며 존재를 초월하며
一食晝夜通
하루 한 끼 저녁식사로 시간을 초월하고
一言生死通
깊은 잠 속에서 신의 말씀을 듣고 생사를 초월한다.

12년 걸려 불교·기독교 사상 정립

작년부터 시작한 화엄경 강의는 이제 입법계품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재동자가 걸어간 구도의 50단계(화엄경 五十地)를 나의 경험에 비춰 보겠습니다. 먼저 십신(十信)은 귀가 뚫리는 단계입니다. 구도의 첫걸음은 좋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나의 경우는 유영모 선생의 강의에 나간 지 6년 만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주(十住)는 눈이 떠지는 단계로, 동서의 고전을 읽고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의 경전을 읽고 정리하는데, 각 3년씩 총 12년 걸리더군요. 다음 십행(十行)과 십회향(十廻向)은 코가 뚫리는 단계로, 지행일치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 유영모 선생께 배운 대로 일식 일좌를 실천했지요. 12년 잡고 시작했지만, 일단 몸에 익으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십지(十地)는 입이 열리는 단계로, 그 동안 공부한 것을 간추려 진리를 주위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색〉이란 월간 개인잡지를 12년간 144호로 발간했습니다. 그 뒤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고전 강의를 계속해왔습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 혹은 예수님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인생은 누구나 이런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무척이나 병약했던 김 교수는 깨달음을 얻고 일식(一食)을 실천한 이후로는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 수십 년 간 매주 일요일 아침 ‘제소리’를 전하는 김 교수의 모습은 그가 좋아하는 여정(天童如淨) 선사의 시 ‘풍경(風磬)’의 이미지를 빼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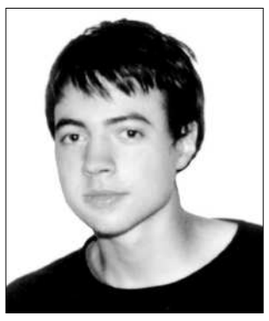
혼신을 다해 달랑 허공에 매달려 (渾身似球掛虛空)
오로지 중생을 위해 진리를 설하네 (一等爲他談般若)
사방에서 바람 불어올 때마다 (東風西風南北風)
땡그렁 땡그렁 땡땡그렁 (滴了滴了滴滴了)

글=김홍근 (문학평론가)
사진= 임민수 기자

릴레이 수행일기

휴 리처드(上)

캠브리지大 고전전공 2년



지난해 여름 고등학교 친구인 한국인 항진이를 통해 금강경독송회를 알게 되어, 한국 포항에 있는 금강정사에서 1달간 다른 영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금강정사에 가기 전 마음을 닦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처음 도량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잘 적응하고 싶고, 또 거기서 공부하시는 모든 수자(修者)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 말에 동조하며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도량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받은 뒤로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미륵존여래불' 정진하면서 부처님께 그 마음을 많이 바쳤습니다. 바치다보니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고교친구와 금강경 독송회 참여

'6가지 마음 살림살이'로 자신감 생겨

제가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저도 제가 소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다지 문제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이런 마음 때문에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부모님들도 걱정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고, 저 또한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자주 느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마음도 조금 닦았습니다. 지금은 바치기 전보다 더 안정되고 미래에 대해 덜 불안합니다.

또한 법담을 나누면서 제가 의심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연습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이 되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난 다음에서야 또 의심했구나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었고 조금씩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발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마음을 닦고 싶어하는지, 마음 닦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조차도 의심했으니까요.

제가 닦아야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은 좌절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참 지나갈 때까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량에 재미난 일이 없어서 의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법문 번역이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풀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바치고 나니 제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고 번역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습하려고 했던 또 한 가지는 마음 살림살이입니다. 금강경독송회에서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미륵존여래불' 정진을 하는 것 외에 6가지 '마음 살림살이'를 가르치는데, "남의 허물은 내 허물처럼 덮어주고, 내 허물은 남의 허물처럼 파뒤집는 마음을 연습하라.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게 곧 내 허물인 줄 알라.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연습하라. 누가 뭐라든 '예'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라. 누구를 만나든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라. 올라오는 마음을 미륵존여래불 전에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라." (계속)

좌선·법문듣기 반복으로 '나' 찾기



◇보림회는 30여년간 매주 주말 철야정진과 여름 · 겨울 1주일 용맹정진을 쉬지않고 있다.

'새말귀 화두' 거사풍 생활선 계승

'매주 철야정진' 30년 가풍 확산

12월 28일 저녁 8시경, 서울 정릉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보림선원은 환하게 불빛을 밝힌 가운데 수행 열기를 뿜고 있었다.

대웅전에서 삼배를 올린 후 선방에 들어서니,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서 37세의 김정애 회원부터 70세의 구인회 회원에 이르기까지 20여 보림회(회장 이수열) 회원들이 故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법문을 테이프로 들으며 용맹정진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한국 현대 거사불교의 큰 봉우리이인 스승 백봉 거사의 이날 법문은 "화두를 들지 못하는 평상시에 청정심을 갖고 살아가야 늘 깨어있을 수 있다"는 설법이 요지.

1시간 가량의 설법 테이프가 다 돌아가자 입정(入定)이 시작된다. 입승 소임을 보는 전청봉(51) 총무의 죽비 소리에 맞춰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철야정진은 회원들의 치열한 구도심 탓인지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다. 백봉 거사의 도반이었던 보림선원 회주 묵산 스님의 지도하에 새벽 예불이 열리는 4시까지 50분 좌선에 10분 휴식, 그리고 50분 설법 녹음 듣기 순으로 계속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시간 좌선이 끝나면 1시간 법문 테이프를 듣는 것. 처음엔 의아했지만 백봉 거사의 설법 내용을 자세히 음미하니, 화두를 드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발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번쩍 나게 한다.

뒤에 알게 되었지만, 좌선과 법문 듣기를 되풀이하는 정진 방식은 생전의 백봉 거사가 지도한 수행방편이었다. 이른바 거사풍(居士風) 생활선을 주창한 백봉 거사는 '화두는 의심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되돌아 이미 일으킨 그 의심처를 풀어헤치기 위한 말귀'라는 뜻에서 '새말귀'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재가선풍을 일으켰다. 새말귀란 백봉 거사에 따르면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것이며, 바로 가정 생활을 영위하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는 소식"이다.

"학인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아침에는 '모습(참자기; 無相의 法身)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나'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나투자'라는 여김으로 삼매에 잠길 줄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오후(悟後)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림회가 제시하는 거사풍 수행법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 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홀연히 독존하는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모습 없는 법신(無相法身)'이 '모습 있는 색신(有相色身)'을 굴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님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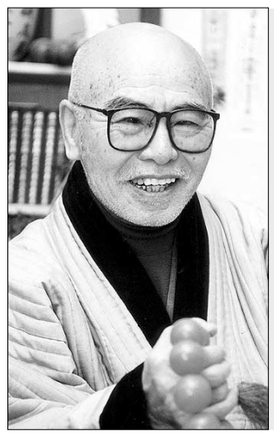
30년간 매주 철야정진을 해 온 전청봉 총무는 보림회의 선풍을 이렇게 요약한다. "설법으로 화두 드는 바탕을 이루고 주말 및 1주일 철야정진으로 발심의 계기를 삼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말귀' 화두입니다."

1965년 창립된 보림회(www.borim.co.kr)가 이렇게 주말 철야정진과 여름, 겨울 휴가에 맞춰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해온 지 어언 30여년. 120명의 보림회 회원들은 산청(본원) 지리산 보림선원과 부산 화엄사, 정릉 보림선원에서 재가선의 흐름을 이끌어 오고 있다. (02)914-618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보림회의 '새말귀'



보림회 지도 묵산스님

형상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이 부처' 알아야

"일할 때는 일을 충실히 하고, 운전할 때는 앞차 뒤차 잘 살펴야지요. 거기서 화두든다고 하면 안됩니다. 일과를 정해서 편안한 장소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보고 듣는가', 이렇게 궁리를 하다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 때가 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화두가 됩니다."

보림회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보림선원 회주 묵산 스님. 거사풍 수행은 가정을 가꾸는 시간과 공간에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야 한다며 생활선의 요령을 일러준다. 참선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는 스님은 "불교를 믿어도 내가 믿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뿌리가 단단해야 공부가 되고 신심이 나고 효과가 난다"며 자신이 부처요 허공임을 보라고 당부한다.

"자기 살림살이는 내팽개쳐 놓고 남의 살림살이에 다 속아넘어가요. 돌부처에게 절하고, 적멸보궁 찾아다니는 식으로 하면 백만년을 해도 끝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부처를 놓고 형상에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수행 캘린더

■53선지식 초청법문=대구 영남불교대학은 '53선지식 특별법문'을 주제로 1월 14일 오전 11시30분 법장 스님(수덕사 주지), 오후 8시 박완일(전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법사, 21일 오전 11시30분 암도(전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 초청 법회를 연다. (053)474-8228

■보리수선원 초보자 수련=서울 보리수선원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1월 초보자 수행을 연다. (02)517-2841

■위빠사나 집중수련=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는 2월 16~22일(6박7일) 천안 호두마을에서 반야로까 성오 스님의 지도로 위빠싸나 집중수련회를 연다. 성오 스님은 서울 홍원사와 부산 백련사, 미국 뉴저지 원적사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051)632-8488

■요가 명상=남원 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1월 17일 오후 6시 귀농전문학교에서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란 주제로 요가 명상 강좌를 연다. 선착순 20명, 참가비 15만원. (017)657-0582

■소리산 주말수련회=양평 소리산 법왕정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까지 주말수련회를 연다. 한글 금강경 독경, 축원기도, 석가모니불 염불, 도인체조 건강법, 108배 예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011)222-3329

■산띠와남 겨울 요가캠프=산띠와남 속리산 요가수련원(www.jshanti.com)은 1월 13~17일, 20~24일, 2월 3~7일, 10~14일, 17~21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 요가캠프를 연다. (043)544-4406

■해인수련동문회 수련=해인사 수련회동문회는 1월 25~26일 해인사 보광전에서 '해인사의 향기 수련회'를 연다. 연락처는 air-3000@hanmail.net.

■심념처 수행=천안 호두마을은 1월 17~19일 묘원 법사의 지도로 사념처 수행의 하나인 심념처(心念處) 수행을 한다. 2박3일동안 마음의 무엇인지 알기, 마음 보기, 마음의 작용(心所) 보기, 아는 마음을 나는 것 보기 등의 수련을 한다. (041)567-2841

■금강경 결제=남원 실상사는 2월8일까지 '동안거 금강경 결제'를 진행중이다. 주제는 1월11일 '무아를 잃어버린 한국불교, 힌두교의 아류인가', 18일 '마음은 흐름인가, 불생불멸인가', 25일 '산냐를 척파하면 허무주의가 되는가', 2월8일 '어떻게 산냐를 극복할 것인가' 등. (063)636-3031

"흰 연꽃 피우는 법화행자 되자"



◇광주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1백여 독거노인에게 보내질 밑반찬을 만들고 있다.

바라밀현장

자비신행회

"우리 할머니께 못 다한 효도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밤새 내린 눈이 시내를 온통 하얗게 덮어버린 12월 26일 광주. 동구 내남동 구 지원초등학교를 개조해 들어선 자비신행회의 주방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될 도시락 밑반찬을 만드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다.

이날은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15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진행되던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의 '법화경 원전 강독'을 수료한 날이기도 했다. 자비신행회 회주 현장 스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등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 불자들을 격려했다.

"연꽃은 낮은 곳에 피어 더러움을 양분삼아 자라납니다. 불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진리로 이끌도록 하세요." 현장 스님의 당부의 말이 있자, 회원들은 '사회 속에서 하얀 연꽃을 피우는' 청정한 법화행자로 살겠다며 다시한번 다짐해 본다.

수행과 보살행의 공동체 '자비신행회'가 탄생한 것은 지난 98년.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의 지도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던 서명희, 김덕희, 김형자 등 여덟 명의 보살이 자비의 실천을 통해 깨달음을 얻겠다는 발원을 하면서부터다.

호스피스활동·독거노인에 도시락 제공

장학사업위해 '다라니 10만독' 천일 결사

98년 8월 광주 전일빌딩에서 '티베트 불교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며 6개월 동안 명상교육도 실시하면서 수많은 불자들이 자비신행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때부터 활동도 본격화됐다.

그런데 이 무렵 외환위기가 온 나라를 강타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신행회 회원들이 임종을 앞둔 불우한 중환자를 돕겠다고 발원,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다. "34살의 천주교 신자라고 밝힌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다'고 전화를 해 왔어요. 회원들의 지극한 간호를 받은 그 분은 '죽기 전에 꼭 대원사에 가보고 싶다'고 고마워하며 편안히 눈을 감더라구요"라며 신행회 참선단장 무일화 보살은 말한다.

99년 7월부터는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은 우산복지관, 광주복지관, 오치복지관 등과 함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그 영역이 훨씬 넓어졌다.

또한 2001년 5월부터는 불우청소년 장학사업을 위한 '다라니경 10만독' 1천일 결사에 들어갔다. 금요일마다 다라니경 독경 정진 수행을 하는 회원들은 2002년 3월부터 청소년 범죄자 수용시설인 광주 분류심사원을 방문, 수용된 청소년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는 일도 하고 있다. 무일화 보살은 "마음이 거칠어진 애들을 만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한달에 1번 하는 일이지만 이 날을 위해 늘 긴장하고 기도하죠"라고 말한다.

법화경 공부를 회향한 자비신행회는 새해 1월부터는 현장 스님의 지도로 아미타경을 공부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만인을 서방정토로 이끌고 싶다는 원을 밝히며 환히 웃는다. (011)618-6983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자비신행회 김명실 총무

경전 공부하며 보살행

4월 호스피스 교육 계획

"경전 공부하면서 보살행 펼치는 신행을 하겠습니다."

98년 자비신행회의 발족과 함께 총무을 맡아 자비신행회 사무를 전담해 온 김명실(45 · 사진) 총무. 그녀는 지체장애,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유아원과 유치원을 여는 것과 사단법인 등록이 올해 자비신행회의 주요사업이라면서 오는 4월 6기 호스피스 교육, 가을 불교상담교육, 불교입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살행에는 불교 공부가 기초인 것 같다"는 김 총무는 여유가 되는대로 250여 회원 전체가 불교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참선 실수 등의 시간도 늘릴 예정이다.

心 마음비추기

버릇… 한번쯤 되돌아 보라

어느 때 거사 네 명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부처님은 이들이 먼 길을 오느라 배가 고플 것이라 여기시고 제자 아난존자를 시켜 밥을 먹게 한 후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설법을 듣는 도중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한 명은 계속해서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는가 하면, 또 한명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손으로 흔들어 댔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있었고, 오직 한 명만이 설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설법이 끝나고 이들이 떠나자 제자 아난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째서 이들은 똑같이 설법을 듣겠다고 오랜 시간을 벼르고 찾아와서 저마다 다른 행동을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부처님은 저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과거생에 익힌 버릇이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전생에 관해 말씀하셨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본 사람은 과거생에 별을 관측하던 천문가였기 때문이고, 나뭇가지를 흔들던 사람은 원숭이였을 때의 버릇 때문이고, 땅을 파던 사람은 지렁이로 살던 버릇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일념으로 부처님 설법을 듣던 사람은 역시 과거생에서도 부처님을 따라 설법을 정성껏 들었던 사람으로 그 공덕이 이어져 금생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설법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부처님은 이들의 전생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중생들의 버릇은 참으로 지독하고 끈질긴 것으로서 몇 생이 지나도 그 짓을 되풀이 하게 되어 있고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만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이 일화에서 거사 네 명의 전생이 실제로 천문가나 원숭이 혹은 지렁이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은 중요치 않다. 문제는 중생들은 좋건 나쁘건 저마다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고 그 버릇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한다거나 고치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중생의 모든 행위는 어떤 것이든지 되풀이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성을 내면 계속 성을 내려는 버릇이 따라붙고 원망을 하면 계속해서 원망하려는 버릇이 따라붙는다. 악한 버릇은 들여서도 안 되겠지만 악하지 않은 버릇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그 버릇들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생들의 버릇은 과거생에 익힌 것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현생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불교에서 해탈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와 같은 습성으로부터 벗어난 경지라 할 수 있다. 버릇대로 생각하고 버릇대로 말하고 버릇대로 행동하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습성의 틀을 깨뜨려 본래의 참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수행이다.

寂然

세계의 불교 여성지도자들

텐진 팔모 스님 (上)

(티베트 동규 가찰 링 원장)

네팔등 여성수행자 양성 주력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것을 처음 바라보는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티베트불교의 비구니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인도 북부 라홀지역의 '동규 가찰 링(Dongyu Gatsal Ling)' 사원의 원장인 텐진 팔모(Tenzin Palmo, 60세) 스님.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여성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팔모 스님은 21세기의 여성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쏟고 있다.

1943년 영국에서 태어난 스님은 20세에 카규파의 고승 밀라레빠의 전기를 읽은 후, 인도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막 영국에 도착한 트룽파 린포체를 만나 명상을 배운다. 64년 8대 캄트룰(Khamtrul) 활불(活佛)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미니계를 받은 스님은 서구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76년부터 12년간 히말라야 석굴에서 수행해 득력(得力)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988년 이태리 아사시로 가서 5년간 전법활동을 펼친 팔모 스님은 인도로 돌아와 1999년 드룩파 카규 전통을 잇는 비구니 사원을 창건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네팔, 티베트, 인도지역에서 온 여성들을 지적,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각국에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은 이들에게 불교 철학과 수행, 티베트어, 의식, 영어 등을 공부시켜 불교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1998년 자서전 <눈속의 석굴>, 2002년 <산중 호수에 비친 그림자>를 펴낸 텐진 팔모 스님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석굴에서의 목숨을 건 정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76년 인도 북부의 타시종이란 마을에서 캄트룰 린포체의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홀로 석굴 정진에 들어간 팔모 스님은 눈이 많이 내리는 11월부터 이듬해 오뉴월까지 집중적인 명상을 했다. 그리고 오뉴월에 눈이 녹으면 채소를 가꾸거나 땔나무를 마련하고 생필품을 마련했으며, 때때로 손님들을 만나거나 독경과 불화 그리기로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몇 달 뒤 다시 10월이 오면 스승께 지도를 받기 위해 타시종 마을로 내려가곤 했는데, 이 때도 아침 · 저녁의 명상은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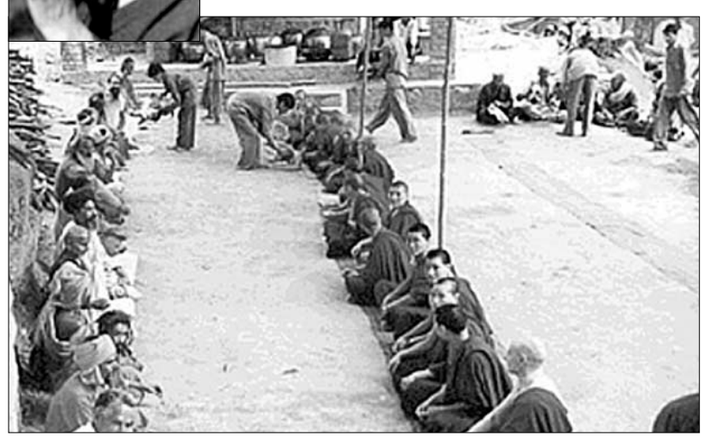
영국출신…12년간 히말라야 석굴서 수행

"깨어있기 위해선 어린이 눈으로 보아야"

팔모 스님은 12년간의 석굴 정진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지루함'이었다고 회상했다. 하루 네 번씩 명상을 끝없이 반복하다 보니,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팔모 스님은 이 때 중요한 것은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저 일정을 지켜나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계속>

김재경 기자





◇인도 북부 라홀지역의 '동규 가찰 링' 사원에서 원장 텐진 팔모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스와미 요기의 아쉬람을 방문한 장면. 위 사진은 텐진 팔모스님.



② 화엄경과 입법계품

화엄경은 처음부터 어느 한 시기에 단일 경전으로서 탄생한 것은 아니다. 60권(34품) 또는 80권(39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엄경은 그 중에서 십지품(十地品)과 입법계품(入法界品) 등 약 10여 개의 품(品)이 화엄경이 탄생하기 전에 독립경전으로서 이미 성립되어 세상에 유포되고 있던 것이었다. 화엄경은 이미 유포되고 있던 이러한 경전을 선택하여 배열하고, 여기에다 여러 품을 추가하여 4세기 중반 경에 서역의 코탄 부근에서 증보 · 편집한 경전이라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경전을 편집한 것은 대승불교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대승사상가들이 깨달음의 세계와 거기에 이르는 길을 대승정신에 입각해서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서 였다고 생각되고 있다.

화엄경에는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상적인 모습을 새로운 불타관으로써 제시하고 보살행을 통해서 보다 실제적으로 부처와 부처의 세계를 구현해 가는 새로운 깨달음의 삶을 체계화하고 있다.

예로부터 화엄경은 부처님에 대해서 설한 것이라 전해져오고 있다. 사실 화엄경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며,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며, 또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등의 내용들이 밝혀져 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도하신 석가모니불께서 우주에 편만한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불로 되어 본원력(本願力)에 근거

법신불의 본원력으로 법륜 굴려
현 세계 그대로가 불법실천 도량

를 두고 시방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법륜을 굴리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깊은 예경심과 찬탄을 바탕으로 하여 보살도가 전개된다. 이것은 대승불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깊은 종교적 감정이라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화엄(華嚴)이라고 하는 말은 '꽃으로 장엄한다' 고 하는 의미이다, 보살행을 아름다운 꽃에 비유하여 보살행을 실천하여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를 아름답게 꽃피워 내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상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을 향상시켜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 덕(德)을 갖추도록 하고 현실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일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화엄경의 교설은 구체적인 현실사회 속에서의 보살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엄경의 줄거리는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 전까지를 제1부로, 그리고 입법계품을 제2부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부에서는 먼저 비로자나불의 출현과 그 세계인 연화장세계를 밝힌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과거의 보살의 수행을 설하는 형식이 신(信) · 십주(十住) · 십행(十行) · 십회향(十廻向) · 십지(十地) 등의 수행 계위로써 제시되어 있다. 제2부인 입법계품은 제1부에 설해진 보살도의 내용을 선재동자(善財童子)라고 하는 구도자가 실제로 실행해 나아가는 것을 설한 것이다.

입법계품 또한 제1부의 내용과 상응하는 점이 있다. 즉 제2부에서도 제1부의 내용과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먼저 설하고 나서 보살도를 통해 그 세계에 들어가는 법을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로써 설하고 있다. 그리고 보살도가 문수보살의 지도에 의해 시작되고 보현보살의 경계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점도 같다. 또한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선지식의 법문이 대체적으로 제1부에 나타나 있는 신(信) · 십주(十住) · 십행(十行) · 십회향(十廻向) · 십지(十地)의 보살 수행계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는 화엄경이 선재동자의 구법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상되고 결집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거나 입법계품을 화엄경의 중심내용으로 삼아 화엄경의 정종분(正宗分)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을 통해서 화엄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53명의 선지식의 신분과 직업은 실로 다양하다. 그 선지식들은 보살 · 비구와 비구니 · 우바이 · 장자 · 거사 · 천신(天神) · 여신(女神) · 왕 · 바라문 · 동자와 동녀 · 외도(外道) · 뱃사공 · 유녀(遊女) 등이다. 이러한 선지식들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며, 현실 사회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눈뜨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 개인의 열반과 깨달음의 성취에만 관심을 가지는 불교가 아니라, 사회적 인간으로서 행동하면서 깨달음을 열어가는 불교가 설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계품의 교설을 통해서 불교는 언제나 대중과 함께 숨쉬고 있어야 하며, 현실세계가 그대로 불법을 실천해야 하는 도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㊶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 제방에서 오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며, 해탈을 구하고 삼계에서 벗어나기를 구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대들은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 하느냐? 부처와 조사는 숭상하여 잡아맨 이름일 뿐이다. 그대들이 삼계를 알고자 하는가? 삼계는 그대들의 지금 법을 듣는 마음 바탕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에 탐내는 것이 욕계이고,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에 성내는 것이 색계이며,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에 어리석은 것이 무색계이니, 이들 삼계는 그대 집 속의 가구들이다. 삼계가 스스로 '나는 삼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 앞에서 신령스럽게 만물을 비추고 세계를 헤아려보는 사람이 삼계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한 번 시험삼아 살펴보자. 다음의 글을 천천히 잘 읽으면서 그 뜻을 충분히 음미해 보자.

<1> 욕설, 똥, 악취, 시궁창, 주정꾼이 거리에 토해 놓은 음식찌꺼기, 바퀴벌레, 뱀, 건달, 깡패, 술주정, 시비, 돈 없음, 불명예, 시기, 질투, 식욕, 성욕, 욕설, 분노, 사기, 파렴치, 비열, 도둑질, 강도, 살인, 강간, 성추행, 모욕감, 싸움, 원한, 두려움, 공포, 걱정, 피로, 몸살, 아픔, 중생, 어리석음, 지옥, 고통, 후회.

<2> 칭찬, 싱싱한 딸기와 사과, 감미로운 장미의 향기, 맑은 계곡물, 시원한 바람, 상쾌한 물소리, 착하고 정직한 사람, 포근함, 안정감, 사랑, 행복, 상쾌함, 즐거움, 웃음, 유쾌함, 우정, 믿음, 격려, 안도, 건강, 풍족함, 따스함, 돈에 대한 무관심, 명예에 대한 욕망 없음, 지금 이대로 만족함, 지금 이 순간 더 바랄 것이 없음, 편안함, 부처, 깨달음, 지혜, 해탈, 초탈.

지나가는 경험속에 내가 있어

대체로 <1>을 읽을 때는 인상이 찌푸려질 것이고 때로는 속조차 좋지 않을 것이다. 반면 <2>를 읽을 때에는 인상이 펴질 것이고 속도 편안할 것이고 때로는 미소조차 얼굴에 번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1>에 있는 것들과 <2>에 있는 것들은 분명 다른 것들로 실감이 된다.

<3> 이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스스로를 바로 돌이켜 보라. 눈을 어디에 두고 발은 어떻게 하고 코에는 어떤 냄새를 맡고 손에는 어떤 촉감을 느끼고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읽고 있는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생각과 느낌과 감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이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각들은 모두 나(我)에게서 나타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이나 나타날 때나 지나갈 때나 지나가고난 지금이나 나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아마 느낌이나 몸의 상태나 생각이나 욕망과 같은 것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대로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경험들이 달라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늘 그대로 머물러 있다.

경험들은 매 순간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곳에 늘 한결같이 내가 있다. 매 순간 나는 달라지는 다양한 경험을 나 자신에게서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나 자신은 늘 그렇게 경험 속에 있다. 그러나 내가 경험과 떨어져서 경험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경험과 따로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의 경험을 떠나서 따로 찾을 수가 없다. 나를 찾는 행위 자체가 나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더라고 늘 나는 나의 경험 속에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의 경험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험과는 달리 나는 늘 이 자리에 변함 없이 있다. 그러한 나를 알겠는가?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과

■ 김태완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016-456-8957(강보영) http://www.mindfree.net/



세포가 인간이 되기까지

어머니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합쳐서 수정란이 되는데 이 수정란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작은 세포다. 이 작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하여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발생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 태어나기 직전에는 세포 수가 약 100조가 되며, 체중은 약 3.2kg이 된다. 이와 같은 인간의 발생 과정은 인체에서 뇌의 신비와 더불어 신비 중의 신비로 알려져 있다. 왜 신비 중의 신비라 하는가?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가 분할을 계속하여 세포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들 각각의 세포에는 모두 똑같은 유전정보가 들어 있다. 그런데 어느 발생 시기가 되면 똑같은 유전정보를 갖는 세포로부터 심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간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소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신장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손과 다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유전학자-억제 · 촉진 프로그램 있다
불교-유전자 최종 조율은 '정신적 요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질문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유전정보와 똑같은 세포로 구성된 초기 태아의 세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장기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가?" 발생 유전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똑같은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발생단계에서 각각의 세포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들만이 발현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포들이 만들어진다"고. 질문자는 또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각각의 세포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가?" 이에 대하여 발생 유전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유전자를 조절하는 즉,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는 발생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대답한다. 질문자가 또 물었다. "발생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자.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아의 형성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인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이에 대하여 발생 유전학자들은 "그것 역시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단지 아직 그 프로그램이 구명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질문자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프로그램은 또 누가 조율하는가?" 이 최종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발생학자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고, 신앙을 가진 학자는 "하느님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유전자 프로그램이 그렇게 한다"라고 우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 발생에 관한 설명이다. 결국 인간 발생 신비에 관해 유전자와 유전자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반 아는 것이 없는 셈이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인간 발생의 시작은 제1 요소인 난자, 제2 요소인 정자 그리고 제3 요소인 '정신적 요소(망자의 中有)' 가 서로 합쳐서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합(三合)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최종 인자는 '정신적 요소(망자의 中有)' 라 말한다.

■충남의대 산부인과학교수



그림 ·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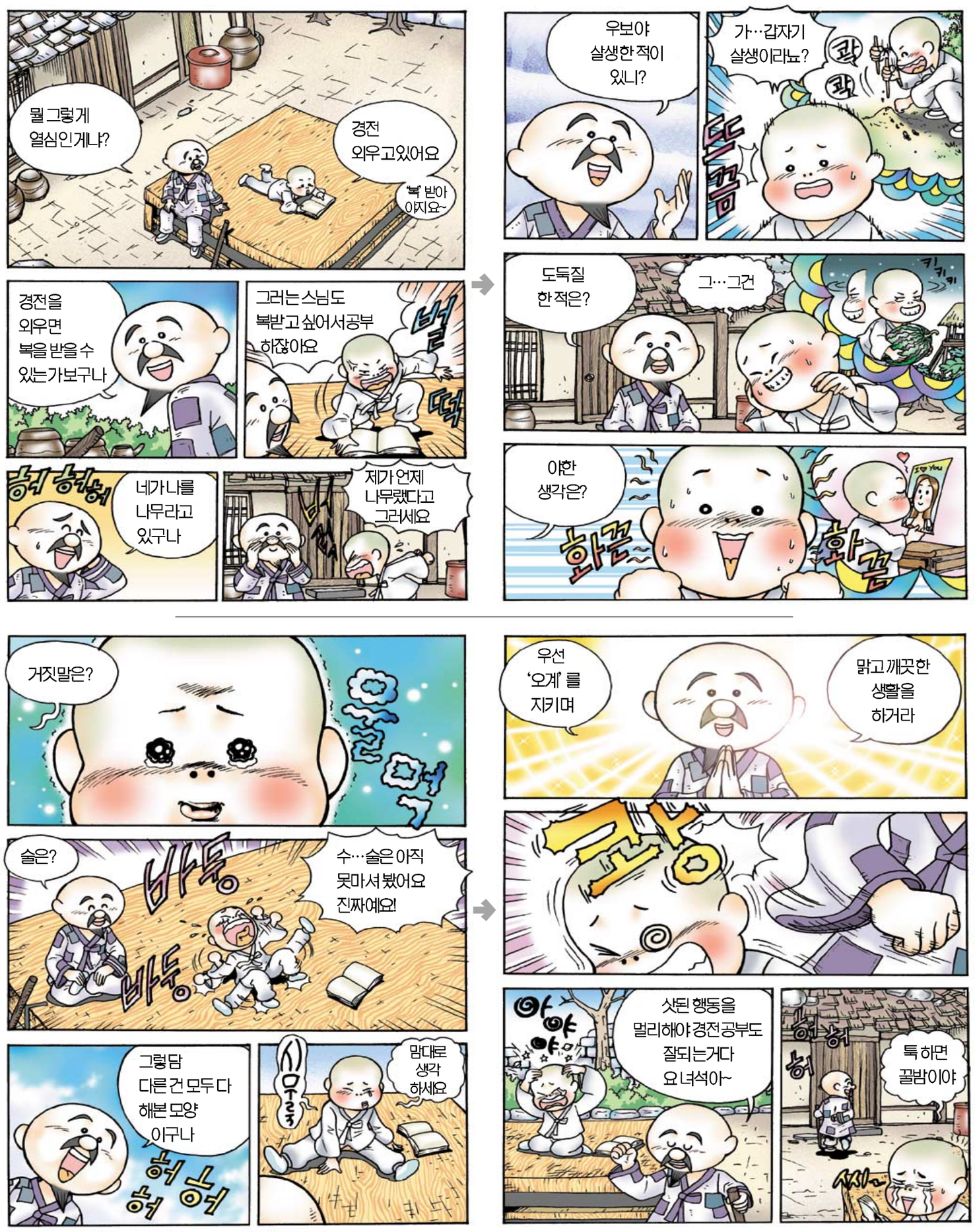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오계 지킴이 가장 큰 복"

<출전:남전 상응부 12.41>

(제1화)



이렇게 들었다

발심과 작심



작년 잘한 일 더 잘하자

새해가 밝았다. 매년 그랬듯이 선재는 올해도 남들처럼 며칠 가지 못할 다짐을 스스로에게 해본다. 도대체 왜 새해만 되면 선재 자신도 모르게 결심을 하려는 걸까? 결심 안 하면 누가 잡아가나?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선재는 한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간단한 답을 고민했나 싶어 피식 웃고 말았다. 정답은 바로 연말을 보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결심을 '발심'이라고 하셨다. 선재는 벌써 서른 번도 넘게 발심을 한 셈이다. 『화엄경』에서는 "처음 발심을 한 때가 바로 깨달음을 얻는 때"라고 하셨는데 그럼 선재는 서른 번도 넘는 깨달음을 얻은 걸까?

삼백 예순 다섯 날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1년을 생각해 보면 한 해라는 것이 마냥 멀기만 한 시간이지만 사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의 첫날은 겨우 하루 차이이고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겨우 1초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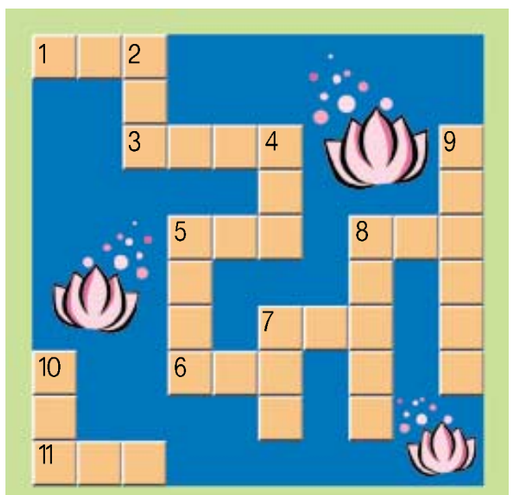
선재가 웃고 만 이유는 발심하는 순간에 깨닫는다는 말이 새해 첫 날의 결심을 연말까지 이어지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심하기 직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 없이 하는 새해의 결심이니 작심삼일일 수밖에. 발심(發心)은 이미 자기가 지니고 있는 마음을 북돋우는 일이지만 작심(作心)은 원래 없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니 말이다.

새해의 첫날, 선재는 예전과 다른 결심을 한다. 작년에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작년에 잘 했던 일을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어제랑 똑같은 선재가 되면 새롭게 뭔가를 작심할 일도 없고 이미 선재는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똑같이 산 셈이다. 작심의 세월 삼십년 만에 처음으로 선재는 발심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생각에 올 한 해가 즐거울 것 같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이렇게 들었다'를 1년 동안 연재할 최원섭(32) 씨는 1995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동대학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철선사상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교리퍼즐



가로

1.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다고 함. 3.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으로 천지, 자연, 신을 찬미한 시. 4베다의 하나. 5. 부처님이 정한 계법(戒法)을 받는 의식. 6. 탑주의를 돌며 기도하는 의식. 7. 불교의 세 가지 보배. 8. 중생의 마음. 11.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안에 있으며 고려시대 창건된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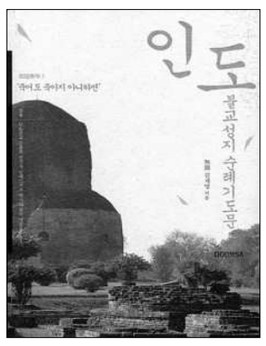
세로

2. 부처님의 10대제자로 혜공제일로 불려지며 금강경에 나오는 인물. 4. 스님이 입적하면 봉행하는 의식. 5.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정암사 적멸보궁의 탑이름. 7. 천왕문 다음에 위치한 문으로 해탈문이라고도 함. 8. 김포에 위치한 조계종 종립대학. 9. 처음 승려가 된 사미가 배우는 책. 000자경문. 10.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모시는 가람의 본당



만화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를 연재할 한정우 씨는 교육 · 교양도서 일러스트 전문작가다. 1992년 〈 주간 소년챔프〉 주최 공모전에서 가작을, 92년 93년 〈 주간 만화〉 겨울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다. 현재 스튜디오 '호시우보'에서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인도성지순례 가이드 북



지금부터 두 달여 동안은 인도불교성지순례가 가장 붐을 이루는 시기다. 많은 불자들이 이 기간에 붓다의 족적을 좇아 인도를 찾는다. 인도불교성지 순례에 나서기 전에 불자라면 꼭 한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 나왔다.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이 바로 그것이다. 1970년 이래 동덕불교학생회와 청보리회를 창립하며 30년 넘게 불교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김재영 법사가 펴낸 이 책은 한마디로 '기도하고 명상하는 순례' '대화하고 체험하는 성지순례'를 위한 현장 가이드북이다.

2000년 1월, 20일간 인도 순례에 나섰던 김 법사는 당시의 환희를 기도문으로 옮기고, 오늘을 사는 인도인들과 붓다가 거쳐 갔던 성지들의 오늘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했다. "인도로 가는 까닭은 첫째 기도하기 위함이며, 둘째 인도 동포들을 만나기 위함이며, 셋째 인도불교의 부흥 현장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김 법사의 말은 곧 인도를 찾는 우리의 자세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
김재영 지음
도피안사 / 9천원

기도문·명상시편·붓다행적 현장 소개

특히 김 법사는 이 책에서 세속적 관광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순례 풍토를 스스로 비판하고, 붓다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인류적 고통과 과제들에 대한 구원의 출구를 발견하려는 치열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동시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인도 · 인도 민중들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순수한 우정을 통하여 초기불교의 준엄한 역사적 상황을 체감하고, 이제 막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인도불교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염원을 전하고 있다. 부록으로 인도불교 부흥의 위대한 선구자 암베드까르(Dr. B. R. Ambedkar)박사의 전기를 국내 최초로 번역하여 담은 것도 이런 의식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김 법사는 '죽어도 죽이지 아니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담마(Dhamma)'를 우리들 앞에 명료하게 제시한다.

"나는 간디 박물관 3층 전시실의 한 화폭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냈다. '삼성동행도(三聖同行圖)'…붓다-예수-간디. 그들은 이미 붓다 · 예수 · 간디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이름도 없을 것이다. 어떤 형상도 없을 것이다. 어떤 개념도 없을 것이다. 깨달음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비폭력도 없을 것이다…이름하고 구분하는 것은 중생의 어리석은 한갓 습(習)일 뿐이다. 습관에 젖어 헛것을 본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진실한 삶이 있을 뿐이다…다만 진실한 삶을 볼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견성(萬人見性)의 길로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1편 순례기도문에는 룸비니에서 히말라야까지 붓다의 행적을 좇아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23편의 기도문과 각각의 성지에 대한 역사적 경전적 배경에 대한 간략한 '현장 리포트'를 실었다. 2편 인도시편에는 인도 문화 · 인도 민중들과의 진솔한 만남과 대화를 소재로 한 10편의 명상 시편과 이해를 돕기 위한 '명상 노트'를 담았다. 부록으로 '암베드까르 박사의 삶과 개종 운동'과 현장에서 법회를 열수 있도록 '순례법회 독송편'도 실었다.

이 책은 인도로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기도를 통해 살아 숨쉬는 붓다를 만나게 하고, 인도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불자에게는 이미 깨달아 있는 그들의 영성(靈性)을 흔들어 일깨워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살아갈 날들을 위한 기도'
윤구병 외 10인 지음
화니북스 / 8천5백원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길
스님 등 지식인 11명의 삶 이야기

물질과 풍요의 시대, 디지털과 속도의 시대, 그리고 이로 인한 개인주의의 팽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기도>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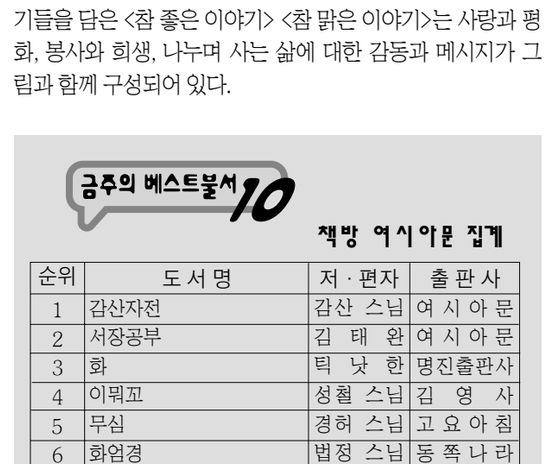
도법 스님, 이현주 목사, 이해인 수녀, 김용택 시인 등 스님이자 목회자이자 농부이자 시인인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11명이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한 책이다.

"나만 살면 된다는 사고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고상한 폼을 잡아도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삶을 통해서는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면 삶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갖는 일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올바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없는 나, 자연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가 갈 길은 함께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함께 사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도법스님의 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중)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반추하며 또 한번의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새해 아침, 11명의 살아온 이야기와 살아갈 날들의 메시지는 꼭 한번 읽어봄직하다.

이은자 기자



법정스님 책 5권 펴내

법정스님(길상사 회주)이 한꺼번에 다섯 권의 책을 내놓았다. <화엄경> <스승을 찾아서> <인연이야기><참 좋은 이야기> <참 맑은 이야기> 등으로 모두 동쪽나라에서 출간됐다.

<화엄경>은 80권 39품으로 된 전체 경전 가운데 화엄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보살문명품 · 정행품 · 십행품 · 십회향품 · 십지품 · 여래출현품 · 이세간품을 옮긴 것이다. <스승을 찾아서>는 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재동자의 이야기가 담긴 화엄경의 입법계품만을 따로 엮어놓은 것이며, <인연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은 본생담(本生譚)과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비유(譬喩)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법정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들을 담은 <참 좋은 이야기> <참 맑은 이야기>는 사랑과 평화, 봉사와 희생, 나누며 사는 삶에 대한 감동과 메시지가 그림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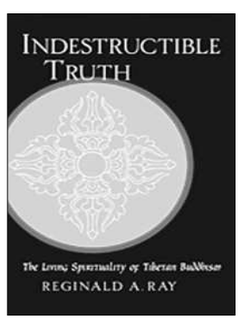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 시 아 문
2	서장공부	김 태 완	여 시 아 문
3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4	이뭐꼬	성철 스님	김 영 사
5	무심	경허 스님	고 요 아 침
6	화엄경	법정 스님	동 쪽 나 라
7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 이 화	역사비평사
8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9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일지 스님	민 족 사
10	아비담마길라잡이	각묵 ·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해외불서

불멸의 진리



<불멸의 진리(Indestructible Truth-The living spirituality of Tibetan Buddhism)>는 이제까지 출간된 티베트 불교 안내서 가운데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동시에 접근하기 쉬운 책이다. 저자 레지널 레이(Reginal A. Ray)는 복잡하고 난해한 가르침과 수행법을 비전문 용어로 개인적인 일화와 실천적인 해설을 곁들여 요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티베트 전통불교의 원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대 서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보여준다. 이 책에서 티베트 불교는 단순한 외래 종교로서가 아니라, 현대문명에 심오한 충격을 가져다주는 인간주의적인 영성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아울러 영적 생활을 위한 명상과 실천에 주안점을 두고, 카규파(Kagyu)와 닝마파(Ningma)의 가르침에 따른 명상 수행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미 샴발라출판사.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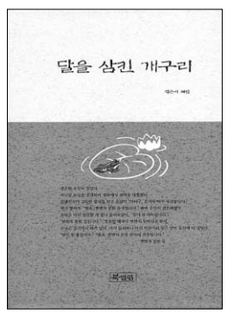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불교와의 만남'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불교교리와 핵심 사상을 담은 불교 입문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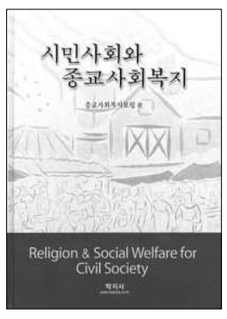
불교 발생 이전의 인도 상황에서부터 싯달타 태자의 탄생, 붓다의 깨달음과 입멸, 불교의 근본분열, 부파불교시대, 대승불교의 발달 등 불교사를 두루 살피고, 삼법인, 사성제, 오온설, 12처설 등 근본 교설과 연기론과 실상론, 선(禪)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경기도 수원 대승원 주지 수산스님이 집필했다.(마하야나, 9천5백원)



'달을 삼킨 개구리'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화두이다.

이러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비유로 풀어 쓴 책이 <달을 삼킨 개구리>다.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온 혜범스님이 펴냈다. 스님은 현재 강원도 원주 현계산 송정암에서 수행 정진중이다.(북갤럽, 8천원)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불교 · 가톨릭 · 기독교 · 원불교 등의 복지현황을 살핀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가 출간됐다. 1부에서는 현대 사회복지 모델과 의미를 살펴보고, 2부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불교사회복지의 이념'을 쓴 종교사회복지포럼 권경임 회장은 "불교계 사회복지 활동은 8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그동안 물적 · 인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사찰이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지사, 1만4천원)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여자'

현재 미국 뉴욕에서 불교 방송인으로, 전화회사 대표로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자원씨의 에세이집이다.

1970년대 초 간호사로 독일에 갔다가 사랑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하게 되면서 겪었던 숱한 인생역정을 솔직담백하게 담았다. 특히 힘들었던 미국 생활 중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부분이 흥미롭다. (우리출판사, 9천원)

‘평민열전’

허경진 편역

웅진북스 / 1만 5천원

조선시대는 신분체제를 양반·중인·상인·천민의 네 계층으로 나눈다. 이들을 다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묶어본다면 양반 사대부와 평민으로 나눌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반 사대부들은 달아나기에 바빴고, 반대로 평민들은 의병을 일으켜서 제 고향을 지켰다. 집권층의 무능력과 허세가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눌려 지내던 평민들의 세력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와 함께 읽는 평민 110인의 열전



▷평민들의 삶을 실감나게 그려낸 김홍도作 ‘점심’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25폭 中).

양반들만 사회의 주체이던 시대가 지나고, 평민들도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입신출세를 위해 시를 짓던 양반들과 달리 평민 시인들이 자기네 삶을 한문학의 형식으로 표출하는가 하면, 남다르게 살았던 평민들의 삶을 전(傳)의 형식으로 서술해 남기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이로써 평민 전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화와 인간 탐구가 함께 있는 새로운 역사읽기. 최근 나온 <평민열전>은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선인들의 개인사 속에서 삶의 철학을 건져 올린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에는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 달마도로 유명한 김명국,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명기 황진이와 칼 만드는 장인 신아 등 시인, 화가, 서예, 의원, 역관, 의협, 처사 · 선비, 바둑, 충렬, 장인, 효자, 효녀, 절부 · 열녀, 기생 · 궁녀 등으로 분류한 평민 110

화가·의원·선비·기생·장인·역관등 조선후기 ‘비범한 평민’들의 남다른 삶

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짧은 지면 안에서 그 인물의 남다른 삶을 최대한 부각시킨 ‘열전(列傳)’이라는 형식은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매력적이다. 한 인간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전해야 할 사건만 간결한 문체로 기록한 기전체 역사서 속에는 인간과 시대에 대한 치열한 탐구가 담겨져 있다. 행장이나 연보, 묘비명까지 있는데도 굳이 전을 다시 짓는 까닭은 사실의 기록이면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이나 인간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조선시대 평민 한문학을 연구해 온 연세대 국문과 허경진 교수가 펴냈다. 평민 출신의 화가 조희룡이 1844년에 지은 평민 전기집 <호산외기>, 아전 출신의 유재건이 1862년에 엮은 <이향견문록>, 그들의 친구였던 시인 이경민이 1866년에 엮은 <희조질사> 등 세권의 전기집을 중심으로 엮었다. 조희룡과 유재건, 이경민 등은 자신들의 안목과 기준에 의해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을 짓거나 인용했으니, 사실적인 기록에 가까운 글들이다. <호산외기>는 요즘의 역사계에서도 하나의 역사책으로 인정할 정도로 가치가 높다.

이 책은 사건 중심의 기존 역사서들과 달리 비범했던 19세기 평민들의 삶을 통해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본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영혼의 식탁 1·2’

잭 캔필드 외 지음

휴머니스트 / 각권 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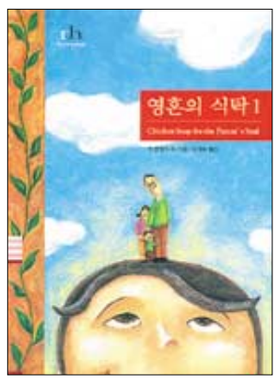
행복한 삶 위한 사랑나누기

잠시 쉬어가게 하는 감동적 내용 담아

최고의 권위와 솜씨를 자랑하는 요리사들이 손꼽는 최상의 재료는 사랑이다. 제 아무리 근사한 음식이라도 사랑이 담기지 않고서는 제 맛을 내지 못한다. 사랑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공기와 같은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무엇이다.

<영혼의 식탁 1 · 2>은 사랑을 나누어 기쁨을 만들고, 절망을 바꾸어 용기를 전하고, 시련을 이기어 행복을 키우며, 꿈과 희망을 이루게 하는 가장 훌륭한 식탁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 한다. 그리고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어요?” 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고르며 자신들의 아빠에게 묻는다. 여자아이는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여자아이는 예쁜 바비 인형을 골랐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그렇지 못하다. 포켓몬 게임기를 사고 싶지만, 남자아이가 게임기를 골라 아빠를 쳐다볼 때마다, 아이의 아빠는 고개를 내저었다. 풀이 죽은 남자아이는 게임기를 포기하고 스티커 책자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이를 지켜보던 여자아이가 바비 인형을 다시 진열대에 가져다 놓고, 포켓몬 게임기를 들고 와 계산을 치른 뒤 점원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뒤이어 남자아이가 스티커 책자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바로 그때, “축하합니다. 오늘의 백번째 손님이군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원이 남자아이에게 포켓몬 게임기를 내밀었다. 남자아이는 못 믿겠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면서, 꼭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여자아이는 아빠와 출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여자아이의 아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묻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사기를 바란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이 책에 나오는 ‘행복을 만드는 아이’의 주요내용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여자아이는 남자아이가 바라던 것을 선물로 주고, 행복을 샀다. 자신이 가진 돈보다도 더 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 것만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것 까지 넘보는 오늘 우리들의 찌든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 잠시 쉬어가게 하는 감동적인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행복한 한 해를 꾸려나가길 계획한 모든 이들에게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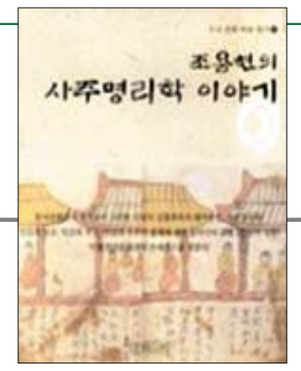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전문가 서평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조용헌 지음

생각의 나무 / 1만 5천원



“우주·인간을 통찰한 심오한 현실학문”

박대통령 내외 객사·신군부 등장 예견 사주 명리학 학문적으로 접근

동양사상 연구 경향에 대한 조용헌 교수의 분류는 학문이란 외피를 벗겨낸 속알맹이 그대로이다. 강단(講壇)동양학파와 강호(江湖)동양학파로 나누는 그의 분류에 따르면 강단동양학이란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양학을 말하고, 강호동양학은 강호에서 좌충우돌하는 실전동양학을 말한다. 강단파와 강호파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강단이라고 하는 직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그래도 굶어죽지 않으면 강호파에 속하고 굶어죽으면 강단파라는 것이다.

강호동양학은 사주, 풍수, 한의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한의학은 시민권을 획득한 상태이고, 풍수도 영주권은 획득한 상태이지만 사주는 아직 불법체류자 신세라는 것이다.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는 바로 이 불법체류자 신세인 사주명리학에게 학문적 시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다.

현재는 미신으로 치부되지만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 잡과(雜科) 중 음양과(陰陽科)에 명과학(命課學)이 있어서 정식 관료를 선발했던 국가공인학문이었다. 합리성을 추구했던 조선에서 정식관료를 둘 정도로 보호받았던 명리학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급차별에 저항하는 대항이데올로기의 구실도 했다. 왕후장상의 씨가 아니더라도 사주팔자만 잘 타고나면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는 평등의 논리가 그것이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역모사건에 명리학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학문적 접근만으로는 이 책이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어려울 정도의 재미와 흡입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 비결은 명리학계 실존 고수들의 많은 일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 있다. 이는 조용헌 교수가 수많은 고승, 처사들을 찾아다닌 발품의 덕이기도 한데 이 중에는 근래 한국 명리학계의 ‘빅3’라는 자강(自彊) 이석영(李錫映), 도계(陶溪) 박재완(朴在琓), 제산(霽山) 박재현(朴宰顯)의 많은 일화가 담겨있다.

예를 들어 김재규가 1970년대 박재완을 찾아갔을 때 1979년에 ‘풍표낙엽(楓飄落葉) 차복전파(車覆全破)’의 운세라고 풀이했는데, 이를 ‘단풍잎이 떨어져 낙엽이 될 즈음에 차가 엎어져서 전파 된다’라고 해석한 김재규는 자동차를 아주 조심했지만 실제는 차(車)는 차지철을, 전(全)은 전두환을 가리킨다는 것이니 이쯤 되면 가히 신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수기지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장군에게 제왕의 사주가 있다고 예견해 박 대통령의 큰 총애를 받았다가 유신(維新)을 유신(幽神), 즉 저승의 귀신이 된다고 예견하는 바람에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큰 고초를 겪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런데 조용헌 교수가 명리학에 학문적 시민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통력 때문이 아니다. 이런 신통력은 동양사회에서 수 천 년 전부터 형성되어온 우주와 인간에 대한 연구와 통찰의 결과이기 때문에 학문적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책이 <주역(周易)>인데 8 · 15해방을 예견하고 ‘경사스런 소식을 듣는다’는 뜻의 문경(聞慶)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14일부터 잔치를 베풀었다는 야산(也山) 이달(李達)이나 충남대 총장을 지냈던 학산(鶴山) 이정호(李正浩)가 모두 <주역>에 몰두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또 다른 고수인 <우주변화의 원리>의 저자 두암(斗庵) 한동석(韓東錫:1911-1968)의 예견은 한 개인의 비범성과 동양사상에 대한 조예가 결합된 결과이다.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모두 총 맞아 객사할 것이라는 예언이나 그 후 군사독재 시대가 다시 왔다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노태우)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금기(金氣:김영삼 · 김대중)를 지닌 사람이 한 10년 정도 정권을 잡는다는 예견은 명리학이 얼마나 심오한 세계인지를 잘 말해준다. 금기 다음에 목기(木氣)와 화기(火氣)를 지닌 사람이 연합해 남북통일이 된다는 그의 예언은 북핵문제라는 난제를 앞둔 우리의 우울한 가슴에 한 가닥 위안이 되기도 한다.

명리학은 강단에서 외면당한 현실학문이지만 이 책 301쪽의 “야산의 생애와 일화를 대충 더듬다보니 불현듯 산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인다. 산신령이 나를 부른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강단이라는 틀을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원초적 경지이기도 하다. 자유에의 이런 의지까지 이 책은 잘 표현하고 있다.

■이덕일/ 역사평론가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는 한자문화권의 천재들이 고안한 인생 길흉화복의 해석방법인 사주명리학을 원광대 동양학 대학원 교수인 조용헌씨가 깊이있게 성찰한 책이다.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길



피안에 이르는 길

〈잡아함경〉 제26권 771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어떤 사문이 피안과 피안이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때 부처님은 불교도들에게 8정도로 알려져 있는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은 피안이며, 8정도와 배치되는 삿된 길은 피안이 아니며, 피안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설법하고 있다. 그런 뒤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노래한다.

"사람으로서/ 피안에 이를 수 있는 이는 드물어/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차안(此岸)에서 배회하고 있노라./ 이 바른 가르침과 계율/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 저 건너기 어려운 생사의 바다 건너/ 피안에 이를 수 있으리"

이상에서 부처님께서는 8정도가 피안이며, 피안으로 이끌어 주는 길이라 설파하며, 동시에 바른 가르침과 계율로 해석하고 있다. 기실 4성제의 핵심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른 견해(정견)란 4성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유하고, 번뇌가 없는 사유를 따라 깨닫는 것을 말한다. 바른 사유(정사유)란 출가자에게 어울리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 자애로운 마음, 더러움을 떠난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사유하고 애쓰는 것이며, 세속적으로는 욕망과 분노와 폭력을 여읜 사유를 지칭한다. 정견과 정사유의 공통점은 견해와 사유의 밑바탕에 고-무상-무아의 사상이 전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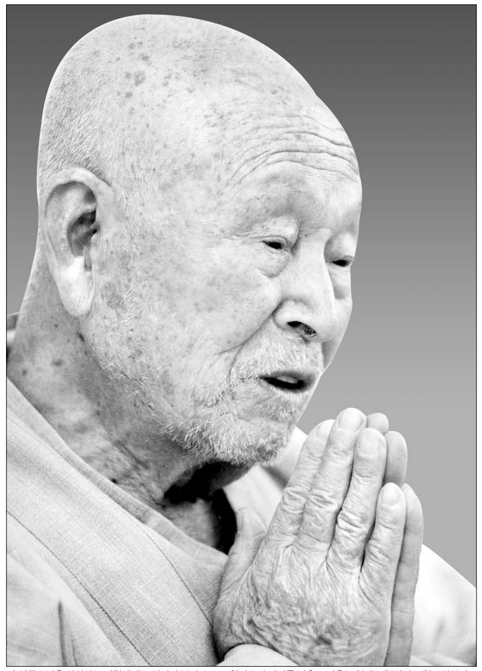
바른 말(정어)이란 거짓말, 이간질 하는 말, 욕설, 꾸미는 말을 여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생활을 통해 타인에게 믿음과 사랑, 평화와 행복을 주고자 하는 사회의식이 전제돼 있다. 때문에 타인에 대한 칭찬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이 필요한 것이다. 바른 행위(정업)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않는 것을 빼앗지 않으며, 청정치 못한 행위(음행)를 떠나는 것이다. 바른 생활(정명)이란 세속적인 입장에선 정당하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가자 입장에선 바르지 않은 생활에 대한 번뇌를 없애고, 즐기거나 집착하지 않되 때를 어기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바른 노력(정진)이란 이미 존재하는 선은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은 얼도록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바른 인식(정념)이란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버리고, 사물에 대해 거듭 생각하고, 기억하여 생각이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은 것이다. 4념처관에 의거, 몸과 감수 작용과 마음과 법에 대해 올바로 관찰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바른 선정(정정)이란 마음이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상태 즉 4성제를 있는 그대로 사유하면서 산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거두어들이고, 고요하며, 삼매요 한 마음인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공, 무상(無相), 무원(無願)의 마음가짐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8정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정견은 나머지 일곱 가지 길과 연계되어 있으며, 정정 역시 나머지 일곱 가지 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8정도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석하고, 그것을 3학이라 부른다. 즉 정견+정사유=지혜(慧), 정어+정업+정명+정정진=계율(戒), 정념+정정=선정(定)이다. 이상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정사유는 세속적인 입장에서 욕망, 성냄, 폭력(=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율에도 속한다. 즉 정사유+정어+정업=십선계(十善戒)가 된다. 정사유는 십선계에서 바로 의업(意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정념과 정정은 4념처관을 통해 고-무상-무아를 관찰하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점견 내지 정사유와 상통한다. 선정을 통해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올바른 지혜를 기반으로 올바른 선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가분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계정혜 3학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8정도는 3학과 삼위일체 구체적 실천 따라야 자아완성

8정도는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알려주고 있다. 동시에 인식과 실천의 주체는 다름 아닌 개개인 자신이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은 부단한 자기성찰과 자유의지의 확대에 있다는 점을 말한다. 정명, 정정진 등이 그런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선 8정도가 피안에 이르는 길임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다. 문제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알되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진정 믈랒던가 잘못 알았던 것이 분명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지식 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초현실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에 의지하기보다 구체적 실천을 통해 자아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8정도의 정신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석주스님은 하심하는 사람에게는 만가지 복이 스스로 찾아오니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일에 노력하라고 강조하셨다.

"하심 하면 萬福 저절로"



지상 백고좌

석 주 스님

(칠보사 조실)

〈범망경〉에 보면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악한 일은 모두 자기에게 돌리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자리는 남에게 다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제일 나쁜 자리에 앉으라 하셨으니 그것이 모두 복을 받을 일이라는 말입니다.

스님이 되어 처음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人我山崩塞(인아산붕색) 無爲道自成(무위도자성) 凡有下心者(범유하심자) 萬福自歸依(만복자귀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아산(人我山)이 무너지는 곳에서 무위(無爲)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무릇 하심(下心)함이 있는 이에게 만복이 스스로 귀의한다' 는 뜻이지요.

'내가 아니다' 하는 그 상이 무너지는 곳에 함이 없는 도가 스스로 일어나고, 무릇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 가지 복이 모두 날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심이라는 공부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참선하고 염불하는 중에도 '나' 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됩니다.

언제든지 남을 배려해야지 나만 잘 살겠다고 해서는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문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시끄러워 집니다. 항상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常不輕) 보살은 이름 그대로 항상 남을 가볍게 보지 않고 존경해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 보살은 길을 가다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장차 다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수기를 주느냐' 하고 나무라고 욕을 하며 때리고 돌을 던지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 상불경보살은 멀찍이 물러선뒤 그분들을 향해 합장하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때리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며 예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하심을 해야 합니다. 내 몸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만 자신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넓게 가지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해야합니다. 수월(水月)과 같이 마음을 열고, 속을 비워 놓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심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 깨끗한 마음은 곧 성불하게 됩니다. 우리 본 마음은 다 부처님입니다. 보리는 우리들의 주체이고 주인공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배탑은 필경에 소멸되어서 가는 티끌이 되거니와 항상 깨끗한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필경에 성불한다"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생이 괴로운 것은 일시적인 모두가 번뇌망상에 가려서 자기 본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팔만사천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란 번요뇌란(煩擾惱亂)으로서 '마음을 흔들어서 어지럽게 한다' 는 뜻입니다. 마음의 때 같은 것이지요. 또 손 객자 티끌 진자 '번뇌', '객진번뇌(客塵煩惱)' 는 이를테면 우리의 가정이나 하숙집 같

새해에는 배운것 하나라도 실천을 참회는 수행을 완성시키는 지름길



◇포교와 불사를 위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글씨를 써 주시는 석주스님.

은데 며칠 묵다가 떠나는 손님 같은 것 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 갑자기 검은 구름이 끌려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이 치는 현상이 오래 가지 못하고 갑자기 해가뜨고 밝게 개는 그런 현상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 번뇌만 털어 내면 본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다 깨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니 정초기도에 들어가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기위해서' 아닙니까. 기도를 할 때는 일심으로 지극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필경에는 부처님 되는데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세속의 행복이나 명예추구, 부자 되는데 두지 마세요. 생사를 초월해서 대 지혜와 대 해탈을 통한 대 자유를 얻는데 목표를 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치기 전에는 영원히 고통스런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은 지니고 있는 자성부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자신을 항상시킵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불자가 됩시다. 법회 나올 때마다 깨닫는 바가 있어서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향상되고 진취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무런 향상이 없으면 절에 나오나 마나 하지요.

매일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참회하십시오. 세세생생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들을 조석으로 되새기며 소멸시키는 것이야말로 수행일과의 처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 내 업장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업장을 녹여 줍니다. 참회야말로 만인을 편안케 해주고 수행을 완성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인과(因果)는 엄정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효랑산 보현사 산내암자인 상원사에 올라가면 선방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한 철을 지냈는데, 그곳에 금강산에서 온 혜원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스님이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깜박 졸았어요. 꿈에 열두어 살 된 동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스님을 위해서 무엇이던지 시봉할 테니 이름을 지어주시고, 염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께서 '네 이름을 '계행' 이라고 지어주겠다. 하루에 300번 관음기도를 해라' 고 말했어요. 계행동자가 관음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매일 300번씩하더니, 어느날 부터는 400번, 500번, 2년이 넘어가자 1000번을 하는 겁니다.

혜원스님이 어느 날 부엌에서 불을 때다가 졸았는데 꿈에 동자가 나타났어요. 동자가 "스님께서 염불법을 가르쳐주어 열심히 정진하다보니 좋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해요. 스님이 황급히 꿈에서 깨어나 공중을 보니 연이 하나 떠있어요. 거기에는 '경복궁'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곧 경복궁에서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순종황제 였습니다. 이 얘기는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였던 황현(黃玹)이 기술한 한말비사(韓末秘史)인 〈매천야록(梅泉野錄)〉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공덕은 이와 같이 큽니다. 한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발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관하여 듣고, 원을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면 해탈한다고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새로운 발심을 하도록 합시다. 매사에 후회가 없도록 성심껏 임하세요.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지은만큼 거두거늘 적다고 불평하랴.
더 많이 얻기 위해 더 노력할 뿐이로다.
나 오직 만족해 하면서 감사속에 사노라.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기도 공덕 큰 줄 알고
한마음, 지극정성 발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없어

상좌 송운스님이 본 석주 큰스님

95세인 지금도 예불 빠지지 않아…늘 검소 · 소탈 법보원 · 칠보장학회 설립 포교 · 역경사업 헌신

어느 날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 초라한 행색의 스님이 찾아왔다. 스님은 교장선생님께 청을 한 뒤 바랑에서 수백권의 〈부모은중경〉을 꺼내 어린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스님은 다른 학교에서도 그와 같이 했다. 어느덧 어둠이 내리고 스님은 하룻밤 쉴 곳을 찾았다. 마침 사찰이 있었다. 주지스님께 방사를 부탁했지만 초면에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아무 말 않고 다른 절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분이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석주스님이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사를 내주지 않았던 주지스님이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을 빌었다. 석주스님은 '참회했으니 됐다' 말하며, '허허' 웃으셨다.

스님을 20여년간 모신 아산 보림사 주지 송운스님은 당시일화를 얘기하며, 석주스님은 총무원장으로 계시면서도 토요일 일요일은 꼭 어린이들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관용차도 개인일이라며 사용하지 않았고, 시자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석주스님은 또 상좌들이 생일상을 차려드릴라치면 호통을 치셨다. 그래서 95세가 된 지금까지 한번도 생일잔치를 하지 않았다. 상좌들에게 생일상 차림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그런 다음 청소년 교화연합회에 갖다 주거나 〈부모은중경〉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보시했다. 스님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 법문비라도 받을라치면 학비에 보태라고 젊은 스님들의 손에 쥐어주거나 불교대학 재가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경북 안동 옹천땅에서 1909년에 출생한 석주스님은 1923년 서울 선학원에서 남전스님을 은사로 열다섯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

95세인 지금도 조석예불에 빠지지 않고, 1시간 동안 무릎꿇고 기도하며, 법당에서는 1시간동안 참선정진 할 정도로 수행력이 높다. 공양도 항상 대중스님들과 함께 한다.

송운스님은 "평소 검소 검박한 모습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큰스님은 한국불교의 전면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공과 덕을 모두 남에게 돌리셨다"며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왜 사부대중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석주스님은 조계종 3대지표인 포교, 역경, 도제양성의 기틀을 다지신 분이다. 고령이라 약간 떨리는 손이지만 지금도 포교를 위한 전시회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수십 장씩 글씨를 써준다. 2002년에 써준 글씨만 해도 불교TV 200장, 하와이 무량사 200장, 동산불교대 100장을 비롯, 불사하는 일반 사찰은 수십 곳이니, 언뜻 계산해도 천장이 넘는다.

1961년 5월에 현 동국역경원의 전신격인 법보원을 설립해 활발하게 불서들을 출판, 역경불사에 활력을 불어 넣었던 장본인이 바로 석주스님이다. 지금도 역경사업을 위한 일이라면 노구를 일으켜 어디든 달려가 법문을 하신다.

도제양성을 위해 칠보장학회를 설립한 석주스님은 불교계 수많은 학승과 재가학자들을 키워냈다.

석주스님은 범어사 강원으로 가서 6년간 간경에 매진한 후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 금정산원 등에서 수선안거를 성만 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불국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2회), 은해사주지,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동국역경원 이사장,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등의 많은 소임을 거쳤다.

남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영각스님 (上)



해가 바뀌었다.

절 집에서는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分別)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나 같이 덜 익은 중생들에게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올해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몇 가지 계획을 새로 세우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해에 하는 일 중에 빼 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평소에 연락이 뜸했거나 소홀했던 지인(知人)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매년 유난히 생각이 나는 도반(道伴)들이 있다.

출가 수행자에게 도반은 평생의 친구이자 좋은 의지처이다. 도반은 '도를 닦는 동반자' 라는 정도의 뜻을 가진 말이지만 의미를 새김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래서 '공부의 반은 좋은 도반들로 이룬다' 는 말도 있다. 바깥에 있을때 누군가가 평생동안 참다운 친구 3명만 사귀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는 승속(僧俗)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가 보다.

출가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살던 집을 버리고 나온 사람이다. 집이 상징하는 소유를 버린,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구름같이 바람같이 떠돌아 다닌다. 그들이 항상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삶은 고독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외로운 수행자들은 서로 만나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즉시 도반이 된다. 나이 차이나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하룻밤 정도 함께 앉아 녹차(綠茶)를 우리고, 밤을 새워 얘기를 나누면 금방 오래된 도반이 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좋은 도반이 되는데 오랫동안 함께 생각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도반이 많이 있다면 그는행복한 수행자이다.



그림 · 문병성

나게는 세속의 인연에서 만나 출가자의 길을 함께 가는 비교적 오래된(?) 도반이 한 분 있다.

바로 영각 스님이다. 스님과 나는 대학 동기 등짝이다. 스님은 나보다 몇 년 앞서 출가한 선배지만 난 언제나 동기로 편하게 생각하며 지내왔다. 스님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줄곧 선방 수좌로서 수행하며 정진했다. 고운사에서의 3년 결사(結社)를 시작으로 매년 빠짐없이 안거(安居)에 들어가고 해제 때에도 가끔씩 산철 결제에 들어가 정진하곤 했다. 이렇게 우리 교단에는 시종 초연하게 자기 길을 가는 수행자가 많다. 이 분들로 인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영각 스님과 나는 해제 철이면 곧잘 함께 지냈다. 대개 선방 수좌들은 가까운 사이라 해도 토굴생활은 피하는 편이지만 우리는 즉이 잘 맞아서인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없이 잘 지냈다. 또 우리 절 신도들은 영각스님을 무척 좋아한다. 스님은 천진함과 순수함으로 여러 스님들 가운데 단연 인기가 높다.

몇년 전에 스님의 일면을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일이 있었다. 영각 스님과 나는 차(茶)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좋아한다. 특히 커피도 잘 마셨는데, 하루는 스님이 카푸치노를 만들어 주겠다다. 그 때만 해도 절에서나 가정에서는 지금처럼 여러 종류의 커피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스턴트 커피나 원두커피 정도는 있었지만, 카푸치노 같은 것은 전문점에 가서나 먹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 몇몇 신도들의 기대와 의심(?)속에 스님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인스턴트 커피 약간에다가 프림과 물을 아주 조금만 넣고는 티 스푼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젓는 것이 아닌가? 아나… 이게 무엇인가 싶어 쳐다보고 있는데 영각 스님은 이렇게 계속 저으면 거품이 생긴다고 하면서 선방에서는 가끔 그렇게 카푸치노(?)를 타서 드셨단다. 순간 우리는 모두 박장대소(拍掌大笑)를 터뜨리고 말았다. 나도 너무 어이가 없어 웃고 있었는데, 스님은 너무도 열심히, 진지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저어서 거품이 난다고 보통 커피가 카푸치노가 될 리 없지만, 그 날의 그 커피는 카푸치노보다 훨씬 맛있고 특별했음은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우리 절 대중들에게 회자(膾炙) 되었지만, 스님의 그 천진함과 순수함만큼은 그들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카푸치노 대접' 애쓰던 모습 선해 고운사 3년결사 이후 매년 안거

가끔 도(道)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도가 높고 법력(法力)이 수승하여 수행을 잘 하는 스님은 어떤 분일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마음 씀씀이와 행동 하나 하나가 맑은 거울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큰스님들은 모두가 천진하고 순수하셨단다. 어린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한다. 큰스님들이 아이들과 놀아 주시는 모습을 옆에서 뵈면 누가 어른이고 아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니까…

안거가 끝나고 뵐 때마다 순수해지는 영각 스님에게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며, 공부 잘하는, 공부가 잘 된 수행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계속) ■ 서울 정혜사 주지



◇304회부터 6년동안 '거룩한 만남'을 진행하는 도현 스님.

600회 맞은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희망의 인연 만들기 13년

630세대 30억 지원, 방송대상 2회 수상

거쳐간 프로듀서 8명, 10일 특집방송

불교방송 최장수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매주 금요일 오전 9시5분~오전 10시)이 10일 6백회를 맞는다.

지난 91년 4월 5일 첫 걸음을 뗀 이 프로그램은 방송개시 13년만에 6백회 방송의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프로듀서만도 최윤희 PD를 시작으로 지금의 문태준 PD까지 8명에 이른다. 진행도 정목 스님을 비롯해 덕신, 해성스님, 그리고 현재의 도현 스님까지 내로라 하는 인기 방송인 스님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작진은 여러차례 바뀌어 왔지만 사회의 무관심속에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보시행을 펼치는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만은 한번도 퇴색된 적이 없다.

특히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진영화(373회)씨, 전신 45%의 화상을 입고 절망에 잠긴 서희정씨(384회), 알콜중독자인 남편 뒷바라지에 힘겨운 삶을 살다 그 충격으로 실명된 김현순(392회)씨 등의 애절한 사연이 소개되자 청취자들의 후원이 쇄도해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치료비를 마련해 주었다. 후원의 손길이 조금만 일찍 미쳤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세 살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지만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제작진에게 '평생 동안 다 갚지 못할 큰 도움을 받았다며 자신도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감동 어린 내용의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거룩한 만남'은 개인 뿐만아니라 단체에게도 후원의 손길을 보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 집'에 전문 요양원 건립기금을 보냈고(584회), 지난 8월 태풍으로 큰 수해를 입은 '강릉 자비원'(598회)을 돕기도 했다.

1회 방송에 평균 5백만원~1천만원이 답지하는 뜨거운 성원에 힘입은 '거룩한 만남'은 그동안 총 630여 세대에 걸쳐 30여억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성금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을 위해 겨울철이면 옷과 이불, 쌀 등을 보자기에 쌓아 직접 방송국으로 찾아오는 열성 청취자 덕분에 후원품도 상당수 보시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92년과 98년 한국방송대상 2회 수상을 비롯해 93년에는 한국프로듀서상 진행자상, 2001년 '이달의 PD상' 등을 받기도 했다.

문태준 PD는 "사회의 세태가 변해 겉으로 드러난 그늘진 곳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이혼 등으로 편부모 가정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실제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기획할 것"이라고 계획을 털어 놓았다.

304회때부터 6년동안 진행 해온 도현 스님(서울 상도동 정혜사 주지)은 "방송나간 다음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혜자들을 찾아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다"며 "우리 주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루빨리 무거운 업연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따뜻한 보시행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오는 10일 방송될 6백회 특집 '새로운 시작, 함께 여는 세상'에서는 지난 6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중 시각장애우들에게 '책상용 확대독서기'와 '간편형 확대 독서기'를 지급하며 청취자들과 결연을 맺어주는 내용을 방송한다. 한편 '거룩한 만남' 제작진은 이날 행사장에서 시각장애우들에게 큰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이 담겨있는 '걸림없이 살줄 알라'를 CD로 제작해 무료 배포했다. 김주일 기자



◇의상에 장착된 특수조명을 통해 반딧불이의 아름다움을 발레로 표현한 김민정 발레단의 '無, 반딧불'.

詩 '승무' 창작발레로 무대서 환생

김민정 발레단, 14일 '無, 반딧불' 공연

조지훈의 대표시 '승무'가 현대식 창작 발레로 무대에 올려진다. 김민정 발레단은 14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無, 반딧불' 두 주제로 공연한다. 특히 '無'는 시 '승무'를 바탕으로 불교적 사상을 모던 발레화 시킨 작품이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박사고깔이나 하이얀 고깔은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평온의 상태 즉 '무(無)' 사상이 몸짓언어로 표현된다. 넘침과 부족함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만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종교적인 승화가 이루어진다는게 주요 줄거리다.

2막에서 올려지는 '반딧불'은 총 다섯 장으로 나뉘어 진다. 음악의 템포에 맞춰 반딧불 요정들이 춤을 추며, 의상에 장착된 특수 조명을 통해 어두운 밤에 출현하는 반딧불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무대에 펼쳐진다. 김민정 발레단원 10여명이 요정으로 출연하는 이 공연은 굳이 장르로 따지자면 클래식 모던발레다. 컴

無사상 몸짓언어로 표현

반딧불의 서정적 美도

컴한 조명아래 바하의 고운 클래식 선율에 맞춰 날쌘 반딧불 요정들이 허공에 가르는 앙징맞은 춤사위만으로도 충분한 볼거리다.

김민정씨는 "조지훈님의 시에 나타난 '승무'는 인간 번뇌의 종교적인 승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공연에서는 고요하고 정제된 동양 음악에 맞춰 선(禪)적인 절제된 동작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해석하는 승무의 정신 즉 '무(無)' 사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017)505-5134.

김주일기자



◇지난해 경기도 문예예술회관에서 열린 수원포교당 주최 음악회에서 연합합창단이 교성곡 '지장경, 찬 불밭에 피는 꽃'을 연주하고 있다.

차세대 불교음악의 젊은 주역들

성도재일 기념 작은 음악회 열어

조계종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원장 성관스님)은 9일 오후 8시부터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에서 '젊은 불자 음악인 작은 음악회'를 연다. 부처님되신날(성도재일) 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는 도림스님(수원 포교당 기획국장)의 법고로 문을 연다. 이어 불자 소리꾼 한승석씨(국립극장 창극단원)가 비나리 축원을 덕담 형식으로 들려주며, 17년 전통을 자랑하는 어머니합창단이 가요 '동행'과 찬불가 '당신의 미소'를 합창한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주역들은 역시 젊은 불자 음악인들. 이날 공연을 위해 멀리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바리톤 손현승(뉴욕 메네스 음대)씨는 찬불가 '길을 갑니다'와 이태리 가곡 '그대에게 내말 전해주오'를 부른다. 또 창작 음악그룹 '푸리' 단원인 김응식씨는 피아노와 꽹가리, 장고 시나위에 맞춰 '진도아리랑' 등 민요를 연주한다. 이외에도 유훈석씨(중앙대 음대 조교)가 지휘를, 함경아씨(수원포교당 반주자)는 피아노 반주를 한다.

특히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에 테크노 리듬을 붙여 테크노 가수 나

'테크노 부처님' 등

다양한 장르 '눈길'

진아씨와 수원포교당 소속 대학생 6명이 함께 춤추며 부르는 '테크노 부처님'은 이번 행사의 깜짝 이벤트로 무대를 열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성관 스님은 "차세대 불교음악의 주역으로 활약할 젊은 불자 음악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부처님되신 큰 뜻을 기려 이번 음악회를 기획했으며, 5월에 부처님오신날을 다시 기리는 뜻에서 불자 가수와 연예인 등을 초청한 산사음악회를 열것"이라고 말했다. (031)255-2692

김주일 기자

새해 가볼만한 강좌·전시회

전통사찰 음식특강 열어

죽순이용 김밥만들기 등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 스님)는 '초중고교사 및 단체급식 담당자'를 위한 '제1기 전통사찰음식특강'을 연다.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강좌에 가면 방부제나 색소가 들어간 햄과 소시지 대신 죽순과 취나물을 이용한 김밥만들기, 냄새가 나지 않는 청국장 끓이기, 두부와 대추를 이용한 완자요리 등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두부버섯을 이용한 요리 △아토피 피부염 예방 및 치유식단 △담백하고 정갈한 김치장아찌 만들기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꽃요리 등을 강의한다. 수강료는 교재와 재료비 포함해 20만원.(02)355-5961

기공요가·명상수련

법명사, 2월28일까지

인천 법명사는 2월 28일까지 '정신차리고 조화롭게 잘살기 위한 기공요가 및 명상 수련' 강좌를 개설한다.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10여년간 기공과 요가를 수련한 태광스님이 지도한다. 시간은 오전반 11시부터, 저녁반은 19시부터다.(032)576-9741

한자교육 고전강좌 특강

전통문화연, '명심보감' 등

전통문화연구회는 3월 28일까지 한자한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전강좌' 특강을 마련한다. 교재는 <명심보감>과 <사자소학>이며 무료다. 또 사이버서당에서는 교육한자 특강을 비롯해 논어, 맹자, 대학 등과 경전 공부, 전통문화 특강 등을 개설한다. (02)762-8401, cybersodang.co.kr

'…희망 지킴이 羊' 전시회

민속박물관 4코너 마련

국립민속박물관은 3관에서 '평화와 희망의 지킴이, 양(羊)' 전시회를 개최한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양이 지닌 순박하고 평화로운 상징적 의미를 풍부한 자료와 만화로 선보인다. 1부 '자료로 보는양', 2부 '만화로 보는 양 관련 민담이나 속담', 3부 '생활속에 깃든양', 4부 '연하장 만들기와 사진 촬영하기' 등 총 4개의 코너가 마련된다. (02)720-3138

문화소식

새회장 박현수씨

동국불교미술인회

동국불교미술인회는 1일 회장에 박현수씨(사진), 부회장에 이재순씨 등 7명의 이사와 감사를 임명했다.

신임 박현수 회장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지만 동국미술인회가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순회 전시를 비롯해 10월에는 <알기쉬운 불교미술>을 보완한 증보판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 동국불교 미술인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www.donggukart.org

전통차 만드는 법

생강대추차

대추 100g, 생강 50g, 설탕 1컵, 꿀 3큰술

1. 대추는 씻어 건져 속씨를 제거한 다음 잘게 썬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 곱게 채썬다.

2. 설탕과 꿀을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 서서히 녹여 시럽을 만든다. 병에 대추와 생강 썬 것을 담고 설탕시럽을 넣어 보관한다.

3. 재어 놓은 대추와 생강 1큰술 담아 끓는 물을 붓고 잣을 띄워 마신다.

모과차

모과 2개, 설탕 2컵

1. 모과는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긴 다음 4등분하여 얄팍하게 썬다.

2. 썰어놓은 모과와 설탕을 번갈아 담고 뚜껑을 덮어 익힌다.

3. 주전자에 물과 함께 넣어 끓인 후 잣을 두어 개 띄워서 낸다.

국화차

황국 4큰술, 물 5컵, 설탕

1. 국화 꽃잎은 소금을 넣은 뜨거운 물에 데쳐낸 뒤 소쿠리에 건져 냉수로 헹구고 물기를 빼낸다.

2. 그늘에서 말린 국화를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해 둔다.

3. 찻잔을 뜨겁게 해 두었다가 국화 꽃을 서너 숟가락 넣고 끓는 물을 부어 마신다.

칡차

칡뿌리 20g, 물 15컵, 설탕

1. 준비한 갈근을 깨끗하게 씻는다.

2. 탕관에 갈근과 물을 붓고 끓인다.

3. 갈근이 우러나면 찻잔에 따르고 설탕이나 꿀을 타서 마신다.

따뜻한 전통차 한잔

추위·피로 '싸~악'



◇깊어가는 겨울, 따뜻한 차 한잔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과음·감기 기운땐 칡차 생강차 대추차 좋아

귤차, 신진대사 촉진 식욕·피부미용 효과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를 위해, 힘든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 보자. 정성을 다해 만든 차(茶) 한잔은 추위를 떨쳐내고,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데워주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중국 당나라시대의 문인 육우는 <다경(茶經)>에서 '차는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풀어주며 두통을 삭여주며 눈을 맑게 해준다' 고 적고 있다. 또한 차는 피로를 풀어주고 입맛을 돋우며 소화를 촉진시켜주거나 추위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차를 즐겨 마셨으며, 차를 마시는 일은 하나의 '문화' 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강 · 오미자 · 구기자 · 칡 같은 한방차도 나름의 약효로 사랑 받고 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칡차와 생강대추차가 좋다. 칡은 해열작용과 숙취해소기능이 있어 과음을 한 다음날 마셔도 효과가 있다. 대추는 변비해소, 해열, 감기예방에 좋다. 또 간기능 회복과 이뇨작용 등 독성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신경안정 효과가 있어 예민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좋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 손발이 차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유자차와 귤껍질차, 국화차도 감기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즐기는 건강식품이다.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식욕을 돋우며 피부미용과 감기에 효과가 있다. 귤껍질에는 과육의 4배나 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 국화차는 신체리듬을 조절해주며 해열, 해독, 감기로 인한 두통, 현기증, 부스럼 등에 좋다. 국화는 노란국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한방약국에서 말린 것을 구할 수 있다.

오미자차는 혈액 중 혈당치를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으로 갈증이 심하게 나는 사람은 장기복용하는 것이 좋다. 오미자차는 끓는 물에 오미자를 10분간 넣었다가 꺼내 마셔야 시큼한 맛을 내는 산이 끓어 제대로 된 맛이 난다. 구기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며 기미 · 여드름에 좋은 미용차로도 인기가 있다. 여수령 기자

먹고 남은 찻잎은 이렇게

▷탈취제로 사용=차 찌꺼기를 말려두었다가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주변에 뿌려두면 벌레를 막고 냄새제거에 도움이 된다.

▷목욕제로 이용=찻잎을 면주머니에 넣어 물에 띄워두었다가 목욕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피로회복에도 좋다.

▷입냄새 제거=입안의 음식냄새를 제거하려면 찻잎을 4~5분 정도 씹어 준다.

▷가구냄새 제거=가구를 처음 구입해 냄새가 날 때는 찻잎 담근 물에 걸레를 적셔 닦아내면 냄새가 말끔히 가신다.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김치찌개



묵은 김치 1/2포기, 느타리버섯 300g, 청 · 홍고추 1개씩, 소금 약간, 들기름, 고추장, 된장, 설탕 약간

1. 김치는 포기를 반으로 가른다.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 놓는다. 고추는 어슷 썬다.

2. 잘 달군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①을 넣어 볶는다.

3. 적당히 볶은 후 간을 보아가며 된장, 고추장, 설탕을 넣고 더 볶아 구수한 맛을 낸 후 자작하게 물을 붓고 푹 끓인다. 마지막으로 어슷 썬 고추를 넣는다.

자료제공=선재사찰문화연구원

'e가계부' 쓰세요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서 서비스
거래 자동입력 · 카드사용내역 관리

알뜰살뜰 한 해 살림을 시작하려는 주부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e가계부' 를 권한다. e가계부는 금융 거래내용이 자동 입력되고 대출, 카드사용 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등 편리한 기능이 많다.

현재 한국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e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홈페이지나 전문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뒤 은행 계좌와 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면 매일 사용 내역이 자동 입력된다. 수입이 비슷한 다른 가정과 지출 현황을 비교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씀씀이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기능도 있다.

네이버(www.naver.com) 인터넷 가계부 서비스는 현금, 신용카드 거래, 증권, 보험 등 금융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그래프로 볼 수 있다.

우리은행의 이클립스(www.wooribank.com)는 수시 입출금식 계좌뿐 아니라 정기적금과 해외 인터넷 뱅킹까지 등록할 수 있다. 여자와닷컴 e가계부(www.yeozawa.com)는 수입과 지출, 통장, 카드 등을 정산일에 설정해 두면 해당 날짜에 e메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황혼

어둠 속으로 잠기기 직전의 해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불태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황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은 황혼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황혼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 주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지니고 있는 한 부인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여명을 새벽이라 하듯이 노을이 스러진 후의 으스름 녘도 황혼이라 할 수 있겠지요? 80세가 넘으신 저의 어머니가 황혼기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하는 건 좀 우습겠지만 전 아직 저의 어머니가 황혼기에 머물러 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의 남은 빛으로나마 어머니를 아름답게 가꾸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며 저를 쳐다보고 있는 부인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충청도 두메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가 농사만 지어서는 사남매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 오신 것은 어머니가 30살이 되던 해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오신 부모님은 땅 마지기를 판 돈으로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한기 틈틈이 남편에게서 배운 읽기와 셈하기는 큰 보탬이 돼 어머니는 처음부터 장사하는 일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서울로 이사온 두 분은 남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남보다 늦게 가게 문을 닫으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가게 안엔 물건이 쌓이게 되고 세 들어 살던 집도 사게 되어 서울에 입성한지 10년 만에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리를 당당히 굳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무렵, 그러니까 정확히 어머니가 40세 되던 해에 태기가 있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저를 찾아 온 부인이라 합니다.

넷째를 낳은 지 12년 만에 태기가 있자 난감해진 어머니는 복대를 단단히 하고 다녀 주위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7개월이 되도록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합니다. 뒤늦게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안 아버지는 너털웃음을 웃으시면서 기뻐하셨는데, 그 아버지는 막내딸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덮친 불행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어머니는 곧 절망을 딛고 굳건히 일어나 혼자 힘으로 5남매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아버지 몫까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행동도 거의 남자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남매는 어머니 가슴 속에 슬픔이나 절망 외로움 같은 감정이 흐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스스로 약해지는 자신을 추켜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부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셨던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가를 자신도 가정을 이루어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작은 노새가 자기 몸의 몇 갑절 되는 짐을 지고 굽이굽이 산모롱이 길을 걸어온 것 같은 어머니의 지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 힘도 없는 한 여인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고 감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황혼 속 어머니 가슴에 사랑을 가득…

이제 80 노인이 된 어머니는 더 나아가려 해야 나아갈 길이 없는 막바지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런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마지막 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드릴 수 있겠느냐고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키워 온 게 부모님의 몫이었다면, 늙은 부모님이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자식의 몫이 아니겠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슴 속이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따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군요. 생을 마감하는 사람 가슴 속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하고 있는 제 머릿속엔 12월의 달력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해도 그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모두는 아름답게 한 해를 살아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입니다.

化緣 (02)704-3577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화 샤카족의 탄생 ①

감히 "부처님"을 그리면서

불교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온 우리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옛 불교인들이 성인의 모습을 지나치게 허황된 모습으로 형상화시키고 과대 포장하는 바람에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마치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저 순수하게 인간 싯달타의 발걸음을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가 위대한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훨씬 더 진실되고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나는 이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회화극본(繪畵劇本)으로 꾸며 보려 한다.

부처님 일생을 그리는 이 엄청난 성전(聖典)의 제작은 철저한 고증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처님의 활동무대를 현지답사해 가능한 세밀한 스케치로 자료를 삼았다. 이 일은 본인의 민족사 복원서인 <대쥬신제국사(大朝鮮帝國史)>를 그리면서 수년간 만주지방을 헤맨 경험이 있어 꽤나 자신이 있었던 일이다. 그저 현장에 가서 성전에 기술된 대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신문기자가 현장르포를 쓰듯 하면 될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부처님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돌 조각이나 색바랜 그림의 흔적을 여러 동굴 속에서 찾아내 그것들을 세세하게 분석하며 스케치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들을 놓고 막상 원고를 그리려다보니 부처님 시대의 생활습관이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의 사람들로선, 모든 것을 그들이 익숙해진 서양식 윤리관과 도덕적 관념의 잣대로 바라볼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여인네들의 노출 등이 그것인데, 그들의 입에 오르내림이 두려워 나체의 여인들에게 근거에도 없는 옷을 입혀 놓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사실 부처님의 유적지에서 발견한 조각상들 중엔 상당량의 '미투나(男女合歡)' 조각들이 보였다. 처음엔 평생동안 나부(裸婦)들을 그려온 나에게도 쳐다보기가 좀 민망스러웠다. 그러나 차츰 깊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 속에 놀라운 차원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깃들여져 있음을 보고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슬람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중세까지 인도인의 사고방식에는 아직 성(性)에 관한 터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녀간의 육체교합도 일상적인 행위, 즉 노동의 행위, 식사의 행위, 혹은 신(神)에게 기도하는 행위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로 취급됐다. 오히려 힌두교의 일부 종파에서는 교합에 의한 희열을 참다운 구제에 이르는 정상(頂上)의 차원으로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B.C.1500년경의 옛 성전인 베다(veda)의 설교 속에는 반드시 관능적인 부분이 있었다. 저 유명한 '카마수트라'를 비롯하여 다른 중세 인도의 서사시속에서도 관능적인 묘사는 상징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예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생활상을 선입감 없이 보이는 대로 조각해 남겼고, 나는 그 조각상들을 통하여 옷차림 등을 복원해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재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될 수 있는 대로 순수한 회화적인 화법을 사용하여 좀더 높은 차원의 결과를 얻어 보는 것 뿐이다.

부처님 생존 당시의 복장이나 건물 등 문화적인 상황은 그런 대로 파악이 되겠으나, 부처님의 일생을 그려야하는 나에겐 성인의 참모습을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시련이 있었다. 인도 현지에는 과연 불교의 발상지답게 부처님의 모습을 담은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거의 모두가 부처님이 입멸하신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성인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들이다. 당시의 아리안인들은 부처님의 형상을 깊고 큰 눈, 그리고 높은 코를 강조하고 그들 종족의 모습처럼 곱슬머리로 만들어 놓아 도저히 부처님의 참모습으로 보기엔 옛 문헌들의 기록과 너무나 틀리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종교와 정서적으로 보아 아리안족으로 대표되는 '인도(India)'라는 지명이 산스크리트어로 '달빛이 비치는 땅'(달을 'Indu'라 하고 'Indus'는 달빛이 비취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으로 달을 상징 하는데 반하여, 부처님의 종족인 '샤카족'은 태양을 숭상하던 태양족이라는 사실이다. 또 인종적으로 보아도 옛 샤카족의 영토였던 지금의 티벳지역 사람들이 모두 동양적인 용모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의 지배족인 아리안족은 중앙아시아 계열의 서구적인 형상을 하고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바로 이런 점이 부처님의 참모습을 찾아내는데 엄청난 혼란을 주기도하고, 또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다.

감히 얕은 제주만 믿고 부처님의 성전제작에 겁없이 덤벼든 나는 처음부터 모진 시련을 겪으며 이미 예고된 험난한 여정을 강행하게 되었다.

卍夢 김산호





소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의 중국문화권과 남쪽의 인도문화권을 확연히 갈라놓은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다. 히말라야는 크게 두 줄기의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북쪽 산맥은 대단히 가파르고 험준한데 비해, 남쪽산맥은 비교적 완만하여 티벳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인도문화권에서 독립된 또 하나의 독특한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히말라야'라는 이름의 어원이 우리 옛말인 희(흰) 마리(머리) 산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차츰 밝혀보기로 하자. 히말라야 산맥은 그 험준한 산세(山勢) 때문에 외래민족(外來民族)의 침입이 용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침입에 성공한 외래민족의 탈출 또한 쉽지가 않아서 대체로 그들의 문화와 함께 인도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빨려 들어가며 토속문화와 동화(同化)되고 마는 특징이 있다. 이점은 산맥의 건너편에 있는 중국쪽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어서 흥미롭다.

인도에 대한 히말라야 산맥의 결정적인 공헌은 매년 6월 중순부터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계절풍을 막아 되돌려 세우며 삭막한 인도땅에 비를 내려주는 것이다. 이 비들이 모여서 인도의 생명수와 같은 인더스(Indus)강과 갠지스(Ganges)강을 만들게 된다. 인더스강이 서쪽으로 흘러 아라비아해로 들어가는데 반하여 갠지스강은 동쪽의 벵갈만으로 흐른다. 이리하여 이 두 강을 끼고 찬란한 인도 문화가 꽃피우게 된 것이다.

설산(히말라야)의 남쪽, 성지 룸비니가 있는 네팔지역의 샤카족 출신인 부처님은 지역적으로 근접한 인도땅으로 내려와 불교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주요 활동무대가 바로 갠지스 강 줄기의 유역인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시베리아 남쪽일대와 투르케스탄(Turkestan) 일대에 살고 있던 일단의 유목민족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아리안족이라 한다. 기원전 13세기 경, 아리안족의 일단이 히말라야산을 넘어, 푼쟈브 지방으로 침략해 들어왔다. 아리안족은 인류 3대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화를 일으켰던 문명한 현지인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때까지 번영해 왔던 인더스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며 정복자들의 새로운 아리안문화를 꽃피워갔다.

아리안문화는 한마디로 '카스트(Caste)'로 정리할 수가 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카스트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정복자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정복민족인 원주민들을 일거에 노예로 전락시켰음을 뜻하는 것이다. 최초의 아리안들은 흰 피부에 높은 코, 그리고 압도적으로 큰 몸집으로 오늘날의 유럽인들과 비슷하였다. 그에 반하여 인도의 원주민들은 검은 피부에 왜소한 체격으로 그 피부의 색깔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카스트를 구별할 수 있었다.

카스트의 최상급은 '브라만(Brahman)' 계급인데 이들은 신과 통하는 무당과 같은 계급으로 신(神)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을 담당하고 씨족의 안녕을 지키는 행위 일체를 담당하는 사제(司祭) 계급인 것이다. 씨족의 제정일체(祭政一體)를 책임지는 브라만은 과연 씨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역량이 있어야만 했다. 이때 이들에겐 벌써 리그베다(Rig-Veda)라 불리는 인류 최초의 성전(聖典)이 있어서 그들의 신을 찬미하는 엄격한 법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브라만'의 뒤를 이어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는데 브라만은 종교적인 특수계급이므로 실제의 지배계급은 바로 이 크샤트리아로 주로 무사들이었다. 그 아래 보통 평민은 '바이샤' 계급이며, 사회의 최하층인 노예 계급을 "수드라"라 불렀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짜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진실하게 믿으려면…

주인공·주장자에 일체를 맡기면 내 마음·가정·조상 모두가 편안

문 마음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근본에 입입하는 생활이 되지 못한 채,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듯 한해를 지내고 나니 허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진정코 이 생이 다하기 전에 저의 근본, 반야즐을 놓치지 않고 진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 바랍니다.

답 부처님 법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이 함니좋나 나투는 생활이지만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만들어 놓고, 공간도 만들어 놓고, 날짜도 만들어 놓고 해우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는 한층 더 분발해서 자유스런 계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물에 가면 싱그럽고 참 좋죠? 이 세상 만물이 다 내 스승이 아니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은 날더러 말없이 살라고 하고 꽃도 나갑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모진 풀뿌리를 봤을 때도 그 풀뿌리가 나를 보고서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나갑이 살라 하니 내 스승 아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하게 믿되 믿는 것을 바깥으로 믿지 말고 안으로 진실하게 믿고 말겨 놓는 작업을 할 때에 일체 만법이 다 그 속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까 그 속에다 말겨놓는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실하게 구하는 법도 나오고 진실하게 깨닫는 도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인공을 찾다가도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일에 부딪히면 안으로 놓기 이전에 바깥으로 끄달리곤 합니다. 안에다 를을 찍어 바깥의 나무들이 잘 자랄 텐데 말로는 주인공에 놓는다고 하고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과 믿음이 진실해야만이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고, 모든 경들로 보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나한테 서만이 이끌어줌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모든 해결을 그 속에서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깨달게 하는 것도 그 속에서만이 깨달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진실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곧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울은 것은 울게 안으로 넣고 밉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철 나와서 부딪침이 없다면 또 다시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한 철 살 때에 부지런히 해서 깨달아야만 요 다음 생에, 아니 나고 들고 하기 이전에 생하고 멸하고 하기 이전에 자유스럽게 보고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자유스럽게 내가 직접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로소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인 것입니다.

급할 때 관하는 방법?

문 현대불교를 통해서 마음공부를 시작한 불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급전적인 문제나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때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마음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한마음에 어떻게 의지해서 수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마음을 관(觀)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답 사람이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게 없는 거니까 간단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가 죽는다면 아예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말 거기 붙을 게 없죠. 그래서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도 죽고, 세 번째도 죽으라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지금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하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어린 다섯 남매를 데리고 사글세에 들어 있었어요. 우리 절에는 두 번 왔습니다. 두 번째 와서는 "어떻게 해야 삽니까?" 하고선 울어요. "우리 같은 형편에 스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뜻이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지요." 이러고는 묻는 겁니다. 그러고는 "지금 당장 내쫓기게 생겨서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공부를 적응해서 배우며, 지금 급하게 난관에 처해 있는데 그 공부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마음공부가 거기에 해당합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고 말고!" 그랬습니다. "너 하나만 죽는다면 그까짓 것 뭐, 시간이고 애고 어른이고, 다 너라는 것 하나만 죽는다면 된다.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말겨놓고, '주인공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붜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 아예 그냥 말겨버리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하고는 그냥 말겨버리고는 거리로 나앉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걸 아예 포기하고 다 놔라." 이랬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벗어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간는 한 번 죽을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길가로 나앉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이라는 지붕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다 내던질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오히려 솟아날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살려고 버둥대는 '나'라는 의식들만 잔뜩 쥐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면 마음은 마음대로 괴롭고 형편은 형편대로 곤두박질을 칠 뿐인 것입니다. 다 버리면 다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왕 죽으려고 나왔으니 나는 없소 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쉬어본다면 오히려 삶의 다른 면을 맛보게 되어 한 걸음을 환입게 내디디는 결과가 있게 될 겁니다.

계속 살아야 하는 까닭은?

문 아리석은 질문에도 항상 친절히 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님은 항상 세상과 자신을 들 아니게 보라고 하시지만 세상과 들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를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저와 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뺏고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고통뿐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많은 이의 희생이 있어서겠죠. 결국 제가 누군가에게 잡혀 먹힌다 해도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잘 생각해 보면 모두가 내 아님이 없어서 싸울 필요가 없겠지만는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수억 광년을 거치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또 진화되고 형성되고 해서 고등동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헤아릴 수 없이 해 나왔겠죠. 지금도 사람까지 올라와서도 내 부모 아니고는 남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레로부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해서 형성해 올라온 자체를 볼 때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두가 그러한 것이기에 부처님께서는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항상 한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나를 그토록 어렵게 사십니까? 50%의 물질로서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따히고 걸리고… 다시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극한 일이 터졌을 때,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치를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항상 자동차를 자기라고 해요. 나무로 치면 뿌리를 자기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싹을 자기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다라고 그래요. 즉 말하자면 싹은 뿌리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야만이 싹이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무르익어서 남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세세생생에 끊임없이 아마 베쫄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넉넉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하고 본래는 주인공이란 이름조차도 방편입니다. 하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줬고 시삼마라는 화두를 선지식들이 가졌고 그랬는데, 이뭐꼬나 시삼마나 바깥으로 글릴 필요가 없이 직행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주인이며 공이다 이겁니다. 공이면서도 색이니 부좌돼 있다, 형성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형성시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다녀요. 이거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단 반 시간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일할 때도 좋고 설거지 할 때도 좋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좋고 빨래를 하면서도 좋고, '주인공이 모든 걸 일체 다 하는 거지.' 하고 관하세요. 앞에 급한 게 부딪쳐더라도 주인공에다가 다 일임시켜 버려요. 놔 버려요. 그러고 믿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해가지고 법써 보이는 데로 나와요. 이 세상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속으로 먼저 이렇게 해야겠다는 설계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정말 나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우선 나를 형성시킨 주체가 내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곧바로 잠고 들어가는 관법을 꼭 익혀서 자신이 존재하는 뜻을 다 깨우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문 자비로우신 가르침을 청합니다. 제가 엄마 전에 부적을 써 주는 분을 만나 그분의 지시대로 큰돈을 들여 부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업장이 너무 두터워 자력으로 닦아내기는 어려우니 이 부적을 지니면 업장 소멸과 액운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하시며 그걸 지니고 열심히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라 그저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스님의 법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뵙게 되니 제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스님! 그것도 하나의 길이 맞는지요? 아니면,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려는 이 생각마저 놓아야 하는 것인지요? 높으신 가르침을 갈구합니다.

☞ 30면으로 계속

☞ 29면에서 계속

여여한 자성불에 코드를 꽂으세요

답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삼천대천세계 우주 법계를 다 싸고도는 대표인으로서의 인간이 없다면 대표인이 못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 그 법계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주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란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응하면서 정원을 꾸며놓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지구덩어리 하나가 바로 당신네들 집입니다. 안식처고, 그런데 단란하게 살고 여여하게 살지 못한 채, 남한테 이런 소리 듣고 바람이 부는 대로 쓸린다면 갈대와 같은 거지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이 지구덩어리뿐만 아니라 우주 천체 법계가 다 내 한마음에 들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사람이 돼서 나오기도 어렵거늘, 사람이 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부자을 써서 불인다, 부적을 써서 재수가 있게 한다, 아픈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부적을 붙인다, 관재구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인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마음에 일체 만법이 다 있거늘 어찌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모르고들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 모르고 하는 것을 알게끔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르고 그런 행을 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바로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가 노력을 해 봤던들 이익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윤회에 걸려서 항상 고달리면서 삼계의 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뜻 자체가 잘못돼 들어가기 때문에 망언을 하게 되고, 또는 부처님의 뜻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를 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외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외도가 외도가 아닌 줄 알고 외도 아닌 것이 외도인 줄 알고, 이것이 들이 아닌 줄 알 때 비로소 대공이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감을, 우리는 전체가 공했다는 걸 알게끔 되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공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 공한 것이요, 보이는 물질은 물질대로 영원치 못하니 공한 것이요, 모두가 공했습니다. 일체가 다.

그래서 물질은 나오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마는, 물질 아닌 내 생명의 실상은, 절대로 이것은 나오고 들어갈 도 없는 것이요, 곁덤도 없는 것이요, 죽는다 산다도 생사 윤회도 없다는 얘깁니다. 걸리질 않는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꼬박 앉아서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냥 손을 꼽고 잠되게 해탈라고 그래서 잠되는 게 아니에요. 깊을 겉다가도 차를 타면서도 똥을 누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내 마음 그 가운데에 좀 불성 자체는 항상 꺼지거나 켜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가 발전소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그 자가발전소의 에너지는 무한량으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며, 밝은 달과 갚고 해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여한 자부처의 그 늠름한, 여여함을 두고도 자기가 코드를 거기다 꽂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코드를 안에다 꽂으십시오.

만날 남한테 빌고만 다니지 마시고요. 잘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재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슨 삼살방이 들었으니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무슨 또 어디로 가면 막혔으니, 북쪽이 막혀서 이사를 못 가겠는데 어디로 꼭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외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데도 급급하고, 사랑을 하기에도 24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쳇바퀴 돌듯 사람이 살아 나가기 여러분 앞에 나투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농부네 집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 3대째 가난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게 없고 이러니 우리 대에는 밥이라도 굶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에는 자식들에게 농사 짓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가르쳐야 하니 이거를 어쩝니까?" 하고 항상 새벽이면 엎어나 앉아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스님이 하룻밤 묵고 가면서 물었어요. "댁은 뭐 때문에 새벽에 앉아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우리가 지금 3대째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주는 공부를 시켜서 집안을 좀 세우게 해 달라고 지금 빌는 겁니다." "그래 매일 그럽니까?" "매일 그렇게 합니다." "어느 때부터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일년 팔 개월이 됐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고 그러고선 갔는데 그렇게 보고 간 게 인연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믈고 간 게 인연이 돼 가지고, 그 해에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잘 돼서 와 가지고선 "애, 우리 동네 가서 장사라도 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농사는 작은 동생한테 맡기고선 건어를 도매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선 큰돈을 벌었어요. 큰돈을 벌어서 자식들 대학원까지 다 가르치고 그렇게 일어나더니 늘그막에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게 하고 아우는 아우대로 집을 지어서 내주고 자기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큰 집을 짓고선 땅과 논을 사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 얘깁 들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극하면 지극한 보람이 있고 자기 한 것만큼은 꼭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이 회사를 하는데 조선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만날 발길로 차고 때리고 이래서 맞고 막 부르트고 그래도 겸손하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 사람이 8·15 해방되기 전에 데리고 와서 가르치던 남자한테 그 회사를 팔기고 자기는 큰 회사를 냈어요. 그런데 왜 거저 줬느냐면 세상에 10년이 되도록 때려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보상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고 준 거예요.

처음엔 지켜보지 않았지만 나중엔 지켜보다 지켜보다, 너무 길게 가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구나." 하고선 내주는 법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질고 그렇긴 하지만 보수를 갚는 데 대해서는 아주 끌고 맺는 듯이 갚아요. 그러고 나쁘게 했다 하면 끊고 맺듯이 또 갚습니다. 무서워요. 아주.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다 마음을 잘 쓰면, 마음을 잘 쓰면서 믿음을 가지고 망하든 흥하든 그걸 버리지 않고 가다보면 언젠가는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착한 사람은 못생고 웬만하게 그저 악한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런 말들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착하다 그래서 너무 착한 일만 한답시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도 "너 먹어라!" 이렇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다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 놓고서 모든 것을 일임하고 정도에 넘치지 않게 잘 판단을 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여러분의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저렇게…하라는 대로 어찌 내 운명을 남에게 맡겨요?


그림 · 최주현

마음이 지극하면 지극한 보람이 있고 자기 한 것만큼 이루는 것도 있는 법

부처를 이루는 과정

문 저는 이 생 안에 내 안의 중생들을 조복 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가능하다면 스님들처럼 몸바꿀 준비를 다 해놓고 조용히 앉아서 생을 마감하고픈 보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집 근처의 절에 매일 매일 다니면서 시민선방에 입재하여 몇 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절에 계시는 스님께서 "여자는 일곱 번 죽었다 깨나야 성불하고 남자가 돼야 성불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더욱 정진하라고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여자의 몸을 받은 지금의 상태로는 성불을 할 수 없는 것이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여자 남자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떻게 마음이 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근본 씨는 들이 아니에요. 동쪽과 서쪽이 들이 아닐지언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사람 눈도 수가 없이, 헤아릴 수가 없이 눈이 많은데 생각이 어찌 한 생각뿐이겠느냐 이겁니다.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한순간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일체 만물이 다 될 수 있는데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갈라놓고, 성불을 하느니 못하느니 한다면 안되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참 묘한 법이 있어요. 아까 눈이 많다 그랬죠?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합지라도, 모습은 컵이라 합지라도 이 컵이 별의별 역할을 다 해요. 뜨거운 것도 담았다 찬 것도 담았다, 커피도 담았다 인삼차도 담았다, 별 거를 다 합니다. 근데 모습은 하나인데 그 모습의 분신은 수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갈망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고 또는 부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부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산신을 갈망하는 사람한테는 산신으로도 나툴 수 있고, 또는 용왕을 내가 생각하고 구원을 청하면 용왕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갖은 모습으로 다 때부터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일

모든 것 내던질 수 있는 마음이면 오히려 '솟아날 구멍' 생겨나요

버리지 않고 가다보면 언젠가는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착한 사람은 못생고 웬만하게 그저 악한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런 말들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착하다 그래서 너무 착한 일만 한답시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도 "너 먹어라!" 이렇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다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 놓고서 모든 것을 일임하고 정도에 넘치지 않게 잘 판단을 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여러분의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代)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동영상 서비스로 법공양 해요”

일요법회 녹화 홈페이지에 제공 법장사 지철 거사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일요일인 29일 10시 30분. 서울 신내동 무진법장사의 일요법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철거사(본명 한진섭 · 50 · 서울 역삼동)와 딸 경진(20)양은 트라이포트 위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등 분주하다. 잠시 후 법회가 시작되자 지철거사는 캠코더 녹화버튼을 누르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법회 내용을 카메라에 담는다. 법회가 끝나기 무섭게 지철거사는 집으로 돌아와 오후내내 컴퓨터를 활용,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해 이를 법장사 홈페이지(www.bupjangsa.org)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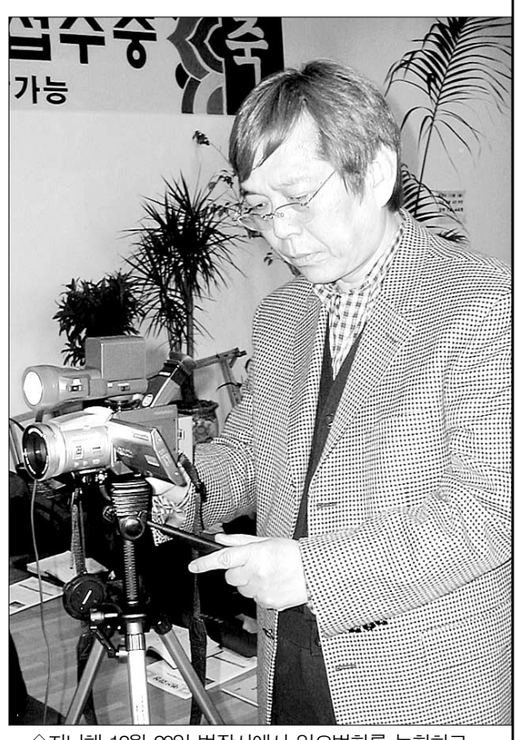
취미로 익힌 캠코더 촬영·편집술 이용

스님법문 97건 저장…70~80회 접속

부처님 오신날, 성도재일 등 법장사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캠코더를 들고 있는 지철거사.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지만 법회내용을 촬영해 법장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회에 나오지 못하는 법우들을 위해서다.

법장사 창립 맴버이자 거사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철거사는 가끔 집안사정으로 인해 법회에 나오지 못한 법우들에게 스님의 법문을 다시 듣고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에도 정보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법우들을 위해 취미로 즐겨온 동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을 활용, 법회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발심했다.

동영상 전문 편집 컴퓨터와 장비가 천만원을 호가하지만 더 많은 법우들이 스님의 법문을 들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영상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사찰 역사의 기록으로 남고 특히 영상세대인 청소년 포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장비를 구입해 인터넷 법보시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법장사 홈페이지 서버의 용량 문제로 동영상 보다는 주로 음성 법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장사에서 일요법회를 녹화하고 있는 지철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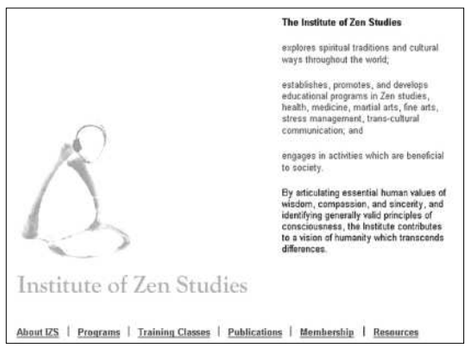
법장사 홈페이지에는 현재 지철거사가 올린 동영상 파일과 함께 스님의 음성법문 97개가 올라와 있으며 평균 7~80회의 클릭수를 자랑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실제로 해외에 이민간 신도들도 일요법회 동영상을 보며 법장사와의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법장사 주지 퇴휴스님은 “인터넷의 발달과 주 5일제 실시로 사회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타종교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며 “지철거사가 제공하는 법회 동영상은 사찰과 불교를 알리는 좋은 콘텐츠가 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사찰에서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 회장 및 동문회장을 역임한 지철거사는 본인 뿐만아니라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법장사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등 왕성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슬하의 두딸이 모두 어린이회부터 지속적으로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고 큰 딸 경진양은 현재 법장사 중고등부 학생회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선연구학회



선연구학회(http://www.izs.org)는 하와이에 본부를 둔 선교육 사이트로 1982년 조직된 단체이다. 선에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선을 응용한 건강, 예술, 미술, 스트레스 관리, 통신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선 사이트이다.

禪응용프로그램 개발 · 운영

선연구학회는 현대 사회에 쉽게 접근하는 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법, 생각하는 법, 인식과 감성의 증가, 육체를 좋은 상태로 개선시키기, 부정의 영향 멈추기,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하기, 깨달음의 가능성 등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갤러리에서는 사원사진, 도조의 장면들, 꽃 등의 자연풍경을 다룬 사진 등 선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각종 사진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캘린더 코너에서는 선연구학회, 일본문화원 등의 관련 세미나, 강좌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선연구학회는 선 잡지와 관련 책들도 출판하면서 전문 선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IT단신

2002 대한민국 게임대상 ‘네이비필드’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와 전자신문, 스포츠조선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2002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에스디엔터넷의 ‘네이비필드’가 올해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PC게임 부문 우수상에는 나비야엔터테인먼트사의 ‘코코룩’, 온라인게임 부분 우수상은 트라이글로우픽스사의 ‘프리스톤테일’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구랍 27일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청소년영화 · 애니메이션 25일까지 하남시에 캠프

청소년 디지털 영화 · 애니메이션 제작 캠프가 20일~25일까지 6일간 경기도 하남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MBC프로덕션이 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무위주로 이뤄지며 디지털영화캠프와 애니메이션캠프 두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02)789-0115

게시판 엿보기

○…펑펑 내리는 눈발을 가르며 달리는 기차타고 떠나고 싶어라~ 떠나고 싶은 이마음은 아무래도 고칠수 없는 불치병 같아여… 푸후.

윤화섭

프리첼 감흥을 터는 사람들 게시판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조화옥

다음 소림불교학생회 게시판

○…성긴 눈발 한송이 닿아도 떨어지는 솔잎같은 그런 것이 사랑이리, 사랑합니다.

화야, 세이클럽 불교사랑 게시판

○…여기 전단의 향기와 장미의 향, 그리고 연꽃과 쟈스민의 향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모든 꽃의 향기를 앞지른다.

선덕행, 대한불교 천태종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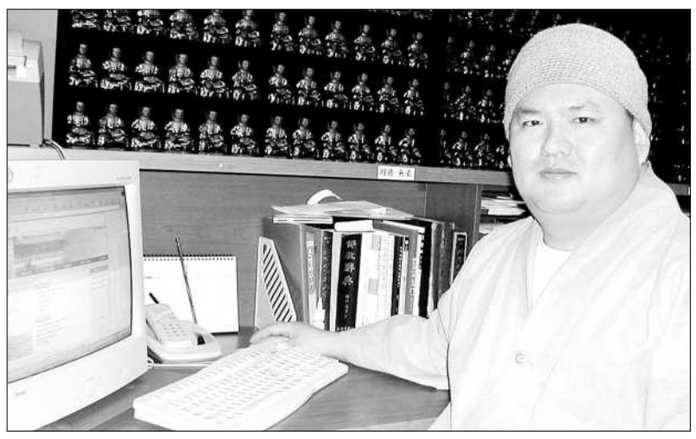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도림사

도현이(가명 10세)는 학교가 끝나면 도림사로 달려간다. 집에는 없는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대가 높고 교통이 불편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흑석 3동. 이곳은 이른바 정보 소외지역이다. 도림사(주지 성도스님)는 이같은 지역 현실을 감안해 생활복지관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2대를 설치,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사찰이라는 점이 다소 낯설기도 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찾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초 ·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도림사는 올해부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컴퓨터 및 인터넷 교실을 열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정보화 소양을 길러줄 계획이다.

신도카드 3천여장 전산화 ‘홈피’ 개설

휴대전화로 매일 법구 전달할 계획



◇저소득층 지역정보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도림사는 컴퓨터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은 무염스님의 업무 모습.

도림사가 이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염스님 때문.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하고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스님은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복지’라고 확신한다. 99년 도림사 부주지로 취임한 스님은 도림사 생활복지관을 개소하고 헬스 기구, 컴퓨터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편의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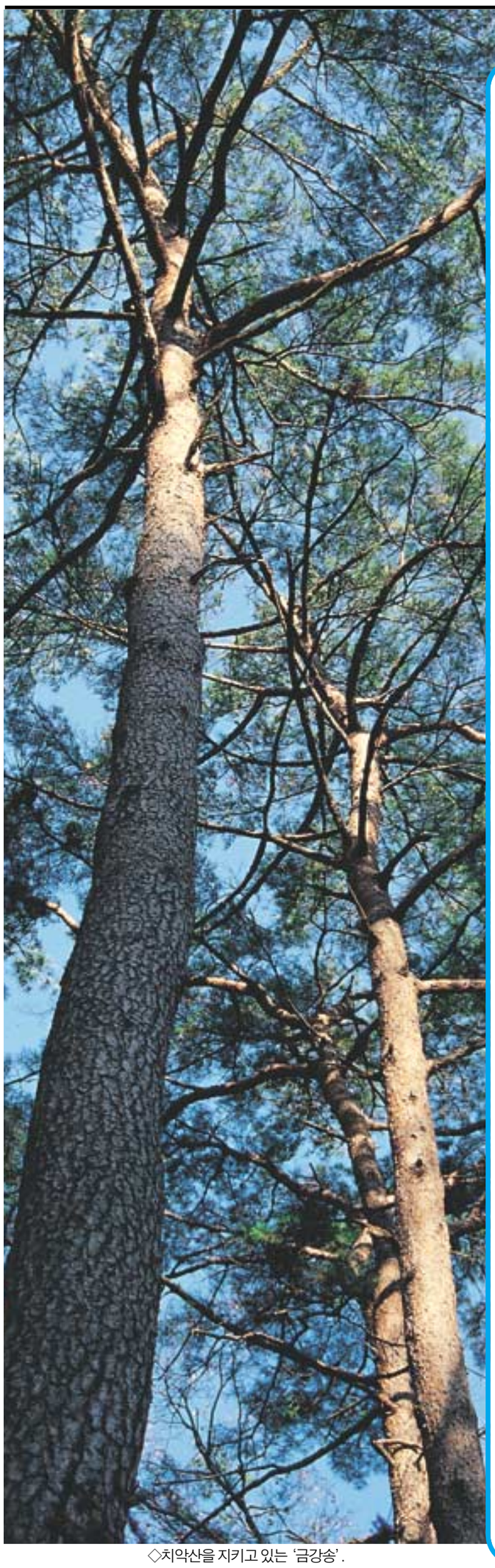
무염스님은 또 사찰 정보화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상황 사찰종무 프로그램을 구입, 종무소 한켠에 꽂혀있는 3000여장의 신도카드를 전산화했다. 아직까지 주지스님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신도카드를 그대로 두긴 했지만 신도들의 생일, 전화번호 등 수 많은 정보들이 DB화 되어 있기에 우편 발송을 비롯해 사찰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도림사는 99년 홈페이지(www.dorimsa.org)를 개설했다. 최근 새로 단장한 도림사 홈페이지에는 도림사 소개, 부설단체, 사이버 법당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지장도량으로 지장재일, 조상천도재 등을 매달 봉행하고 있는 도림사는 이같은 오프라인 법회를 홈페이지 사이버 법당 코너에서도 볼수 있도록 최근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사이버 법당을 통해 축원을 접수받아 매일 아침 신도들의 발원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핸드폰. 스님은 이 핸드폰을 활용하면 불교포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도들에게 매일 법구 한두구절을 보내겠다고 올해 부처님전에 발원했다. 또한 신도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를 확대해 모바일 불교교양대학 설립도 스님은 소망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치악산을 지키고 있는 '금강송'.

무소유의 잿빛 숲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겹치는 곳 다양한 種 나타나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 강원도 치악산 구룡사

치악산 구룡사의 겨울 하늘은 변화무쌍한 자연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천만가지 소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한다. 하늘은 앙상한 겨울숲으로 내려와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거닐며, 나무 줄기와 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다만 귀 열린 자만이 고개를 끄덕일 것인저... 숲은 겨울에 이르러서야 내밀한 자신의 속내를 보여준다. 동안거(冬安居)로 앉아있는 치악산 구룡사의 겨울숲은 단식을 끝낸 사람처럼 거칠고 야위었지만, 오히려 내면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치악산(1,288m)은 백두대간이 오대산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진 차령산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다.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북남 방향으로 매화봉-천지봉-비로봉-향로봉-남대봉으로 산줄기가 흐르고 있다. 남북 주능선을 경계로 해 서쪽은 경사가 급하고, 동쪽은 부드럽다. 서쪽 골짜기 물들은 섬강을 만들고, 동쪽 골짜기 물들은 주천강으로 흘러든다. 주차장에서 내리면 겨울인데도 상큼한 금강송 솔내음이 얼굴을 확 덮친다. 원주 치악산을 비롯해 영월 사자산, 정선 가리왕산, 삼척 두타산을 잇는 지역의 소나무들은 거의가 금강형 소나무[金剛松]이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베어지고, '못난 솔이 선산을 지킨다'는 속담처럼 지금의 솔들은 열성유전된 것들만 남아있다.

매표소에서 구룡교-구룡사-세렴폭포-사다리병창으로 이어지는 구룡계곡은 탐방객들의 잦은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비교적 튼실하다. 구룡계곡에는 곳곳에 크고 작은 소가 있다. 이 소들은 계곡의 민물고기들이 겨울을 나는 생명의 아지트이다. 물은 깊을수록 따뜻하다. 그래서 겨울이면 물고기들이 소에 모여 겨울을 난다. 구룡사 숲길은 유감스럽게도 보도벽돌길이다. 이 숲길은 낙엽 지는 떨기나무와 늘푸른나무들이 섞여 있는 혼효림이다. 떨기나무 숲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늘푸른 숲보다 회화적(繪畵的)이다. 신록의 숲을 부드러운 수채화로 비유한다면, 단풍숲은 현란한 유화에 비유될 것이다.

또, 잎을 떨군 허허로운 겨울숲은 흑백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수묵화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떨기나무 가운데 특히 신나무는 옛 스님들과 인연이 깊은 나무이다. 예전에 스님들이 신나무 잎에서 잿빛 물감을 얻어 승복을 물들이곤 했다. 잿빛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자재원융의 색이요, 무소유의 색이다. 잿빛은 삿된 것을 허허로이 떨군 겨울숲의 색을 그대로 닮아있다.

겨울철이라 곤충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성충으로 월동하는 네발나비, 청띠신선나비, 작은멋쟁이나비, 실잠자리, 등검은쌍살벌 등은 바위틈이나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것이다. 겨울동안 이들은 몸 속의 체액을 자동차의 부동액처럼 바꾼다. 열정과 욕망의 뜨거운 피를 냉정과 탈속의 차거운 피로 바꾸고서야 동안거에 드는 것이다.

허허로이 잎을 떨군 숲 사이로 새들의 지저귐이 감미롭다. 마침 오색딱다구리 한 마리가 따발총 쏘듯 나무를 쪼아대고 있다. 구룡사 숲은 딱다구리 숲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딱다구리들이 살고 있다. 까막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모두가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보금자리를 만든다. 딱다구리들의 구멍집은 가끔 다른 새들도 들어와 세를 산다. 심지어는 청솔모와 다람쥐까지도 제 집처럼 드나든다. 이렇듯 딱다구리처럼 생물 간의 상호작용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도움을 주는 종을 키스톤종(Keystones Spesies)이라고 한다.

일주문인 원통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국사단이 앉아있다. '國師'가 아니라 '局司'이다. 국사신앙은 전통불교 신앙이 아니라 습합된 전통 민간신앙의 하나이다. 국사는 형국(形局)을 주관하는 지신(地神)이다. 국사는 치악산의 산지기요, 구룡사의 숲지기 신인 셈이다. 국사당 뒷쪽 조릿대들이 낮은포복으로 산기슭을 기어오르고 있다. 조릿대는 다른 나무들의 잎새가 무성한 여름날에는 햇볕을 못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다른 나무들이 잎을 떨군 다음이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사천왕문 주변에 늘어선 잣나무는 본래 북방의 나무로, 치악산이 남방한계선이다. 만주와 일본에도 자생하고 있지만, 일찍이 우리 잣나무를 최고로 쳤다. 중국에서는 신라송이라 했고, 서구에서는 지금도 '한국소나무'라고 부른다. 구룡사 보광루는 옛스런 맛이 더 깊은 전각이다. 다듬지 않은 자연목 기둥,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막돌 그랭이, 흙을 치지 않은 판벽, 채광과 통풍을 위한 살창 등등은 보광루가 생태건축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대웅전이나 얼마 전에 불사를 마친 천불전, 심검당보다 품작이 높은 전각이다.

새로 지은 심검당 아래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보호수들은 저마다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주민등록번호가 '강원-원주-38'이다. 구룡사 주변 숲에는 박새류들이 많다. 박새, 쇠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북방쇠박새… 그리고 박새와 딱따구리의 중간 쯤 되는 동고비까지. 박새류들은 산새 가운데 사람들과 가장 친숙한 새이다. 새들은 곤충을 즐겨 잡아먹다가 배고픈 겨울이 되면 식물성으로 바뀐다. 곤줄박이는 가슴이 붉어서 다른 박새들과 쉽게 구별된다. 머리와 뺨에 나 있는 연노란색 줄도 예쁘다.무엇보다 귀여운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접근해오는 친밀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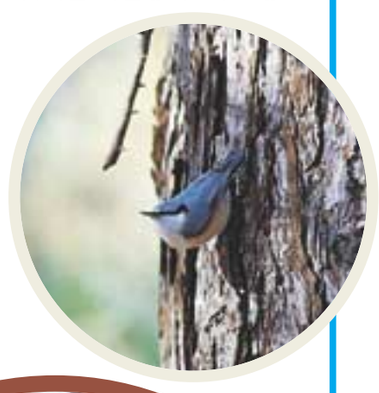
구룡소에서 대곡야영장까지는 걷기에 딱 좋은 부드러운 흙길이다. 눈맛 좋은 금강송들이 개울 건너에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큰 나무 아래 송긋송긋 솟아나야 할 어린 솔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치악산의 금강송도 저 숲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 야영장 숲을 왼쪽으로 끼고 돌면 아까 지나온 국사단에 이르는 또다른 산길이 이어진다. 인적이 드물어 더욱 호젓한 명상의 숲길이다. 20-30년생 젊은 전나무 숲이 있어서 삼림욕하기에도 좋은 산길이다. 대곡야영장에서 세렴폭포까지는 1킬로미터 남짓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소나무보다 활엽수들이 더 많아진다. 치악산은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겹치는 곳으로, 비교적 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그 가운데 옻나무는 치악산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무이다. 옻을 얻기 위해 신라 때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치악산 주변에 맨먼저 심었다. 그래서 원주지역은 지금까지도 옻칠공예가 성하다.

세렴폭포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졸참나무와 신갈나무들 군락이 심심찮게 관찰된다. 참나무끼리도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한다. 대개 갈참나무 → 떡갈나무 → 졸참나무로 숲의 천이가 이루어진다. 가파른 경사면에 졸참나무, 신갈나무, 층층나무, 까치박달나무, 서어나무, 당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들메나무, 박달나무, 까치박달나무, 물박달나무 등이 아예 얼음이 된 흰 눈을 온몸에 뒤집어쓴 채 겨울을 참고 있다. 나무들의 겨울나기는 스스로 잎을 떨구는 자기 구조조정을 거쳐서 줄기를 지상에 그대로 둔 채 의연히 견디어낸다. 잎을 떨구어내지 않으면 그 수많은 잎을 다 먹여살려야하는 고통에 시달린다. 식물들의 겨울잠은 기온이 차고 물이 부족한 시련의 겨울을 나기 위한 방편이다.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이호신作 '구룡사 일주문' (48×32)1996년.



◇구룡사 주변 숲에사는 동고비(오른쪽)와 박새(아래).

